•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제 682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6월 4일(음력 5월 1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종가집이 달라졌다"
10 통도사에 부는 변화 바람



마곡사 친환경 방생법회
12 토종 붕어 치어 35만 미 방류



"참선, 해 봐야 참맛 알지"
17 선지식-복천선원장 월성 스님



영화 속에 불교코드?
19 영상미디어 속 불교사상

"北동포 굶어죽는 비극 막아야"

JTS, 북한 식량난 실상 공개…시민단체들 긴급구호캠페인 동참

황해도 옹진과 용연에서 아사자(餓死者)가 하루 평균 7~10명씩 발생하는 등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좋은벗들, 한국JTS, 불교인권위 등 NGO와 네티즌들이 북한 식량난의 실상을 알리며 긴급구호캠페인에 들어갔다.

북한사회가 또 다시 1997년과 같은 '굶주림'으로 동요되고 있다. 미얀마 사이클론, 중국 지진 등과 같은 아시아 자연재해로 인한 극한 상황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동포인 북한의 식량난은 외면받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주민의 식량난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대북구호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5월 2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연 '2008 북한사회동향 보고회'였다. 좋은벗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자체 정보망을 이용해 밝혀낸 실태를 공개했다. 특히 북한 사람들이 직접 "굶어죽고 있다"고 증언한 동영상 자료 공개는 충격을 던져줬다. 한 북한 관리는 "시멘트 바닥까지 뒤집어 풀뿌리를 캐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한 탈북주민은 "먹을 것이 없다보니 돼지들도 먹으면 탈이 나는 풀을 사람이 먹어 병이 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부모들이 식구 하나라도 입을 덜기 위해 집에서 자식들을 (중국으로) 내보내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좋은벗들의 보고 이후 각 언론사에서도 자체 정보망을 활용,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주간조선>은 심층리포트를 통해 "북한 곡창지대인 황해도 · 함경도 지방이 홍수 피해를 입어 곡물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쌀값이 수직상승,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JTS가 5월 28일 퍼포먼스로 재연한 장면. 사진=박재완 기자

SBS와 KBS 등 각 방송사들은 리포팅을 통해 "정부자료를 살펴보면 북한 하위계층 1000만명이 굶주림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들이 굶어죽는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남북한 정부가 절실히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통일부와 국정원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한달에 50만톤 정도 유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텨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사회가) 아직 견딜만한 상황"이라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이어 북한 식량위기가 보도되자 NGO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먼저 JTS는 북한주민들을 긴급 구호하기 위해 5월 27일 부산항 제3부두에서 200톤의 밀가루를 싣고 출항했다. 이번에 보낸 밀가루는 함경북도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원, 농아학교, 종성학원, 라선어린이집과 회령시 양로원, 양강도 해산시 어린이집에 각각 전해질 예정이다.

JTS는 '긴급구호단'을 조직,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5월 26일~31일 전국 10개 도시에서 '동포의 밥상체험' 캠페인을 벌이며,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재연한 퍼포먼스를 시연,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토회 활동가들은 "옥수수 20kg들이 한포대면 북한 주민 4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며 '북한 동포에게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운동'과 '1만원 기부하기 운동'도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JTS의 북한동포 돕기 캠페인은 미주 지역과 필리핀, 태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JTS의 모금운동 결과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금운동을 펼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5월 30일 현재, 모금액이 1억을 넘어선 것. 게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모금운동도 6시간만에 1000만원을 달성했다. JTS 모금운동에 동참한 한 네티즌은 "굶어죽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냐"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불교인권위는 올해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며 굶주리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을 모으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에 구충제 보내기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불교계 밖에서도 북한 구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은 5월 29일 6 · 15 운동본부 남측위원회와 공동으로 올 가을 북한동포들에게 쌀을 보내기로 하고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가졌다. 통일쌀 재배지는 안동을 비롯해 영주 · 의성 · 봉화 등 경북 9개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될 예상 쌀 생산량은 모두 80kg들이 1천여 가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벗들 ·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현재 남북의 정치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안다. 북한 정부가 폐쇄적인 것 역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구해낼 수 있는 생명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북한 식량난 문제에 국민적 동참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김강진 · 박지원 기자

社告

'현대불교' 새얼굴로 새출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실현하는 불교정론지 '현대불교'가 새 얼굴로 새 출발합니다. 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는 회사의 얼굴인 CI를 새롭게 정하고 지면도 일부 개편했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감동적인 기사, 보다 비주얼한 지면으로 변신한 '현대불교'를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의 새로운 'CI' 탄생

지혜와 자비 구현하는 '현대불교' 이미지 담아

두 팔을 높이 올려 기원하는 불자의 이미지 속에 지혜의 촛불이 밝게 타오르는 모습은 지혜와 자비의 구현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된 두 선은 중중무진의 인드라망을 연상시키며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결합은 선과 악, 삶과 죽음 등 대립을 원융 시키는 '둘이 아닌 도리'를 나타냅니다. 또 전체적인 형상이 연꽃잎을 상징하는 것은 오탁악세에 물들지 않으며 정론과 정법으로 법을 전하는 매체의 사명을 드러낸 것입니다.

흥미롭게 읽고 감동으로 신행 UP!

신설 지면 · 새 연재 안내

충청 지역면 신설 ▶12면

충청지역의 불교를 넓고 깊게 다룰 '충청 지역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또 종합면을 1면부터 4면까지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사를 담았습니다. 이로써 '현대불교'는 부산경남(10면), 호남(11면), 충청 지역 등 3개의 지역 전용 지면을 갖춰 전국적인 불교네트워크를 형성 했습니다.

畵장세계 ▶20면

경전의 비유를 만화로 재구성해 흥미와 감동으로 신행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는 김흥인 화백의 '울퉁보살 불퉁거사'가 새로 선보입니다. 우리 민족 인쇄문화의 자부심을 견인해 온 불교 판화의 세계도 '옛 판화 이야기'를 통해 찾아 갑니다. 옛 판화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치악산 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선학 스님이 들려줍니다. 1면에 연재되던 '허허당의 세상만사'도 20면으로 옮겨 매주 실립니다.

청오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18면

청오 스님이 전통 기법을 전수받아 심혈을 기울여 제조해 낸 '청다향', 그 신비의 향을 법당으로 옮겨 놓기까지의 고된 시련과 성취의 기쁨, 오롯한 수행이었던 향 개발의 과정을 청오 스님이 진솔하게 들려줍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붓다,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
고따마 붓다
[성열지음 | 도서출판 문화문고 | ₩22,000원]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농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세계평화 남북통일 기원

봉 법왕사 제18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법회 행

• 일시 : 2008년 6월 18일(수) ~ 9월 30일(화) 100일간 매일 오전 9시(108배 3번) 매일 오전 11시 (법문)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 증명 : 조계종 원로의원 원공정무

법왕사에서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18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백분의 큰스님을 모셔다 100일동안 설법하는 법회로 법왕사에서는 창건 이래 18여년동안 열일곱 차례의 백고좌법회를 열었는데 매번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불교의 핵심인 경율론 삼장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택하여 오는 6월 18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 100일동안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 1백분을 모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법문을 하게 됩니다. 세계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발원을 담아 뜻깊은 법석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백고좌 백중 영가 천도재 49일 함께 봉행함(접수요망)

대한불교 조계종 주지 실상 합장



1일차_ 6월 18일
입재 법문 고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100일차_ 9월 30일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봉행 종진스님
해인사 율주

1일차_ 6월 18일 고우스님(조계종원로의원)
2일차_ 6월 19일 암도스님(백양사/청량원주석)
3일차_ 6월 20일 지안스님(은해사승가대학원원장)
4일차_ 6월 21일 자광스님(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회주)
5일차_ 6월 22일 각성스님(부산/화엄사주지)
6일차_ 6월 23일 현응스님(서울/육조사선원장)
7일차_ 6월 24일 무진장스님(동산불교대학장)
8일차_ 6월 25일 무심스님(대전/무상사주지)
9일차_ 6월 26일 활안스님(한국불교통신대학장)
10일차_ 6월 27일 주경스님(강릉/성원사주지)
11일차_ 6월 28일 인환스님(서울/경국사회주)
12일차_ 6월 29일 혜월스님(동화사/비로암)
13일차_ 6월 30일 각현스님(연꽃마을대표이사)
14일차_ 7월 1일 성타스님(경주/불국사회주)
15일차_ 7월 2일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
16일차_ 7월 3일 성열스님(서울/강남포교원장)
17일차_ 7월 4일 종석스님(중앙승가대교수)
18일차_ 7월 5일 도오스님(동국대교수)
19일차_ 7월 6일 현각스님(원주/성불원장)
20일차_ 7월 7일 상인스님(군위/인각사주지)
21일차_ 7월 8일 현진스님(여의도포교원장)
22일차_ 7월 9일 혜경스님(화담정사조실)
23일차_ 7월 10일 효탄스님(운문승가대강사)
24일차_ 7월 11일 현장스님(보성/대원사주지)
25일차_ 7월 12일 학담스님(조계조종회의원)
26일차_ 7월 13일 법공스님(동국대교수)
27일차_ 7월 14일 영산스님(진주/해룡사주지)
28일차_ 7월 15일 법철스님(밀양/서산사회주)
29일차_ 7월 16일 종연스님(인천/수미정사주지)
30일차_ 7월 17일 운월스님(여래원원장)
31일차_ 7월 18일 불심도문스님(죽림정사조실)
34일차_ 7월 21일 정락스님(만의사주지)
35일차_ 7월 22일 해운스님(해인정사주지)
36일차_ 7월 23일 철운스님(법주사강주)
38일차_ 7월 25일 고월스님(부산/감로정사주지)
37일차_ 7월 24일 운월스님(동국대강사)
39일차_ 7월 26일 경성스님(중앙승가대교수)
40일차_ 7월 28일 법인스님(논산/안심정사주지)
42일차_ 7월 29일 일감스님(운문승가대학감)
43일차_ 7월 30일 혜정정사(진각종 전교육원장)
45일차_ 7월 1일 혜총스님(조계종 포교원장)
46일차_ 8월 2일 지묵스님(장흥/보림사주지)
49일차_ 8월 5일 정엄스님(군포/정각사주지)
54일차_ 8월 10일 현호스님(안양/지장선원주지)
59일차_ 8월 15일 백중 실상스님(법왕사주지)
62일차_ 8월 18일 경원스님(극락사주지)
64일차_ 8월 20일 진월스님(동국대교수)
70일차_ 8월 26일 지현스님(송광사율원장)
73일차_ 8월 29일 지환스님(동화사기본선원장)
75일차_ 8월 31일 지오스님(전 범어사승가대학 강주)
76일차_ 9월 1일 도진스님(직지사 중암)
78일차_ 9월 3일 진철스님(만불선원)
80일차_ 9월 5일 일진스님(운문사승가대학감)
87일차_ 9월 17일 정무스님(조계종원로의원)
100일차_ 9월 30일 종진스님(해인사율주)

제18회 백고좌대법회 전야제 산사음악회
• 일시 : 2008년 6월 17일 오후 7시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앞 광장
• 출연진 : 유진박, 범능스님, 이삼스님, 허철영(인도성악가), 연합합창단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 053)766-3747
www.budwangsa.or.kr ※ 동참신행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사찰 수목장’ 시대 열렸다

‘장사법’ 본격 시행…“장례포교 활성화 기대” 목소리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이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조성, 장례 포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에는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불교전통 장례문화인 다비의식을 명문화 했으며, 스님의 부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별하게 됐다. 묘지(자연장, 수목장 포함) 조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천㎡, 일반 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안치구수는 ‘5천구 이하’다. 개인 및 가족은 100㎡ 미만, 종중 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이외의 종교단체가 수목장 등을 조성하려면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 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사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통해 형식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를 올바로 선도함은 물론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장지나 수목장림 조성을 통한 포교 및 대국민 장례(묘)문화를 선도하는 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업성 자연장의 난립으로 수행 및 사찰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은 “화재로 나무가 소실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사찰 수행환경을 포교 명목으로 돈과 바꿀만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자연장도 납골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 년전 납골당 유행 당시에도 조계종은 자연장과 같은 논평을 냈고, 전문가들도 똑같은 비전에 고무됐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이하 였다. 화장 등 장사 등에 관한 인프라 투자와 선도 없이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장법에만 치우진 것은 종교단체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중생을 구제할 명분이라면 임종교육 등 죽음에 관한 제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김성우 · 조동섭 기자

충담스님 소신열반 10주년 영산재

6월 7일 감로사서 봉행…승가사 이전 건립불사 기공식 개최도

“연년이 익어가는 그 사무량심이/ 열백번 금강일심으로 마음 맑으면/ 반열반 홀로서 준비하신 큰 스님/ 대지위에 장작더미 쌓아올려/ 제단에 불붙여 화중생련(火中生蓮) 소신(燒身)공양 하였도다.”(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 1998년 6월 27일 당신의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공양하는 소신열반에 들어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충담 스님(사진)을 기리는 추모영산재가 봉행된다. 태고종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7일 오전 11시 등공사리탑(충담스님 부도) 앞에서 ‘충담 대종사 소신열반 10주년 추모영산재’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법회에서 학술발표회를 갖는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리 배포한 ‘충남 대선사의 소신공양과 한국불교의 희망’이란 논문을 통해 “충담 스님께서는 항상 무량수불아미타불, 무량광불아미타불, 염광광불아미타불, 환희광불아미타불 등 12광불(光佛)을 염송하시며, 삼매의 불을 일으켜 평소 서원하시던 미증유의 소신공양을 감행, 화중생연을 피우시고 육신등공(肉身騰空)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목 교수는 또 “우리가 수계의식을 할 때 촛심에 불을 당겨 팔뚝을 뜨는 의식을 가질 때 촬라의 시겁이지만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라게 된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회신멸지(灰身滅智)하는 소신의례로 입적한다는 것은 그 서원과 발원이 한마음으로 결응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감로암에서 소신공양으로 열반하신지 10주년이 되는 날 충담 스님의 원력이 시방세계, 한국사회에 새로운 원력과 희망을 점지하는 화염광(火焰光)삼매로 화현하였으니, 우리들도 심핵(心核)삼매의 위력을 발하는 불자가 되어 남북통일과 부처님의 정법 실현하자”고 덧붙였다.

충담 스님은 1930년 삼각산 승가사에서 박심월 화상을 은 · 계사로 출가, 62년 권상로 스님 등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종권수호를 위한 7일 단식 철야정진을 했다. 70년 7월 1일 태고종으로의 관할청 등록 당시 관등록 사찰 1호로 승가사를 종단에 희사하는 등 종단발전의 공로를 남겨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받아왔다. 스님은 감로사에서 20하안거를 성만하고 <관무량수경>의 16관법 중 일상관(日想觀) 수행을 해왔다. 태고종 승정을 역임한 스님은 조국 통일, 생로병사의 중생 제도, 불교계 화합흥륭 등 세 가지 대원력을 세우고 98년 6월 27일(음력 윤 5월4일) 감로사 미륵부처님 전에서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이는 한국불교사상 드문 일로, 당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한편, 이날법회에서는 충담 스님이 70년 전 창건한 서울 왕십리 승가사를 호명산 감로사로 이전하는 ‘사찰이전 건립불사 기공식’도 함께 봉행된다. 승가사는 최근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이전하게 됐다. 문의 =(031)584-0117

김성우 기자

조계종 공식 포살계본 발행

포살작법 설명회 개최…전국 교구본사에 2만부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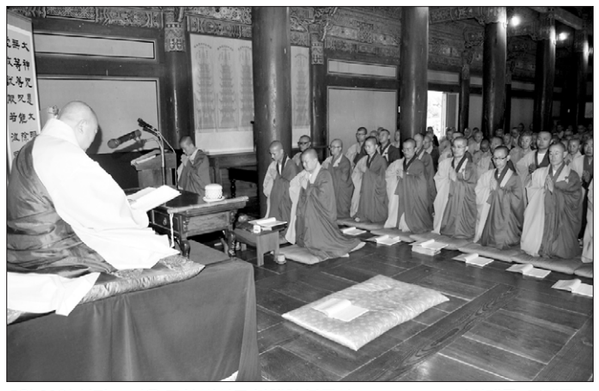
조계종이 승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제도를 실시한 가운데, 포살법회에서 사용할 공식 계본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이 최근 발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이 2만여 부를 발행해 전국 교구본사에 배포한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은 전국 교구본사에서 결제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된 포살법회에 사용될 경전으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편역한 것. 190여 쪽으로 이뤄진 이 책은 옛 경전의 운치를 살려 세로쓰기로 꾸며졌다. 또 글자 크기를 키워 보기 편하게 했고 한글세대를 감안해 게송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글로 풀어 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관 스님은 이 책의 서문에서 “부처님께서는 교단흥성, 대중화합, 신심증장, 정법구주를 위해서는 계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포살로 수행의 근간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포살을 의무적, 필수적으로 행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범망경포살본을 편역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포살계본 발행을 계기로, 포살법회가 동일한 의식으로 거행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30일 조계사에서 교구본사별 포살계사를 초청해 포살작법 설명회를 열었다. 불국사(5월 30일), 용주사(6월 2일), 조사(6월 2일), 신흥사(7월 1일), 해인사(7월 30일) 등 교구본사들은 포살법회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김성우 기자



5월 30일 성타 스님을 포살 법사로 봉행한 불국사. <사진제공=조계종>

태고종 보우승가회장 도산 스님 멸빈

중앙초심원 판결…보우승가회, 총무원장 퇴진운동

불투명한 종무행정 등을 이유로 태고종 총무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 스님이 멸빈(체탈도첩)됐다.

태고종 중앙초심원은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및 교계신문 광고게재 관련 해종행위 사건에 대해 5월 21일 심리를 종결하고 보우승가회장 도산을 멸빈의 징계에 처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중앙초심원은 판결문에서 “보우승가회장 도산은 교계지 및 유인물 등에 종단과 종단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가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여 종단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대외적으로 태고종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의 해종행위를 자행하여 징계법 제4조에 명시된 멸빈 처분에 관한 사유(조항)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보우승가회는 5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주요소임자의 재산망실 등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종도의 의무”라며 “중앙초심원의 판결에 불복, 사정원에 항소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보우승가회는 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의혹을 담은 백서 <종도들에게 고합니다>를 발간, 총무원장 퇴진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조계사 새 주지 세민 스님



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에 세민 스님(사진)이, 13교구 쌍계사 주지에 상훈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월 30일 총무원 접견실에서 두 스님에게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세민 스님은 지관 스님의 맏상좌로서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천 원심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상훈 스님은 포교원 포교국장을 역임, 현재 구례 불락사 회주를 맡고 있다.

김성우 기자

▲본사 사령
노덕현 命 취재부 수습기자
2008년 5월 26일부

원효 대사 메달 출시

한국 불교의 얼굴, 신라 고승 원효 대사를 메달로 만난다.

한국조폐공사(사업이사 정해윤)는 5월 26일, “4차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로 신라 고승 원효 대사와 측우기를 발명한 조선 과학자 장영실을 선정해 5월 28일 메달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구입은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reamint.com)와 화동양행(www.hwadong.com)에서 가능하며, 가격은 개당 2만5000원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존자 서박사 경보 대종사 탄신 94주년, 열반 12주기 일붕대재 행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사해불자 여러분의 법체 강녕을 삼보님전에 원력 비옵니다.
사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음력 5월 초 아흐렛날은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셨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창종주이신 일붕존자의 탄신일이면서 기제일이기에 일붕존자 탄신지인 제주도의 일붕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일붕대재를 봉행코져하오니 일붕종도와 일붕문도는 물론 인연있는 여러 사해불자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바라옵니다.

아래
◆ 일시 : 불기 2552(2008)년 6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산 15-8번지 한라산 일붕동산
◆ 전화 : 총무원 (02)3663-9468, 제주종무원 (064)794-3511

주최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주종무원
후원 : 일붕전국 문도회

일붕대재 봉행위원회
• 대 제 주 : 봉암 연종(종정)
• 고 문 : 일붕문도회 고문단, 명예회장단, 일붕문도회장
• 제 례 위 원 : 정각(원로의장),동명(원로위원),청곡(원로위원),대장(중앙종회 의장), 일암(사정원장),일붕문도회 부회장단
• 봉행위원장 : 법철(총무원장)
• 봉 행 위 원 : 법운,법보,현각,무정,효봉,덕암,일선,도일,법원,진소,지연,동월,상묵,청원,대공,대성, 왕연,정각,효산,종호, 일붕문도회 자문위원단
• 집전위원장 : 서병렬(문도회 사무총장)
• 집 전 위 원 : 황공심,최묘심,배상광,이종근,윤붕안,최용국,서정안,최창배,장혜철,최해월,전혜명, 박교덕,혜진,김덕기,이혜심,최무송,현도원,법작,송덕성,유석근,임창만,하순애, 최혜숙,최승부,이호성,배상환,이영선,최명자,최명순,김수임,서두엽,이종근,배준성, 김미영,한순남,김부삼,고성규,이존영,김진태,김부삼,김춘옥
• 준비위원장 : 영수(제주종무원장)
• 준 비 위 원 : 고광,봉월,법산,대성,경철,도연,대원,철수,대원,광순,철공,현오,철종,철환,정철,미산, 공익,자림,현오,법일,귀일,철면,관일,현송,동해,제철,수철,제법,금강,우철,상철,민철, 해동,유생,자광,보광,향봉,제철,도명,행원,현덕행,대련화,선심화,선심월,정법궁, 염불심

‘개발 바람’에 수행환경 훼손 우려

각 지자체들 앞다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추진 움직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사찰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대운하 등의 개발논리가 우세해지자 지자체에서도 케이블카 문제를 재점검, 재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5월 29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환경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림청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 시민단체 ·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 · 운영된다. 협의체는 올 11월까지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자료 등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가 합당한지 적극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케이블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지난 2004년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공원지구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규정 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각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논란은 중단된 상태였다. 2004년 지침에 따르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이면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케이블카 설치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를 강력 주장하는 지역들이 한라산 · 설악산 · 지리산 · 다도해 등을 포함하는 청정환경 지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시와 양양군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전경련 등의 지원사격을 받아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원하며 대정부 성명서까지 발표, “케이블카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은 경제적 실효성과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보호’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주시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을 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양양군에서는 “낙후된 지역 관광경기를 살리려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로 훼손을 막아 오히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에서는 ‘어불성설’이라 맹비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시는시민들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보호’라는 논리는 우리가 산을 이용하는 기본 조건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2004년 삭도검토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변한 것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불교계 역시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사찰을 끼워 넣지 않을 수 없다”며 “사찰 경내지를 통과하거나 사찰을 정류장 등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겨 사찰수행환경 훼손은 물론 경관 · 재산권 · 문화재 보존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블카 설치 예상 지역 안에는 실제로 대구 선본사 갓바위, 밀양 표충사 등이 들어있다.

한편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개발업자들이 지자체에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케이블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도로, 관광지 개발계획으로도 이어지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강진 기자

“식수 공급·의료서비스 절실”

JTS,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실태 보고 기자간담회





사원에서 숙식을 해결 중인 미얀마 이재민들과 박지나 JTS 해외사업 본부장.

“안전한 식수 공급이 시급합니다. 정화시설과 의료보건 서비스 시설도 절실해요.”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가 5월 29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실태를 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5월 20~26일 미얀마에서 사이클론 피해지역 상황을 둘러보고 온 박지나 JTS 해외사업본부장이 참석, 생생한 현지 상황을 전했다.

박 본부장의 이번 조사는 미얀마 정부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NGO 대표들을 정식 초청해 진행한 ‘사이클론 피해실태 및 국제구호물자 분배 현황보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얀마 정부가 밝힌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자는 사망자 7만7000명 이상, 실종자 5만 5000명 이상이다. 또한 공공재산피해는 3조 3500억 짜드(약 3조 3500억원), 민간재산파손피해액은 8조 3800억 짜드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사이클론 나르기스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이라와디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이라와디 지역은 7개 지역이 붕괴됐으며 특히 라부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부따에는 500개 마을 중 177개 마을이 사라졌고, 긴급구호로 설치된 127개의 텐트에 3000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박 본부장은 현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식수공급과 의료보건 서비스라 강조했다. 또한 ▲병원, 보건소, 학교 등 공공시설 ▲식량 배급 ▲ 농경지 확보 ▲씨앗, 비료, 트랙터 등의 농자재 및 농기구 확보 등도 우선순위로 필요해 미얀마 정부에서도 이를 먼저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5월 18~19일 이라와디 보글리 지역에 쌀 10톤을 지원한 JTS는 5월 28일부터 다시 이라와디 라인 보우와 보글리 지역에서 민간인 협력을 얻어 이재민들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지하철에서도 특정종교 홍보?

지하철역 장식 화분 하단에 특정종교의 교리를 명시한 문구가 적혀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5월 23일과 26일,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특정종교를 홍보하거나 공공캠페인을 빙자한 과도한 선교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 8개 지하철공사에 ‘종교편향 시정과 종교중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강진 기자

“은평뉴타운 청담사 유적 보존”

문화재위 현장보존 결정

서울 은평뉴타운 예정지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에 보존결정이 내려졌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5월 2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가 청담사터로 추정된 은평뉴타운 예정지의 진관내동 429번지 일대를 현장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존 결정된 곳은 5월 2일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삼각산청담사삼보초(三角山淸潭寺三寶草)’라 적힌 평기와 5점을 발견한 진관내동 3-A 공구 일대와 인근 ‘자씨각(慈氏閣)’이란 현판이 걸린 보호각에 봉안된 석조미륵불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불상을 나말여초의 것으로 본다.

한편 문화유적 현장보존지에 도로 등을 내려던 SH공사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논리에 맞서 문화유적 보존 논리가 정당한 힘을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美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불교인권위·평화연대 성명

농림부(장관 정운천)의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와 불교평화연대(공동대표 진관 · 무원 · 황정 · 현종)는 5월 30일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를 “전 국민을 평생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심한 처사”, “국가의 자존을 내팽개친 노예근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불교인권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정치적 대립이 아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국민에게 사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재협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촛불집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방송 中에 구호쌀 전달

불교방송(이사장 영담)과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는 5월 29일 중국 베이징 국가 종교사무국에서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영담 스님은 쌀 60톤(4000만원 상당)을 짱찌엔룽 종교사무국 부국장에게 전달했다. 이 번에 전달된 구호쌀은 3일 후 쓰촨성 종교사무국을 거쳐 이재민들에게 전해졌다.

조동섭 기자

“로스쿨선정 회의록 누락·조작”

동국대 정용상 교수, 교육부 자료에 의혹 제기

“로스쿨 선정을 위해 열렸던 회의록이 누락 · 조작됐다.”

동국대 법과대 학장 정용상 교수는 5월 26일 “로스쿨 선정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 상당수가 누락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동국대가 교육부로부터 6종의 로스쿨 관련자료를 입수했으나, 제출된 회의록에는 로스쿨 선정원칙과 선정 및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

정 교수는 “15회에 걸친 회의 중 제13차, 1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스쿨대학선정 및 인원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누락됐다”며 “일부 회의록(제15차 회의록)은 조작한 흔적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 기본형식인 ‘1. 개회 2. 보고(전회 회의록) 3. 심의안건’ 등의 순서가 다른 회의록에서는 모두 지켜졌는데 제15차 회의에서만 ‘1. 개회, 3. 심의안건’ 뿐으로 2번이 없었다는 것이 정 교수가 회의록 조작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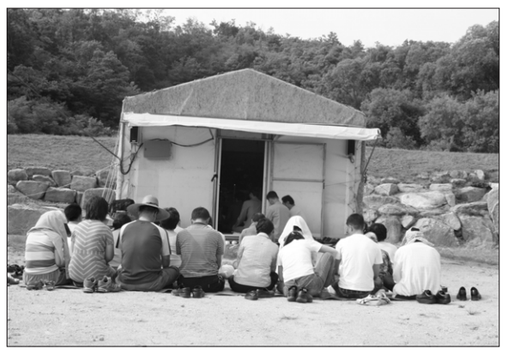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는 “제13차, 14차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함”이라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등잔 모양 달라도 빛은 같지요"

상주 용해사·서울 삭개오작은교회 아름다운 만남

법문하는 원로 신학자 김경재 목사(왼쪽)와 법당 밖에서 법문을 듣는 용해사 신도들.

작은 절과 작은 교회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상주 용해사(주지 무진)와 서울 삭개오작은교회(전도목사 김경재)의 '이웃종교 서로 배우고 협력하기' 교류가 절과 교회의 새로운 소통 모형을 만들고 있다.

5월 18일 오후 3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부직포를 씌운 뒤 밧줄로 얽어 맨 4평이 채 안 되는 크기의 용해사 법당 안에는 무진 스님과 김경재 목사 그리고 삭개오작은교회의 신도들이 자리를 잡았다. 고준환 경기대 교수와 강경구 사법면장도 함께 했다. 용해사 신도들은 법당 밖 비닐 깔개에 방석도 없이 앉았다. 이날 법회는 용해사와 삭개오작은교회가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였다. 지난 3월 2일에는 무진 스님이 서울 신촌에 위치한 삭개오작은교회를 방문해 법문을 했었다.

용해사는 무진 스님이 5년 전부터 기도와 법회를 이어가며 가꾸고 있는 도량이고 삭개오작은교회는 △교회건물 안 갖기 △목사 월급 안 받기 △헌금 절반 사회 환원하기 등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다. 이들 절과 교회는 앞으로도 서로 교류를 이어갈 생각이다.

법회가 시작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법당 안팎에 모인 30여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와 독경을 했다. 누가 불자이고 누가 개신교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한신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 원로 신학자 김경재 목사의 '법문'이 시작됐다. 주제는 '기독교는 불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날 지구문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종교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종교인들이 합심해야 인류문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종교의 유형과 추구하는 점은 달라도 심층적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낯선 것에서 벗어나 각자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협심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날 법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김 목사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기독교의 '비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불교의 인연생기적(因緣生起的) 실재관(實在觀)은 기독교의 창조론적 실재관이 빠지기 쉬운 실체론적 사고방식과 구원사를 강조하는 단선론적 실재관을 보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보살사상의 체계와 자비 실천의 가르침은 배타적이고 교리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목사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계율을 실천하려는 마음, 선정을 통한 깊은 마음공부를 강조하는 불교의 계정혜(戒定慧) 수행관은 기도원과 신학교 기능이 별개로 나눠진 기독교가 배워야 할 것"이라며 성경공부와 설교 중심에 치우쳐 있거나 방언 예언 퇴마 등에 치우치는 경향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등잔모양은 달라도 비쳐 나오는 빛은 같다"며 좌중을 둘러 본 김 목사는 "차이를 존중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종교인이 앞장서야 한다"며 '법문'을 마무리 했다. 종교는 달라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작은 절과 작은 교회의 만남은 사흥서원과 산회가를 합창하며 회향됐다.

상주/글 사진=임연태 기자



5월 25일 전등사가 개최한 '제3회 이주노동자 잔치'.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강화 전등사 '제3회 이주노동자 초청잔치' 개최

"밍글라반"(미얀마), "사왓디캅"(태국), "발로아첸"(방글라데시), "나마스테"(네팔), "사인바이노"(몽고).

저마다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인사말을 하며 한 자리에 모인 아시안들이 '아시아는 하나'임을 확인한 행사가 열렸다.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는 5월 25일 전등사 경내 가궐지에서 이주노동자 400여 명을 초청해 제3회 이주노동자 초청잔치를 개최했다.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 우케이드사다 · 우데지라 스님(미얀마), 곽영진 문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행사는 오전 문화체험과 오후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주민들은 단주 만들기, 컵등 만들기, 다도 · 인경을 통해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한국생활 1년차인 아룽아론(태국, 31)씨는 "컵등과 단주 만들기가 재미있었다.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웃음과 동심으로 하나된 어린 불자들도 있었다. 아누기(스리랑카, 8세)와 다문화가정 자녀인 문유정(서울, 8) 어린이 등은 한 알 한 알 단주를 꿰며 우정을 나눠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풍물놀이로 막을 연 공연은 한국 · 네팔 · 방글라데시 · 태국 · 몽골의 문화공연으로 이어져 흥을 북돋았다. 덕신고 풍물놀이패와 인천시립무용단, 서천 청소년 비보이 팀 '어메니크루'는 한국을 소개했고, 네팔-한국 문화포럼 · 미얀마 공동체 · 태국 대사관 등은 각국의 전통무용을 소개했다.

다누석(미얀마, 30)씨는 "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무용을 통해 서로 이해하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다는 프램 글룽(네팔, 36)씨는 "행사가 매년 좋아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 외국인에게도 잘 해줘 고맙다. 하지만 비자문제는 한국정부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강화=조동섭 기자

'민주화 현장' 속으로

비로자나청소년 인권문화탐방

(사진)(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 덕정 정사)는 5월 24~25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주5일 수업제에 맞춘 청소년 인권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월의 그날이 다시오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탐방은 5.18 광주민주화 현장을 찾아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현대사를 바로 일깨워 주고, 색다른 음식문화 체험으로 법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탐방에는 진선여중 학생들과 진각종 각 심인당 학생회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김성우 기자

강화 선원사 연꽃축제 막내리나

의회 예산삭감으로 중단…성원 스님 항의 성명서

한여름 시원스레 핀 연꽃과 연꽃 상품들로 유명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의 연꽃축제가 강화군 의회(의장 이상설)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5월 27일 '강화군 의회의 연꽃축제 지원금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님은 "연(蓮) 향토사업은 정부와 농림부가 2007년 지정한 사업"이라며 "연 향토산업 지원금 10억원, 선원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68억 등의 국고가 지원됐음에도 연꽃축제 지원금을 전액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성원 스님은 "고인돌 축제에는 수억, 새우젓 축제, 삼랑성 축제에 수천만원씩 쓰면서 연꽃축제 지원금은 사찰행사라는 빌미로 올해 배정된 지원금 5000만원 모두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의회 이상설 의장은 "선원사 연꽃축제는 강화군민이 배제된 사찰행사다. 이런 행사에 강화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꽃축제보다 주민 소득에 도움되는 연 상품개발에 쓰자는 취지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성원 스님은 "농림부에서 지원받아 오자는 말에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그럼 농림부 장관을 스님이 하면 되겠네'라는 말까지 들으며 진행했던 축제다. 연 관련한 국고지원금 78억원 중 선원사 연꽃축제에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변했다. 스님은 "연꽃축제를 뺀 연 향토산업은 강화군의회의 의도적인 결과다. 진실이 밝혀져 의회가 바로 설 때까지 연꽃축제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선원사 연꽃축제 삭감은 선원사와 의회 양자의 갈등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이 의장은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과장이 교체됐다고는 하나 의회가 한번 삭감한 연꽃축제 예산을 또 다시 올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해 강화군청과 강화군의회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동섭 기자

수월선사 추모 기념당 '수월정사' 개원

중국 옌지서 개원법회 봉행

100여년 전, 경허 선사의 수제자 수월스님(1855?-1928)이 동포들을 제도했던 땅에 스님의 뜻을 기린 사찰이 건립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5월 27일 중국 지린성(延吉市)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에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불교협회와 공동으로 수월선사의 추모기념관인 옌지 신흥불당(수월정사)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법회는 한중 양국의 불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촨성 대지진의 희생자 위령재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제의 억압을 피해 간도로 건너오는 동포들을 위해 음식과 신발 등을 길가에서 공양한 수월 스님은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며 "연변 동포들의 마음의 휴식처이자 양국 우호 선린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먼시 민족종교국에서는 수월선사가 있었던 옛 화엄사 터를 복원해 불교 관광지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기자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무량한 시간속의 예불
나무솔개의 둥지 송광사,

그 옛날 지눌 스님이 날려 보냈던 나무솔개는 어디에 있을까. 조계산 숲에 둥지처럼 들어 앉은 송광사를 찾았다.

이슬비가 내린다.
비에 젖은 전각의 기와가 햇살처럼 반짝거리고,
꼿꼿하게 산문의 경계를 서고 있는 일주문 곁에는 하얀 수국이 모래시계처럼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설화에 의하면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옮길 터를 찾기 위해 날려 보낸 나무솔개가 이 곳 송광사 국사전 뒤뜰에 내려앉았다고 한다.
새로워지려는 몸짓으로 충만했던 시절을 가늠하며 오늘의 도량을 걷는다.

멀리 하안거에 든 수선사가 보인다. 스님 한 분이 마당을 쓸고 있다. 쉬는 시간이다.
치열했던 시간이 비질 뒤로 쌓이고 스님의 시선은 비질 끝을 따라간다.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고 숲에서 산새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어제처럼 또 하루가 저물고 대웅보전에는 대중이 모두 모였다. 저녁예불이다.
부처님의 따뜻한 시선 아래 무릎 꿇은 대중이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를 올린다.
설화 속의 나무솔개는 지금도 이야기 속에 남아 있고, 그 설화 속의 송광사에서는 지금 저녁예불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금'은 무량한 시간 그 자체다.

순천 송광사=글/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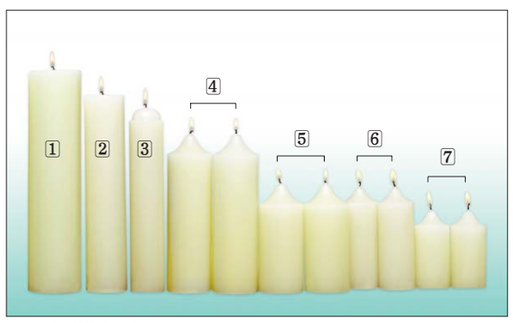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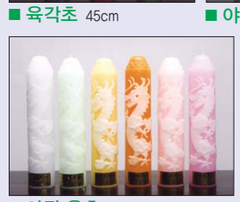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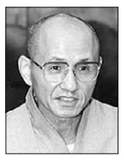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일주문



라오스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은 6월 3~10일 라오스를 방문해 '생명의 우물 1000프로젝트' 사업을 점검하고 영화초등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02)455-9596



파라미타 사경공모전 시상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6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11회 전국 청소년 사경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승기신론' 강의

영천 은해사 승가대 학장 지안 스님은 6월 17일부터 스님을 대상으로 서울 미타사 내 대승암에서 <대승기신론>을 강의한다. 011-420-7838 (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스님)



강원시립복지원 후원금 전달

성남 심전사 주지 지웅 스님은 5월 23일 사부대중 50여명과 함께 강원시립복지원을 찾아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계차 문화 들차회

(재)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6월 3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세계 차 문화 들차회 2008'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또 다른 3년 맞을 것"

열린선원 개원 3주년 맞은 법현 스님



"저희 열린선원이 벌써 개원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 더 밀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6일 열린선원 개원 3주년을 맞은 법현 스님. 스님이 처음 '저잣거리 포교'를 표방하며 서울 역촌동 중앙시장 내에 열린선원을 개원할 때는 모두가 놀랐다. 시장 속 선원이라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려와 기대 속에서 스님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지런히 열린선원을 가꿔 지역 사회 속에 안착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개원 1년이 넘도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

"시장 상인들과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상인들은 하루 종일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선원이 가까이 있다 해서 들어오기까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생각을 바꿨다. 자신이 먼저 시장에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한 두 바퀴씩 중앙시장을 돌고 다니면서 가게마다 인사를 하고, 물건을 샀다. 일일이 방문하다 보니 고민상담을 청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늘어났다. 스님의 '적극적 포교'가 지역사회와 그렇게 맞아떨어졌다. 한 명도 오지 않던 사찰을 등록 신도만 300명으로 늘렸다는 것만 봐도 스님의 원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스님은 지역 신행을 이끌기 위해 문화포교를 주창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이후까지' 불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법요집>을 제작, 약 1000부를 배포했다. 스님은 "아직 시행 초기지만 앞으로 법요집과 불교성전, 찬불가를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할 생각"이라 밝혔다.

새로운 3년을 위한 '3개년 계획'도 세웠다. 새로 올 3년의 첫 사업은 오는 9월 5일~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불교박람회 중에 진행 될 차례특강이다. 여기서 스님이 늘 설파해오고 있는 불교차례의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불교차례의식 내용을 담은 단행본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약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불교아카데미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꾸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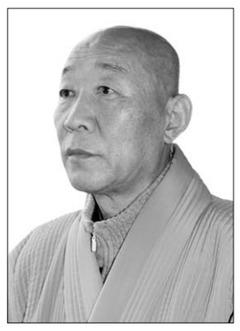
"앞으로 갈 길이 더 멉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사회의 뿌리와 함께 합일(合一)되는 사찰로 가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법현 스님은 6월 6일 오후 2시 '열린선원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기념법회는 1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초청법회와 2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된다. (02)386-472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옛 스님들 행적 배워 내일 준비 해야죠"

'납자필람' 펴낸 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스님



"한국의 스님으로서 우리 역사 속의 스님들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래 이후 수많은 고승들이 전승해 온 한국불교의 맥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납자필람>은 선대의 스님들이 얼마나 지극하게 수행했고 포교를 했으며 불교문화를 가꾸어 왔는가를 알자는 취지에서 편찬된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이어 오는데 빠뜨릴 수 없는 스님과 한국과 관계 깊은 중국 일본의 스님 1200명의 행적을 망라한 책 <납자필람(衲子必覽)>을 펴낸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스님. 달제 스님은 조동종의 근간을 깊이 연구하여 종지를 세우고 수행자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님 이래 한국불교에 면면히 이어내려 온 법맥을 정리했다. 스님들이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책 제목에 '필람'이란 말을 넣었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 '절은 있는데 스님이 없어 만날 사람이 없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혜초 스님을 비롯한 당대 우리나라 스님들의 학식은 중국을 뛰어 넘었기에 인도로 직접 구법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승가와 재가에 큰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제 스님은 <납자필람>을 펴낸 것은 "바로 오늘의 승가가 과거 스님들의 행적에서 배울 것을 바로 배우고 오늘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후세를 평화롭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비매품이며 스님은 조만간 증보판을 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77세 불자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네팔인 셰르찬씨 세계 최고령자로 기록



세계 최고령으로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희수(喜壽: 77세)의 네팔인 민 바하두르 셰르찬씨가 5월 25일 오전 8시 40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최고령 등정기록은 2007년 일본인 야나기사와 카츠스케(71세)씨였지만, 이제 셰르찬씨가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자로 기네스북에 남게 됐다.

'2008년 77세 네팔 노인의 에베레스트 등정(SECEE)' 프로젝트 의장 램 진다지 구룽 회장(네팔-말레이시아 문화협회)은 5월 28일,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의 후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8년 3월 한국-네팔프렌드십협회(회장 수경)의 도움으로 방한했던 셰르찬씨는 문화관광부, 화계사신도회, 재한 네팔인 등 후원에 힘입어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1931년생인 그는 1948년부터 5년간 영국군 용병(구르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복무했다. 네팔로 돌아와 사과농사를 지으며 1960년 스위스 원정대와 함께 다왈라기리(해발 8167m)에 오르는 등 셰르파(길잡이)로 활동했다.

"네팔의 분쟁으로 고통 겪는 이웃들이 가슴 아팠다. 네팔 · 한국을 비롯해 세계 평화를 위해 에베레스트에 오른다"던 셰르찬씨는 그의 말처럼 "노인도 젊은이 못지않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세계의 지붕에 오른 77세 불자의 역정은 평화의 메시지로 전세계에 전해졌다.

조동섭 기자

실천승가회, 미얀마 구호성금 전달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는 5월 26일 실승회 사무실에서 버마 사이클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 10개 사찰에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실승회 대표 법안 스님이 '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회장 아웅 민쉐)' 조모아 부총무에게 직접 전달, 사이클론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구례 화엄사 지역기관과 친선족구대회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5월 28일 구례 실내족구장에서 기관단체를 초청해 친선족구대회를 열었다. 지역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화엄사 스님을 비롯해 구례경찰서(전 · 의경), 3대대 장병,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마산면 청년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구례군 소재 3대대장 이봉주 중령은 "지역단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지역민이 단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팔순기념 서예대전



(사)대선불교조계종 총본산 금봉사는 5월 26일~6월 1일 대구 동구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종정 법왕동산 대종사 팔순기념 선묵서도집 출판 및 서예대전을 열었다. 각 종단 종정스님과 대중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26일 개막식에서 동산 스님은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원하자"고 말했다. (053)424-0876

손법천 대구지사장

법흥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진행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5월 26~27일 미국 일리노이주 에슬린대학 경영학과 학생 21명을 맞아 '몽당연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법흥사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며 한국사찰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템플스테이는 걷기명상, 스님과의 대화시간, 연등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김강진 기자**

영광군, 법성포 수륙대재 조명 학술세미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영광군은 5월 28일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을 비롯해 이낙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성포 수륙대재'를 주제로 제2회 법성포 단오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조계종 기획국장 미등 스님(불교의례연구소장)과 고려대 전경욱 교수, 전남대 나경수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수륙재의 형태와 기원, 역사성 등을 조명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관음출판사 필름





"출발!" 효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성 죽산면 길을 달리고 있다(왼쪽 사진). 어르신들도 이날 바깥 나들이에 나섰다. 모두들 마라톤대회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졌다.

'孝' 정신으로 하나된 축제한마당

연꽃마을 '장애노인을 위한 효사랑 마라톤대회' 개최

경기도 안성 죽산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5월 25일 아침 풀썩풀썩 흙먼지가 일어난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무료노인요양시설 감로당과 실비노인요양시설 보은당이 위치한 이곳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장애노인을 위한 2008 전국 효사랑 마라톤대회'가 그것이다.

이날 행사는 타이틀 그대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 사회의 '효(孝)'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서 '마라톤'이라니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마라톤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운동이라는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이번 행사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스님의 생각은 이랬다.

"몸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 잘 모릅니다.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죠. 게다가 노인요양시설을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들이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찾아와 직접 실상을 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의 생각에 답하듯,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건강과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리고자 하는 약 15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석했다. 연꽃마을 산하 시설 직원들도 당연히 참석했지만 절반가량은 멀리 태백, 온양,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마라토너들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뜻 깊은 행사에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며 한바탕 웃음이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지원했다. 시의원,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장 등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생수 3000병을 지원하기도 했다.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치고, 각현 스님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리자"는 개회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출발대에 섰다. 출발은 하프마라톤, 10km, 5km 순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경쟁과 기록보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서 그런지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넘쳤다.

드디어 "땅" 소리와 함께 출발! 참가자들은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섞인 시골길을 힘차게 달려 나갔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어린이 참가자가 많았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아서였다. 연꽃마을 산하 시설인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도 복지관 공부방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평소 축구 등 운동에 소질을 보였던 석민(13)이는 시작 전부터 스님에게 "꼭 1등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진짜 5km 어린이부문 1등으로 들어왔다. 도선 스님은 "석민이가 108배도 그렇게 잘하더니, 해냈다"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연꽃마을 시설 어르신들도 신이 났다. 평소 거동을 잘 못해 답답했던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자원봉사자들과 바깥나들이에 나선 것. 어르신들은 길 한 켠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냈다. 어르신들의 박수에 고무된 참가자들은 어르신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는 더욱 힘차게 달려나갔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점점한 사람씩 도착선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포츠 경기다 보니 순위도 매겨졌다. 1등, 2등, 3등…. 상위권으로 도착한 사람들의 기쁨은 당연히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회에서는 모두가 참여하면서 느낀 보람과 기쁨이 더 크게 작용된 것 같았다.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도,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느낀 따뜻한 마음도 모두 함께 훈훈한 공기를 만들어 냈다.

이날 대회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현 스님은 앞으로 이 대회를 정례화 하려고 생각 중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니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전문법인인 만큼 '효'라는 가치가 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안성/글 · 사진=김강진 기자

"장애의 벽 넘어 꿈을 향해 달려요"

마라톤대회장서 만난 장애인마라토너 엄기봉 · 이용술 · 천기식씨

'장애노인' 돕기에 장애인 마라톤 선수들이 출전했다. 그 주인공들은 영화 '맨발의 기봉이'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엄기봉(44)씨와 마라톤 풀코스(42.195km) 130회 완주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이용술(49)씨, 지체장애인 마라토너 천기식(47)씨 등 3인이다.

엄기봉씨는 마라톤 이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주, 많은 박수를 받았다. 유명인이다 보니, 곳곳에서 엄씨의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용술씨와 천기식씨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장애인 마라토너들이다. 특히 이씨의 경우,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하라 · 고비 · 아타카마 사막과 브라질 정글을 누비고 다녀 미국 유명 경제지인 '포춘(Fortune)'지 표지모델로 등장한 이력이 있다. 이씨는 "20대에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마라톤을 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울분을 많이 풀어냈다"며 "장애인들도 꿈을 꿀 수 있고, 눈이 안 보여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출전했다"고 말했다.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들

"회향할 수 있어 행복해요"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좋아했던 소년, 이제 노인이 됐다. 항상 꿈꿔왔던 불자로서의 삶, 회향하는 삶으로 노년기를 맞고 있는 그는 서울 관문사 신도회장 이금복(70)씨다. 부지런하기로 따지자면 어디서도 빠지지 않을 이씨는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수탁한 단양군 실버하우스 원장 내정자기도 하다. 지금까지 천태종 복지재단 감사(監査)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을 올 10월 실버하우스가 개관하면 유감없이 발휘할 태세다.

서울 관문사 신도회장 이금복씨



이씨는 알고 보니 공무원 출신이었다. 40년 동안 청와대 민정팀과 감사원에서 일한 그는 2000년 공직 은퇴와 동시에 천태종 복지재단 감사로 위촉됐다. 공직에 있던 시절부터 그는 사람 돕는 일을 유독 좋아했다. 특히 민정팀에서 일할 때는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세월을 보냈다. 1984년부터 5년간 민정팀에서 '일일일선(一日一善)'을 몸소 실천 하고자 서원했던 그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주고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무료로 치료받게 해주고. 이씨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그런데 감사원에 있을 땐 '이 일이 남을 즐겁게 하는 직업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늘 부정을 찾고 지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나라에서 녹을 받고 살았으니 사회에 환원해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공직 은퇴 후 복지와 인연 맺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도

은퇴는 이씨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을 해냈다. 복지재단에서의 첫걸음은 이씨 자신의 주특기(?)인 회계 · 재정분야. 그의 노력 덕에 천태종 복지재단은 회계 · 재정체계를 확립했다.

그렇게 복지와 인연을 맺은 그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사를 취득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천태 자비손'을 조직해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고 '몽골에 헌옷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갖춰나갔다.

그는 요즘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노인 수발을 위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워두기 위해서다. 경기대에서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종이나라에서는 종이접기와 클레이아트(찰흙미술)를 각각 배우고 있다. 여기다 관문사 신도회장까지 맡고 있는 그는 큰 절 살림 챙기랴, 사회복지 공부하랴 정신이 없지만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 말한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두는 게 좋지요. 이렇게 배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앞으로 이씨는 실버하우스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은 것일까. 그는 "사람들이 흔히 노인문제에 대해 빈곤이나 질병만 생각하는데, 사실 '고독'이 가장 큰 문제"라 잘라 말한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넴으로서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노인복지다.

이씨의 복지 가치관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 특히 불교복지에 대한 포부가 아주 크다. 그는 '배려와 나눔'이 있는 세상을 꿈꾼다. 과다 경쟁사회 속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걸림 없는 복지 말이다.

"불교는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자비는 대상이 없습니다. 상대가 없으니 조건도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상 속에서 꽃피우는 복지행이 널리 퍼져 우리 자신의 행동이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저자거리 포교원 개원 3주년기념 운산큰스님 초청법회

저자거리포교원을 표방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상가 2층에 2개의 교회와 나란히 지역사회 교화활동과 "**불교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를 해 온 열린선원이 어느덧 세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9기까지의 3개월 과정 열린불교아카데미, 무료합동 천도재,거리포교,한글법요집 발간,부루나의 노래 출간,명절 차례 제대로 지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자 다음과 같이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를 봉행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 **열린선원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날 짜** : **6월 6일 (금,현충일) 오후 2시** ◆**장 소** : 열린선원 큰법당
◆**내 용** : 제1부 | 운산 큰스님 초청법회
제2부 | 축하 공연(강형진 – 바이올린, 한계명 – 판소리, 권혜준 – 소프라노, 한인석 – 대금산조, 문소희 – 어린이, 한재경–클라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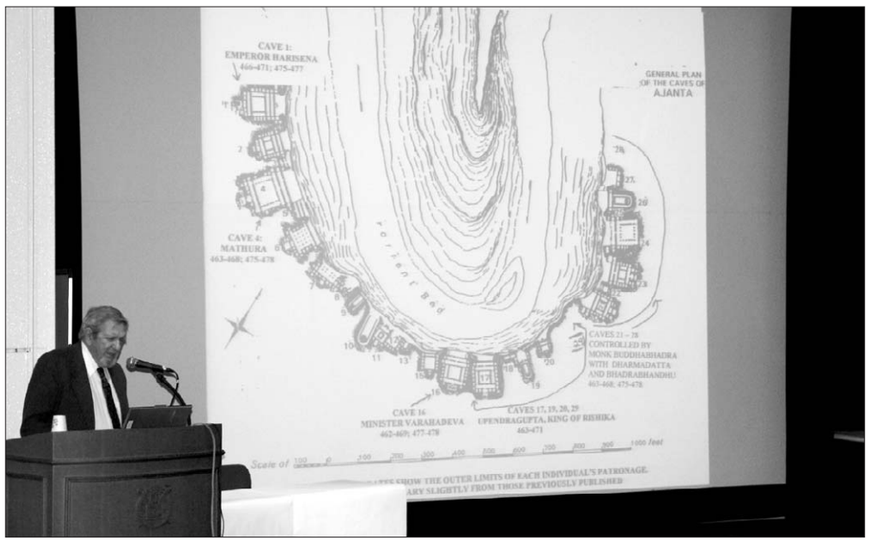
◆**문 의** : 열린선원 02)386-4720, 386-4755
은평구 갈현동 467-1 (지하철 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역촌중앙시장 건물 2층)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화환보내실 성의는 아래 계좌로 성금으로 보내시면 모아서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위로성금으로 보내겠습니다. **국민은행 429501-01-266034(열린선원)**
◆청신녀 여안 김옥희보살 상사에 보여주신 깊은 사랑 감사드리며 49재는 오전에 한글의식과 음악법회로 봉행합니다.

· 연지회(매주 토요일 오후)
· 전가족초청법회(첫 일요일 오전)
· 중앙대동문가족법회(셋째 일요일 오전)
· 제10기열린불교아카데미(7월 5일 개강)
· 명절차례시연(9월 7일 킨텍스)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법현

세계 학자들, 老 연구자 위해 학회 열다

인도미술사 전문가 美 스핑크 교수 팔순 헌정 국제학술회의



5월 24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에서 월터 스핑크 교수가 아잔타 석굴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아잔타 석굴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한 연구자의 팔순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5월 24일 서울대 박물관에서는 아잔타 등 인도미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월터 스핑크 명예교수(美 미시간대 · 80)에게 헌정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문화연구소(소장 이주형)와 청추예술사학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에는 한 · 중 · 일 미술사학자 100여명이 함께 했다.

팔순 등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는 한국에서는 흔하나 서구권에서는 드물다. 또 한국 · 미국 · 중국 등 세계의 학자들이 특정 연구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희유하기까지 하다.

학술회의는 스핑크 교수의 '아잔타 석굴의 연구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스핑크 교수는 원고 없이 슬라이드를 보며 인도건축 구조와 아잔타 석굴의 아름다움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아잔타 석굴은 200여년전 한 영국군 병사에게 발견됐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150년까지 서부인도 전역에서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에 조성된 석굴은 그 후 300년 동안 불교의 쇠락과 함께 잊혀졌었다. 462년 아잔타에서는 바카타카 왕조의 하리세나 왕 후원아래 괄목할 불교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초기의 석굴이 지역공동체가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었다면, 바타카타 시기의 석굴은 궁정 후원자들을 위해 지어졌다.

478년 바타카타 왕조의 하락으로 후원이 줄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승려와 신도들은 장인들에게 불상을 조각하고 불화를 그리게 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복덕을 얻고자 했다. 급기야 480년대 지원이 끊긴 아잔타는 오랜 침묵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월터 스핑크 교수의 기조강연 및 <아잔타: 덧없는 역사와 도표>(Ajanta: A Brief History and Guide)에서 발췌.

피아 브랑카쵸 교수(美 드렉슬대)는 '데칸고원 초기 석굴의 재조명'을 발표했다. 브랑카쵸 교수는 석굴사원을 지방주의(regionalism)과 의고주의(archaism)에 입각해 지리적 영역에 따른 발달양상을 비교했다.

아르빈드 잠케드카르 명예교수(印 뭄바이 소마야센터)는 '바카타카 시대의 잘 알려지지 않은 5~6세기 석굴'을 통해 인도 석굴의 종교양상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여줬다.

야구치 나오미치 교수(日 가나자와대)는 '아잔타 석굴 서쪽 그룹 전정 측실의 구조 변천'을, 리 총펑 교수(中 북경대)는 '인도석굴의 중국화'를 발표했다. 리 교수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비하라(vihara)로 불리며 승려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레나(lena)와 산스크리트어로 차이티야그르하(chaitiyagriha)로 불린 탑묘굴, 산스크리트어로 만다파(mandapa)로 불린 방형굴, 물을 저장했을 작은 지하연못인 (podhi)로 나눈 뒤 중국화된 과정을 소개했다.

드니즈 라이디(美 메트폴리턴 박물관 큐레이터)는 '5세기 후반의 정광불, 운광석굴, 그리고 불교도상'을 통해 메트로폴리턴 박물관에 소장된 불상을 시작으로 수인 등 불상의 특징을 정리했다.

한편 김선경씨(美 남캘리포니아대 강사)는 '영천사 탑림 연구시론'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삼계교(三階敎)의 대주성굴과 묘탑부조를 통해 중국 상장례 풍속을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스핑크 교수는 아잔타의 편년(編年)과 구조적인 특성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다. 이주형 교수(서울대)는 "스핑크 교수는 수업 없는 계절이면 항시 아잔타에 머물렀을 정도로 세속적 관심 없이 아잔타에만 몰두했다"고 말한다. 스핑크 교수는 1960년대부터 아잔타 퍼즐 맞추기(스핑크 교수의 표현에 따름)에 매진하며 61편의 논문 등을 남겼다. 현재 아잔타에 관한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6권 규모의 <Ajanta>를 4권까지 발간했다.

불교통해 인지치료 가능

김성철 교수,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서 발표



"번뇌 망상의 제거를 통해 '인지장애'를 치유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번뇌 · 망상 제거로 인지치료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김성철 교수(동국대)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연기론의 인지치료적 활용'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인지치료는 '인지나 생각의 패턴'이 부적응적인 '행위와 감성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추정하는 심리사회적 치료로, 1960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벡 등에 의해 창안된 것. 김 교수는 "불전에도 '인지의 전환'을 통해 '정서의 문제'를 치료한 예가 있다"며 난다(Nanda)와 고따미(Gotami) 여인의 예화를 소개했다. 그는 "두 가지 예화 모두 연기(緣起)를 설한다"며 심리치료와 함께 깨달음을 지향할 수행법으로 연기론에 바탕한 인지치료 기법을 소개했다.

김성철 교수는 "속가 부인 순다리에 대한 음욕 때문에 환속하려는 난다를 부처님은 애꾸눈 원숭이와 비교해 순다리의 아름다움을 확인케 했다. 다시 천녀들을 통해 순다리가 추하게 보이게 했다. 난다가 천녀들과 살고 싶어 정진 했지만 다시 부처님이 보여준 무간지옥을 보고 발심해 아라한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열치열의 유전연기(流轉緣起)로 정리했다.

김 교수는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고따미 여인에게 부처님은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 오라고 했다. 고따미는 겨자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병상련의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며 고따미 여인 이야기를 동병상련의 환멸연기(還滅緣起)"로 정리했다.

김성철 교수는 예화의 연기구조를 아론 벡 박사의 인지치료 사례에 적용하며, "절대긍정과 절대부정의 조망을 발견해 고착에서 벗어날 때 고통(과거의 인습적 인지체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철 교수의 논문은 불교의 핵심키워드인 '연기'를 심리치료에 적용해 불교심리치료학의 가능성과 포교의 비전을 보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조동섭 기자

"한국선 전래는 법랑과 신행"

김호귀 교수, 한국선학회서 주장



"한국에 선법이 전래된 기원은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가 아니며 법랑과 신행 두 스님이다. 그들이 전한 선법도 남종계가 아닌 북종계"라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김호귀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5월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초기 한국선법의 전래와 그 성격'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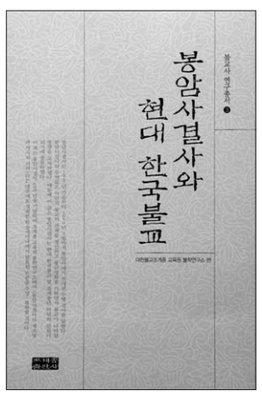
한국선 전래에 법랑과 신행이 언급된 예가 처음은 아니지만 김 교수의 연구는 오늘날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에 편중된 한국선법 전래의 오류를 지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운월 스님(동국대 사회교육원)이 '중국 초기 선종의 사상과 수행'을, 강향숙씨(동국대 박사과정 수료)가 '헤바즈라 탄드라의 관정에 관한 고찰'을,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선각국사 도선 종풍의 계승과 전개'를 발표했다.

발표 후 정기총회에서는 김영두 교수(원광대)가 제5대 한국선학회 회장에 추대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봉암사 결사' 학술서 발간



1947년 50여명의 승려가 모여 왜색불교 청산과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시작했던 봉암사 결사에 대한 조계종단 최초의 연구성과물이 책으로 출간돼 화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발간한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불교>는 2007년 10월 18일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기념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봉암사 결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봉암사 결사에 대한 역사적 정리를 시도한 것을 비롯해, 혜정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목정배 교수(前 동국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서재영 연구원(조계종 불학연구소) 등이 봉암사 결사의 의례적 조명과 윤리 · 철학적 분석, 주장자던 성철 · 청담 · 자운 스님에 대한 연구를 정리했다.

한편 봉암사결사에 대한 유일한 증언으로 1995년 해인사 승가대의 <수다라>에 게재됐던 성철 스님의 법문과 봉암사결사 참고문헌을 담아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청송 대전사 보광전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는 5월 27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2호 경북 청송군 대전사 보광전의 보물 지정 예고를 발표했다.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 의상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보광전은 1976년 중수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1672년 건축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조선 현종 13년(1672)에 중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사 보광전의 구조는 화강석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약간 흘림이 있는 원주를 세워 구성했고, 내부 구조는 우물천장 형식으로 앞뒤에 층단을 두고, 양측면에는 빗천장을 설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전사 보광전은 건축연대가 명확한 조선중기 다포양식의 목조건물로서 공포양식 등에 있어서 중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회화성이 뛰어난 내부단청과 벽화를 비롯해 조선중기 불교미술의 중요한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현장스님과 함께
천상의 나라 히말라야(네팔)로 가자
7월 31일 ~ 8월 8일(7박 8일)
₩1,750,000
(계약금 20만원)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호텔(2인 1실), 차량,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한국어 가이드, 식사(조·중·석)
• 한국출발 공항세 및 출국세, 전쟁보험료, 네팔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 VISA FEE,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팁 포함, 광주/인천 리무진 버스(왕복)
• 룸비니 – 부처님 탄생지 · 석가사
• 치트원 국립공원 – 야생동물의 보고
• 사랑코트 – 히말라야를 아름답게 볼수 있는 곳
• 네팔의 문화유적
더르바르 광장 · 숴염부나트 · 머하데브 동굴
파탄왕국 · 벅터푸르 · 보우터나트
• 인천공항출발 카투만두행직항(대한항공)
주최_ 호남불교문화원, 티벳박물관 주관_ 불교전문기획 카일라스
후원_ BBS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문의_ 062)384-3009 Fax.062)522-5002
※참가접수마감은 6월 30일(금)까지입니다.

대승기신론 강좌 안내
출가스님들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에서
대승기신론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 주 : 은혜사 승가대 학장 지안 큰 스님 ■장 소 : 서울 옥수동 미타사내 대승암
■개 강 : 2008년 6월 17일(화요일 오후 3시)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수 강 료 : 6개월 30만원(교재 무료제공) ■수강신청 : 6월 10일 까지(입금후 전화요망)
경전연구회 창립 목적
■불조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법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대덕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다.
■조계종 산하 불교대학의 교수사를 양성 전종도의 교육.조직.체계화에 기여한다.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고 포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
■계좌번호 : 우체국 102608-01-001671(예금주:경전연구회)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지장 스님)
총무 010-7963-7070(법정 스님)
재무 016-9669-3917(정담 스님)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

서구인을 매혹한 신비로운 불교문화

해외불교칼럼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알려지면서 함께 전해진 불교문화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구성 또한 다채롭다.

시, 소설, 드라마 등 문학 분야, 불화 등 각종 동양식 모필 서화, 그리고 조형 및 조소, 실용디자인 등 미술 분야, 또한 분재와 꽃꽂이, 축소판 정원 등 실내조경 분야, 궁도, 검도 등 무도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는 서구사회 곳곳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만다라로 피어난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음식문화는 서구인들에게 올바른 섭생과 불살생의 계율을 동시에 일깨워 준다.

즉, 채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육식 위주의 불균형적 식단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바 크다. 특히 선불교와 더불어 소개된 차 문화는 경직된 심신과 지친 영혼을 함께 추스른다는 과학적 입증에 편승하여 서구사회 전역에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차 문화와 선시 등 불교문학을 한데 엮은 '차이사라이' 등 국제동아리도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시와 술이 함께 어우르는 중국의 몽환적인 시주문화(詩酒文化)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등 지역마다 독특한 차 문화가 있겠으나, 다음의 글은 어느 미국 불자의 파란 눈에 비친 일본다도(日本茶道)의 모습이다.(이하 인용)

차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천연수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음료다. 특히 선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차는 긴 세월 동안 다도(茶道)를 통해 단아한 인성교육과 정갈한 종교적 상징성을 이어온다.

나는 일본다도에서 중요시하는 정교한 절차에 대해 큰 존경심은 지니고 있으나 그들이 기대하는 만치 세밀한 설명을 할 순 없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일본다도를 축약하여 표현한바, 화경청적(和敬淸寂)이란 네 개의 한자에 대한 내 나름의 뜻풀이를 하고자 한다. 이는 어우름, 섬김, 맑음, 호젓함을 뜻한다.

이를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열린 마음을 가꾸고, 서로 받들어 섬기며, 또한 밝고 어진 마음을 지니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가짐을 늘 지켜가는 걸 의미한다.

먼저 첫 글자인 화(和)는 불교의 주요 가르침이자 불교철학의 바탕인 상생연기, 즉 '더불어 존재하며 함께 어우름'을 내게 새삼 일깨운다. 차의 싹을 트게 하고 자라도록 해준 해와 비, 그리고 찻잎을 일일이 가꾸고 거두어 준 고마운 사람들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차를 즐길 수 없다.

또 기름진 흙이 없을 진데 차나무가 뿌리를 내릴 터도 없으며, 맑은 물이 없다면 따끈하게 끓여져 찻잎을 우려낼 방도도 없다. 이처럼 수많은 인(因)과 연(緣)이 얽히고 설키고서야 비로소 한 잔의 차가 내 앞에 놓여진다. 그 다음 내가 해석하는 바로, 경(敬)이란 찻잎을 키우는 차나무의 본질과 영양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경건한 감사의 자세를 뜻한다.

앞서 말한 해와 땅과 비와 사람 등 모든 고귀한 인연들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청(淸)은 내게 맑은 물을 떠올리는 바, 정갈한 물은 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순수 천연의 화학물질들이 우러나게 한다. 한 모금을 들이킬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고이 씻어주는 차는 우리의 넋을 정갈하게 해주는 다르마의 이슬이며 모진 갈애(渴愛)를 달래고 추스르는 감로수다. 마지막으로 적(寂)은 고요함이니, 그 가운데 음미하는 차와 찻잔의 따스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더없는 안온함을 안겨준다.

나 홀로 고즈넉이 들이키는 차 한 잔에 스며드는 고매한 적막감은 참선을 통해 이르는 지고지순의 선경과 다를 바 없다. 엄격한 참선을 여법하게 수행한 다음에 마시는 차 한 잔은 격조 높은 자기정리의 방편이기도 하다. 언젠가 존경하는 선사님께서 내리신 차 한 잔에 화답한 내 시의 첫 구절이다.

푸르른 봄날
따스한 차 한 잔
니르바나의 향기여

출처 : BB(제임스 우어) 편역 : 성휴 스님

"부처님 가르침은 국제 평화의 초석"

반기문 총장, 웨삭 축하 메시지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5월18일 웨삭(佛誕) 축하 메시지를 발표,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이 현재 당면한 국제적인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모든 중생에 평화와 안전을 주는 거대한 받힘돌이 될 것이라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껴안도록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디 하나임을 일깨우고 이웃을 돌보며 인간애를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적 이익을 뛰어넘어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깨우침을 향하는 길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틀이 됩니다."

특히 그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최근 발생한 미얀마의 사이클론과 중국의 지진 등 엄청난 대재앙으로 인해 가정과 생업을 상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관심과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출처: Sunday Times, BCTV

러샨석불 中지진 피해 없어

신화사통신은 5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1200년 전 건립된 세계 최대의 종교적 조형물인 스촨 성의 러산석불이 58년 만에 중국을 강타한 대지진에도 무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높이 71m인 동 석불의 관리책임자는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근접관람은 제한한다고 말했다. 5월 12일 발생하여 약 5만 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동 석불의 소재지인 러샨 일대에는 현재까지도 여진이 감지되고 있다.

불가사의한 자연현상과 판다의 서식지로 유명한 스촨성은 중국의 7대 관광지 중 하나로 지난해는 174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기록했으며 2000년 개봉해 아카데미 외국어부문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와호장룡(臥虎藏龍)'의 촬영현장이기도 하다.

출처 : 新華社, China Daily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You are still carrying her.

사제는 아직도 그녀를 껴안고 있구려.



A heavy rain made muddy puddles here and there on the road. At one place a beautiful young woman was standing unable to walk across the muddy puddle. The elder of the two vagabond friars lifted her in his arms on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Later at night, the younger friar whispered to the elder, "Brother, as friar, we cannot touch a woman?" The elder answered "No, brother." Then the younger asks again, "Then how is that you lifted that woman on the road?" The elder smiled at him," I left her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but you are still carrying her."

비가 많이 내려 길에 여기저기 진흙웅덩이가 패었다. 거기 어디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웅덩이를 못 건너고 서있었다. 두 방랑 탁발승 가운데 사형이 그녀를 성큼 두 팔에 안아 건너편으로 옮겨줬다. 그날 늦은 밤 사제가 낮게 말했다. "사형, 우린 탁발수행자이니 여인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지요." 그러자 사제가 다시 물었다. "하면 사형은 어찌 아까 그녀를 안아서 옮겨준 것이오?" 사형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를 그 길에 이미 내려놨소. 헌데 사제는 아직도 그녀를 껴안고 있구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❷

정신외상 경험 후 불교 귀의

단란한 가정서 유복한 유년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심한 충격 받아

가톨릭, 유태교, 개신교 등의 환경에서 성장하나 어느 종교에도 무관심하던 올리버 스톤 도반이 불연을 맺도록 연등을 밝혀준 리리는 베트남 출신의 보살이다.

프랑스 식민지 통치에 찢기고 다시 미국의 개입으로 만신창이가 된 베트남에는 전쟁의 상처보다 가혹한 개인적 비극의 숱한 흐느낌이 곳곳에 숨어있다. 베트남전쟁의 참전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기로 작심할 즈음 그는 이미 불성이 가득해 있다.

'플래툰' '7월4일 생'과 더불어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그가 제작한 영화 세 편 중 '하늘과 땅'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 통치하 베트남의 농촌에서 태어난 리리는 순박하고 우직한 농사꾼 부부의 여섯 째 딸이다.

프랑스인들의 핍박을 받던 그들은 1963년 베트콩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전쟁의 참화에 말려들고 그녀의 오빠와 남동생은 베트콩에 징발된다. 그리고 곧이어 진입한 정부군은 그녀를 베트콩의 스파이라며 끌고 가서 가혹한 고문을 한다.

그러나 베트콩은 간신히 풀려나온 그녀를 되레 정부군의 첩자로 의심하여 처형하려 한다. 강간과 고문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고향을 떠나 사이공으로 간다. 거기서 어느 부잣집의 하녀로 들어간 그녀는 그 집 주인에게 처음으로 애정을 느끼지만 임신한 사실이 들통 나서 내쫓긴다.

다시금 다낭으로 옮겨간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온갖 밥벌이를 다하며 모진 목숨을 이어가다 아들을 낳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는 죽고 만다. 다낭에서 얼마간 자리를 잡게 된 그녀는 스티브라는 미 해군 하사관의 다정함에 이끌려 결혼에 이른다. 그의 파월근무가 끝나고 그녀는 꿈에도 그리던 미국으로 함께 간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도 잠시뿐, 그녀와 이국인 남편 스티브 사이에는 몰이해와 불화가 끝없이 이어진다. 일단 전쟁의 광기에 도취되어 버린 스티브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전쟁터로 되돌아가려 한다. 한편, 금전만능의 현실을 실감한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스티브는 그런 그녀를 경멸한다.

마침내 이혼 직전에 이른 그녀는 한 스님을 찾아가 업보, 그리고 자비와 용서에 대해 큰 깨우침을 얻는다. 그녀는 증오를 극복하고 그를 받아들이려 하나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전쟁이 끝나고 어언 13년이 흐른다. 공산주의국가가 된 베트남을 찾은 그녀는 사이공에서 옛 인연들과 서글픈 재회를 한다. 첫아이의 아버지이자 첫사랑이던 옛 주인은 누추한 몰골의 막벌이 노동자가 되어 있다.

정직한 풍요로움이 가득하던 고향 마을은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참한 모습의 어머니, 언니, 오빠가 여태 남아 살고 있다. 꽤 잘사는 미국시민이 되어 다시 찾은 고향은 그녀에게 너무도 낯선 타향 일뿐이다. 이젠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그녀는 하늘과 땅, 허(虛)와 무(無) 사이 그 어디에 홀로 서성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대강의 줄거리다.

그런데 자전소설의 주인공인 리리 보살과 이를 영화화한 올리버 스톤 도반은 서로 성장배경이 전혀 다른 데도 희미한 공통점이 더러 있어 보인다. 절대적인 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사람 모두 대체로 단란한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낸다. 그러다가 본인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엄청난 정신외상을 경험한다. 올리버 스톤의 경우, 부모가 주로 사교계 활동에 몰입하는 편이어서 교양 수준이 높은 보모들의 손에 키워진다. 타고난 신동이던 그는 다섯 살 때 이미 인형극 형태의 촌극을 써서 사촌들에게 배역을 나눠주기도 한다.

그리고 일곱 살 때는 아버지로부터 글 한편을 쓰면 25센트씩 용돈을 받고, 아홉 살 때는 자신의 가족과 일상생활에 관해 무려 900쪽에 이르는 책을 써낸다.

그 후 그는 뉴욕 맨해튼의 명문 중 하나인 트리니티학교를 다니다 펜실베니아 포츠타운의 힐 예비학교로 옮겨간다. 여름방학은 주로 프랑스에 있는 외갓집에서 보낼 만치 호사를 하던 그는 열다섯 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자 큰 충격을 받는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의 부인은 물론 아내의 친구들과도 스캔들을 일으켜 부부는 이미 별거 상태나 다름없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이른 그는 학비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외인부대 용병이 되어 아프리카로 떠나려 한다.

성휴 스님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 성장 카이로프락틱 개강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 입니다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 · 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6월 7일 (선착순 20명)

●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혈액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촉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촉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측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기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개방과 정비… "종가집이 달라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에 부는 변화의 바람

1년에 단 3번만 공개되던 '불보' 사리탑을 이제는 누구나 가까이서 볼 수 있다. 5만여 평 규모로 조성된 연꽃단지와 매실, 차밭에는 두루미가 돌아왔다. '출입금지' 팻말 대신 '삼가해주세요'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출입을 제한하던 철망은 모두 사라졌다. 신라 선덕여왕 15년(646) 자장 율사가 창건한 이래 불지종가의 명맥을 이어왔던 양산 통도사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다

2007년 5월 주지로 임명된 정우 스님은 1년 중 단 3일만 일반에 공개되던 금강계단 '사리탑'을 완전 개방했다. 이곳에 불전함을 놓아 모인 약 3억여 원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에 틈틈이 후원금도 전달했다. 또 작년 북한 홍수와 올 초 미얀마 태풍,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 등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으로 사리탑 불전함의 보시금이 보내졌다.

주지실을 비롯한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 등 경내 곳곳에 부착된 '출입금지' 팻말을 모두 '삼가해주세요'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 달았다. 위압적이던 쇠사슬과 자물쇠 경계 역시 정겨운 나무문으로 바꿨다.

템플스테이 수련관도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명상센터와 휴게실 등이 새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환경 정비후 두루미 등 돌아와

통도사 내부에서의 변화가 다가 아니다. 통도사는 영축산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심어졌던 외래종 나무들은 육림 차원에서 정비했다. 사찰과 어울리지 않거나 조형적으로 눈에 선 나무들을 제거하고 오래된 소나무가 돋보이도록 주변 잡목은 베어냈다. 이 재목은 근무자들이 쉬어가는 초소를 짓는데 활용했다.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 한국의 나무들을 곳곳에 심었다.

절 뒷자락 습지에 5만여 평의 연꽃단지와 매실, 차밭을 조성했다. 도로변엔 진달래, 철쭉, 코스모스 등 야생화를 심어, 절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볼거리 많은 절이 되도록 했다.

통도사는 "잘 보존해놓으니 떠났던 두루미며 꿩, 원앙, 오리들이 다시 찾아왔다"며 계속해서 절 입구 일주문에서 사찰을 지나 영축산 중턱에 이르는 산책로를 따라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도사는 말사 주지 임명에 유래 없던 획기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통도사 각 말사 주지 후보들에게 앞으로 사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주지 선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완전 개방된 금강계단을 돌며 기도하는 불자들.

자장 율사의 염원을 담아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1984년 연 우리나라 5대 총림 중 하나로 문을 연 영축총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각별하다.

불보사찰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우리나라 불교의 계맥을 이어가는 곳이다. 통도사는 "현재 국내 사찰 중 금강계단이 형성된 곳은 백제시대의 김제 금산사와 신라의 통도사 단 2곳"이라며 "삼국통일 후 통일신라에서 금강계단의 제 역할을 한 곳은 사실상 통도사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래와 전통이 확고한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 통도사는 구하 스님의 친일 행적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도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적편찬도 진행중이다.

산중에서 도심으로, 신비로운 천년고찰에서 마음 편히 쉬어가는 쉼터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통도사의 신선한 변화는 오늘도 쉼 없이 계속된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인터뷰 | 통도사 주지 취임 1주년 맞은 정우 스님

"경계없애고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 만들 것"



"저는 주지하려고 통도사에 온 게 아니에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출가해 열심히 수행하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통도사의 발전과 미래에 회향 해야지요."

통도사에 부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에 주지 정우 스님이 있다.

"종교는 사회의 윤활유나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통도사는 산중에 있지만 도심과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 사찰과 지역사회, 승려와 일반 대중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들만의 공간처럼 어렵고 생소했던 통도사 도량의 경계를 차례로 허물어냈다. "금강계단을 개방하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내방객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이모든 게 경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정우 스님은 "물리적인 경계를 시작으로 사부대중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친절한 어울림을 행하면 마음의 경계도 허물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우 스님은 "법회를 통해 절을 찾는 신도는 부처님께, 관광객들에게는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닮아갈 때 비로소 심성도 고와지고 삶의 여유와 활력도 갖게 된다"고 신도와 일반인에게 모두 열린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승려가 대중에게 있어 존경받고 가르침을 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스님은 "승려의 행동은 곧 자비행이고 보살행이어야 한다"며 대중을 위한 사찰을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정우 스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조계종 각 교구본사에서도 주지스님들이 매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 스님의 남은 3년 임기동안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룡 부산지사장

총지종 정각사, 양계 만다라 봉안 대법회

티베트 현지 밀교 스님들이 직접 제작



부산 정각사(주교 법공)는 5월 26일 법당에서 양계 만다라 봉안 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만다라는 불보살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밀교 특유의 불화로 삼라만상의 본질과 깨달음, 불보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번에 봉안된 만다라는 밀교 경전 중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근거한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로 각각 이뤄졌다. 가로 2.8m, 세로 3.2m 규모로 티베트 현지의 밀교 스님들이 직접 제작, 조성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경남교구장 대원정사를 비롯해 정각사 주교 법공 정사,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제4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매년 지도자 교육·양성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전국의 어린이포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제4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는 매년 신임 있는 지도자 교육과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는 6월 6일부터 2박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약 500여명의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는 당일 7만원, 사전 접수 시 6만5000원, 제주도와 울릉도 3만5000원 등으로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다. (051)864-4665

박지원 기자

혜원정사 소년소녀가장돕기 음악회

불교와 예술의 만남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와 사회복지법인이 5월 31일 혜원정사에서 혜원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소년소녀가장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약 10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5000여 만 원을 후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 음악회는 개그맨 염경환, 이희구(BBS '활력충전' 진행자)의 사회로 남해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과 혜원정사 대학생회 댄스팀, 가수 송대관, 추가열, 임수정, 강진 등의 무대로 꾸며졌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 · 구독 문의(051)632-4440

기사 넘쳐 '부루나 존자'는 쉽니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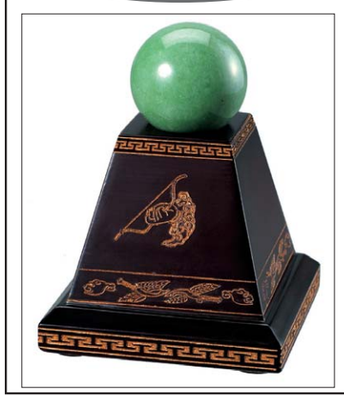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전북파라미타 청소년 모악축제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 김제 금산사서



전북 청소년들의 한마당인 '제12회 청소년 모악축제(사진)'가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서 5월 24일 열렸다.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행)가 주최하고 파라미타청소년지도교사협의회(회장 박상석)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북 지역 중·고등학교 지도교사와 파라미타 회원 800여명이 참가해 문예부문(운문·산문)과, 사생부문(한국화·서양화), 음악페스티벌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음악페스티벌에서는 사물놀이, 국악, 단체댄스, 마술 등 파라미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개인기들이 펼쳐졌다.

금산사 총무 원혜 스님은 "모악산 금산사는 교육 교화,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대중불교, 지성불교, 희망과 용기, 원력이 용솟음치는 청소년 불교를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여와 수행의 기회를 마련해 왔다"며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낭만과 호연지기를 한껏 키우고 자신이 가진 솜씨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오래 오래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문부 대상은 송현숙(서전주중), 김보한(전라고), 산문부 대상은 김동희(진안여중), 손은별(금산고), 사생부 대상은 오지원(진안여중), 최혜한(덕암정보고), 음악페스티벌 대상은 익산 남성여중 댄스팀이 차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호남 불교계 광주불교교육원서 기자회견



5월 26일 광주불교계는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미국산 소고기수입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에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불교계도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한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 불교계는 5월 26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와 광주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호남불교문화원 등이 참여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주불교도 모임'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이명박 정부는 겸허하게 민의를 받아들이라 ▲잘못된 협상과 정부 고시를 당장 철회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불교·원불교·개신교·가톨릭·천도교 등 5대 종교계로 구성된 전북종교인협의회도 5월 28일 전북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쇠고기 수입 개방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종교인들은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하고, 우리 성직자들은 민심이 천심임을 믿는다. 국민의 행복과 희망이 되살려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할 것"이라며 말했다.

정인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이 보살행이다. 지금은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불교도들이 보살행을 실천할 때"라며 "민심과 이반된 정부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불교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해 시국토론회 및 촛불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 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김재기** 사무국장

"청소년 포교 없이 한국불교 미래 없어"



"개신교가 드센 전남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포교활동이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불자들(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는 제게 큰 화두입니다."

순천에는 "전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종삼, 이하 전남파라미타)의 김재기 국장을 모르면 불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재기 국장의 불교활동은 유명하다.

김 국장의 불교관련 이력에는 그가 얼마나 불교에 쏟은 정열과 애정이 엿보인다. 순천 고등부 불교학생회 회장을 시작으로 대불련 순천지부장, 대불청 순천지부, 월간 대원, 군종병, 순천불자연합회 기획단장, 도서출판 칠엽굴 대표, (사)전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국장 등 순천지역 불교계의 정규코스(?)를 밟은 사람 중 하나다.

청소년 포교는 포교사들 사이에선 "포교의 시작이자 끝"이라 불린다. 김재기 국장이 전남파라미타 발족과 함께 청소년 포교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의 이력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전남파라미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번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부가 됐다. 산하에는 순천지회와 나주지회가 있고 순천과 나주, 여수지역 학교와 사찰학생회 9곳을 분회로 두고 있다. 초등 350명, 중등 150명, 고등 100여명 등 600여명 회원을 둔 전남파라미타는 회장인 종삼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원광 스님(나주 심향사 주지), 사무총장 대요 스님(화엄사 포교국장), 김재기 사무국장과 박병열 간사가 임원진을 구성한다.

김재기 국장은 "놀토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부모와 함께하는 지역문화재 애호활동과 비불자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한다. 김 국장은 "특히 청소년들이 불교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독서토론, 종이접기, 다도교실, 요리교실, 영어교실 등을 열고 싶다"며 전남 지역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청소년 포교뿐 아니라 신행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는 매월 첫째 주말이면 쌍계사 국사암에서 철야 정진 수행을 한다.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는 불교관련 카페 5곳의 카페지기로 인터넷 참선법회를 열며 사이버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부는 닮는다고 부인 정미숙씨도 순천 금당절 어린이법회 교사로 활동 중이다.

김재기 국장의 불교수행자적인 생활은 그의 사업체에도 이어졌다. 현재 (주)두진건설 대표인 그는 사업체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의 일부를 불교청소년들에게 환원한다.

"자갈밭인 전남 불교가 기름진 옥토가 되도록 노력하는 청소년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김재기 국장은 "어린이·청소년 포교 없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교시절부터 불교에 대한 열정 보여
인터넷 불교관련 카페서 사이버 포교도

"불교의 미래 이끌 동량 키우렵니다"

전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교사협의회 박상석 회장



"우리 지역이 비록 교세는 약하지만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은 전국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1996년 창립 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전북파라미타 7개 지회와 120개 학교에서 모두 140명의 지도교사와 1400명의 학생회원을 이끌고 있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친다.

박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고운 심성을 길러주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지도교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 모악 축제'는 어느새 12번째를 맞았다. 1997년 작은 백일장으로 시작된 행사는 지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표축제가 됐다.

전북파라미타는 지도교사들을 위해 자기계발과 신심고취를 할 수 있도록 년 2회의 수련회와 산사체험·해외 문화답사도 추진중이다.

박상석 회장은 "교세가 취약한 지역특성상 타종교로부터 불자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타종교의 막무가내식 선교활동으로 불자청소년들이 타종교로 이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모악축제'의 뒷정리를 위해 자리를 떠나는 박 회장의 걱정은 단지 전북지역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절 불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원 실상사, 사찰불사 관련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절 불사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리산 실상사(주지 재연)는 5월 24일 남원시 산내면 복지관에서 '우리나라 절 불사의 성찰과 방향모색2'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8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세미나는 도법 스님(생명평화결사 순례단장)의 '사부공동체로서의 가람' 발표로 시작됐다.

도법 스님은 1200년전 흥척 스님은 "행복한 삶과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꿈을 이뤄주고자 실상사를 창건했을 것"이라며 "불교계를 비롯한 현대사회는 무위자연의 존재, 나와 이웃, 상대의 존재의미를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교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과 시대정신의 문제의식을 놓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불사와 조경'을 발표한 홍광표 교수(동국대)는 "유형, 무형의 불교문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라고 전제한 뒤 "확실한 조사 후 복원불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선기, 김재은 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과 함께 '생태계와 문화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 절 불사'을 발표한 조경만 교수(목포대)는 "삼라만상의 변화무쌍한 존재들이 가진 상대적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 상대적인 것들이 조화롭게 연망을 이뤄 창발의 세계가 구현되길 바란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불사와 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주 안국사 '태권도와 함께하는 …'

무주 안국사(주지 도안)는 6월 7~8일, 14~15일 2차례에 걸쳐 태권도 수련과 함께하는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12회 반딧불 축제의 하나로 안국사와 무주군이 함께 마련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잊혀진 전통문화의 향훈과 자연과 하나된 마음을 통해 본래 내 모습을 찾고자 마련됐다.

도안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무도인 태권도를 접목했다. 태권도 종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과 애향심을 배양해 풍요로운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 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5199

화중생연 육신등공 소신열반 제10주년

충담대선사 추모 영산대재

서울 승가사 (한국불교태고종 창종등록 제1호 사찰) 이전 기공식


충담대선사 소신공양 장면

雲遊虎鳴山 甘露老納子
운유호명산 감로노납자
奉獻三寶前 本願燒身供
봉헌삼보전 본원소신공
報佛慈悲恩 以因緣功德
보불자비은 이인연공덕
國泰民安面 佛法重興隆
국태민안면 불법중흥륭
若問如何是 皆應無所住
약문여하시 개응무소주

- 충담대선사 열반송 -

귀의삼보하옵고,

태고종 승정 충담대선사께서 화중생연하시고 육신등공으로 소신열반에 드신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대선사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무인년 윤 5월 4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산 감로사 미륵대불 아래에서 홀로 시방의 불보살님께 예경한 뒤 나뭇단과 섶을 쌓고 그 위에 가부좌한 채 십이광불을 염송하시며 삼매의 불을 일으켜 경전 속에서만 전하여지던 미증유의 소신공양을 평소의 서원대로 감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선사께서 소신공양을 올리시면서 원으로 세우셨던 중생의 고통치유와 불교계의 화합,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사의 문도를 비롯한 후학들은 그 유지를 받들어 대선사께서 세우셨던 소신공양의 원력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뜻과 의지를 다지고자 소신열반 10주년을 맞이하여 추모영산재를 봉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대선사께서 67년 전 광복의 염원으로 창건한 왕십리 승가사가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호명산 감로사로 이전하는 기공식도 함께 봉행코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52년 6월 7일(음.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4 호명산 감로사

※ 오전 11시부터 시련, 대령, 관욕 등 영산재가 식전행사로 봉행되오니 스님과 신도님들은 영산재에도 참가하시어 무량의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내 : 서울 왕십리 승가사에서 오전 9시 관광버스 출발
승용차로 오실 경우 춘천가는 길 청평검문소 지나 첫 번째 신호에서 우회전하여 호명산 감로사 이정표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2)2292-3418, 2282-3418,
031)584-0117(감로사), 011-722-3418
카페 : http://cafe.naver.com/kamrosa.cafe

서울 승가사 · 호명산 감로사 주지 이 지 성 합장

마곡사 친환경 방생법회 개최 '눈길'

토종 붕어 치어 35만 미 방류…지자체 연계사업 새모델 기대

일부 사찰의 외래어종 방생으로 생태계 교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곡사가 공주시의 후원으로 친환경 방생법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법용)는 5월 27일 공주 신관동 둔치공원 백사장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했다. 공주시 지원으로 봉행된 이번 법회는 우리 자연 환경에 적응이 강한 토종 붕어 치어(체장 3cm 내외) 35만 미(未)를 방류, 사라져가는 내수면(內水面) 어족자원을 복원하고 시민 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

보광원 주지 법운, 동학사 주지 요명, 성불사 주지 원경 스님과 동학사 스님들, 공주 이준원 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주사 주지 법용 스님은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동물이 되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때문에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이준원 공주시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이 자리의 모래를 파내 금강 물이 흐르게 해서 방생한 치어들이 조금 더 넓고 깊은 강에서 자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 공주 시민 모두가 금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주시가 치어구입비 5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6000만원을 지원한 이번 법회는 드물게 지역 사찰과 지자체가 친환경 방생을 위해 함께 협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중부내수면연구소 이완옥 박사는 "이번 마곡사의 방생법회는 불자들의 업장 소멸과 내수면의 어족자원 복원 등 다방면으로 유익한 행사였다"며 "앞으로 각 사찰 및 사암에서도 마곡사처럼 지방 자치단체의 방류 사업에 방생을 연계해 진행한다면 자연 생태계 교란이라는 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마곡사 스님과 신도들이 5월 27일 공주 둔치공원 백사장에서 붕어 치어를 방생하고 있다.

외래어종의 방생과 관련, 내수면연구소 등은 정부가 치어 생산을 담당하고 방류를 원하는 사람(혹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방류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시기, 장소, 어종 등을 정확히 명시해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자는 것.

그동안 방생법회 혹은 방류사업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동물의 방생으로 인해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금지 대상은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 동물 4종과 떡붕어,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향어) 등 외래종이다.

이번 마곡사의 방생법회는 자연 생태계를 교란 시키지 않고 오히려 복원하는 친환경 방생법회의 모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지자체의 방류사업과 연계한 사찰의 방생법회는 환경생명운동과 결합된 새로운 포교방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손효선 기자

우리 지역 부루나존자

전통도예가 **이인숙** 씨

"불심 담아 다기 빚지요"



여성의 몸으로 한국 전통가마를 이용해 도자기를 굽고 있는 도예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는 바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낮은 산 아래서 ''옥천요(窯)''를 운영하는 이인숙(61)씨다.

전통가마에 구운 다기(茶器)에 차를 마셔야 제 맛이 난다는 것을 느낀 후 천한봉 도예가(대한민국 제95-19호 도예명장)에게서 전통가마를 배운 그녀가 30여 년간 즐겨 빚는 작품은 다완(茶碗: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 또는 사발)과 다기다. 특히 스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기를 빚을 때는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심의 혼을 넣는다고.

전통가마와 함께한 30년간 이인숙씨는 작품을 빚을 흙을 경남 산청과 충남 태안 등에서 가져다 사용했다. 다완과 다기 사로잡고 있다"고 이인숙씨는 말한다.

이인숙씨의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입소문이 났다. 지난 2월에는 일본 교민들의 초청으로 일본 도쿄 전시관에서 10일간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인숙씨는 "해외 전시의 경우 교민들의 초청이 아니면 혼자 힘으로 전

옥천군 낮은 산 아래서 옥천요(窯) 운영
日교민 초청으로 도쿄서 전시회 열기도

등이 빚어지면 3개의 가마에 넣고 약 20여 시간 동안 뒤 섭씨 700~800도 정로 초벌구이를 한다. 이때 땔깜으로 쓰이는 나무는 3년간 건조시킨 소나무만을 사용한다. 초벌구이가 끝나면 작품을 식혀서 재를 떨고 유약을 발라준다. 그리고 다시 약 20여 시간동안 1300도의 온도로 재벌구이를 한다. 최종 작품은 재벌구이가 끝난 후 작품의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고 물로 씻어줘야만 완성된다.

이렇게 20여 일간의 땀과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 '옥천요(窯)'에서 탄생된다. 옥천요에는 수천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특히 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모델로 빚은 도자기가 내방객들의 시선을 시회를 열기는 무척 힘들다"며 "나는 그저 교민들의 초청에 전시회를 여는 것뿐, 진정으로 한국의 멋과 맛을 세계에 알리는 분들은 '한국 전통가마로 빚은 도자기'를 알아주는 교민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이인숙씨는 아들 최재휴(37)씨와 함께 재벌구이까지 끝난 200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사포로 문지르고,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재휴씨는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고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제자이기도 하다. 이인숙씨는 "내 일을 이어 받겠다는 아들과 함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심과 혼이 담겨져 있는 색깔 있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충청지사 기사제보 | (043)732-5560



5월 27일 개관식을 가진 금강대 원각도서관.

금강대 원각도서관 문 활짝

천태종 종립 금강대학교가 3년 7개월만의 공사끝에 원각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지난 해 9월 3년간만에 연 면적 1만2천67㎡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원각도서관을 건립, 그 뒤 약 7개월간의 보수 정비 끝에 5월 27일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총무원장 정산, 감사원장 춘광 스님과 성낙승 총장, 임성규 논산시장, 이인재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단행본자료실 등을 갖춘 원각도서관은 6만3천여 권의 국내 · 외 단행본 도서와 307종의 정기간행물, CDROM · DVD 등 4천630종의 비도서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멀티미디어실과 사이버교육센터, 스터디룸, 장애인 열람실, e-book 서비스(인터넷을 통한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 등도 갖추었다. 손효선 기자

"지역 사회 빛내는 자비도량으로"

대전 응화·득도심인당 헌공불사 봉행

진각종 대전교구청 산하 응화심인당(주교 진성 정사)과 득도심인당(주교 현수 정사)이 5월 23일 오전, 오후 2시 각각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으로 옮긴 응화심인당은 건축면적 353.78㎡, 연면적 1206.4㎡의 지상 4층 건물로 심인당과 법담실, 자성학교 등이 들어섰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자리잡은 득도심인당은 건축면적 645.5㎡, 연면적 1272.7㎡의 지상 3층 건물로 새롭게 단장됐다.

이날 헌공불사는 본존가지관정작법, 강도발원, 오대서원 및 유가삼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주교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듯이 이곳 심인당이 지역과 사회의 빛이 되어 평등과 자비의 도량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뜻을 이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닦아 진정한 불사의 의미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응화 · 득도심인당 헌공불사에는 도흔 총인을 비롯해 회정 통리원장, 경정 교육원장, 성초 종의회의장, 기로스승 일정 정사, 삼학심인당 주교 현봉 정사, 대전교구청장 휴명 정사, 서울교구청장 수성 정사, 부산교구청장 혜명 정사 등 300여 스승과 신교들이 동참했다.

김성우 기자

속리산에 불교공예 공방 보은군, 내년까지 조성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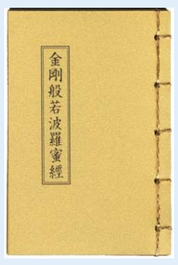
충북 보은군(군수 이향래)이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에 연 면적 1천400㎡(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공예공방을 2009년 6월까지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은군은 국비 등 약 7억2000 여 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공방은 공예 학습 · 체험장, 창작 공방, 작품전시 · 판매장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예 공방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복숭아 씨앗으로 불교용품을 만드는 도실공예 ▲보리수 염주를 제작공예 ▲황토쌀독 제조 ▲목(木)공예 등의 다양한 체험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방은 보은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들이 입주해 운영하게 된다.

이향래 보은군수는 "속리산으로 체험학습을 오는 학생들도 많고, 일반 관광객도 많은데 그들이 체험하고 즐길 공간이 없다"며 "속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속리산면 일원에 공방 터를 잡는다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실물크기 (소)3.5×5cm (중) 5×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시간·공간 초월한 불국토 형상화에 초점



강사 : 송은석(삼성리움미술관 고미술학예연구실 선임연구원)
주최 : 서울대 박물관
일시 : 2008년 5월 28일
장소 : 서울대박물관 강당

'한국사는 불교사와 함께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중국불교가 한국 땅에 전래되고 해로(海路)를 통해 간다라 양식의 불교가 가야국으로 전해진 이후 민족의 운명과 함께해온 것이 한국불교다. 1600여년의 시간이 흘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종교는 분명 다원주의 형태이다. 문제는 다원주의 방식의 종교 스펙트럼이 지향하는 방향은 하나의 밝은 빛으로 화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 박물관 주최의 강좌 '불교미술-붓다의 세계를 보다, 그리다'에 주목한다. 궁극적 붓다의 세계를 현실에 비추어 이상화한 불교미술을 집중 조명한다. 불교미술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염원의 세계는 욕구충족의 재현을 넘어 붓다의 가르침이 지닌 본래의 함의(含意)를 담는다.

임진왜란 후에 재건된 사찰의 대웅전은 크고 작은 여러 의식과 예불이 행해지던 복합적인 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 불교의례집인 <작법귀감> <범음집> <석문의범> 등에서는 대웅전의 내부를 삼단(三壇)으로 나누어 상단을 불단(佛壇)·중단을 신중단(神衆壇)·하단을 영단(靈壇)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후기의 대웅전은 기본적으로 석가불을 예경하는 불전이지만 별도의 예경공간이 없었던 신중과 영가(靈駕)를 대웅전에 함께 모시게 됨으로써 다수의 예배단이 함께 설치된 복합불전의 기능을 지닙니다.

붓다의 세계를 보다, 그리다

17세기 조선의 조각 : 佛殿·儀式·佛像을 중심으로

불전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많아짐으로써 불전 내의 구조가 변화됩니다. 불상의 3가지 요소는 부처의 몸과 부처의 힘을 상징하는 광배(光背) 그리고 대좌(臺座)입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잘 지켜져 오다가 15세기 불상에서 보면 광배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광배는 없어지고 후불탱화 혹은 벽화가 그려집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가면서 만든 '소조아미타불좌상(塑造阿彌陀佛坐像)'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광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1476년에 제작된 후불벽을 갖고 있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에는 이미 광배가 사라지고 후불벽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후불탱화나 벽화가 언제부터 모든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16세기 이전의 불전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 변화양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후 17세기에 재건된 대부분의 불전에 봉안된 불상에서 이미 광배 대신 후불탱과 후불벽이 일반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늦어도 16세기에 전반적인 설치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후불탱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광배에 없던 수많은 불교존상들의 쓰임일 것입니다. 불전 내부에서 다양한 신격(神格)을 받들어 청하는 의식이 효과적이기 위해 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명·청대 불전에는 조선시대 불전처럼 후불탱을 봉안한 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불교신앙과 대비되는 조선후기 불교신앙이 가진 의식적 특징의 단면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한정된 공간에서 예불의 공간을 확보하기위해 불단은 중앙의 뒤쪽으로 밀려 나고 불단은 넓어집니다.

17세기 불전 내부에서 일어난 평면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입면(立面)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불단의 천판(天板)에는 화려하고 높은 대좌가 올려 지게 되었으며 대좌와 별도로 불탁을 화려하게 장엄하게 됩니다. 예불과 의식에 사용될 공양물을 진설하고 상의 존엄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불단 위에 높은 대좌가 놓이는 현상은 이미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부터 나타난 것이지만, 조선후기가 되면 1층 또는 2층으로 구성된 보단(寶壇)이 천판 위에 놓여지고 그 위에 대좌가 놓여 불상이 봉안되는 위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고려시대 이전의 불상 대좌는 대개 1미터 가량의 높이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로지 대좌만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불상이 놓이게 되는 높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430년에 조성된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불단은 높이가 82cm로 비교적 낮지만, 천판 위에 다시 71cm의 높이가 더해져 1478년에 조성된 아미타상은 153cm 높이에 봉안되게 됩니다. 불상이 높게 봉안된 원인은 불단과 대좌가 합쳐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17세기 들어 불단이 높고 화려하게 장엄된 것은 불상을 좀 더 높고 성스럽게 보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전 내에서 예불과 설법이 많이 행해졌던 조선시대에는 좁은 공간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로 불상을 대해야 했습니다. 예배 상에 친근감을 느끼게는 하였지만 존엄성과 경외감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불상을 매우 높은 위치에 봉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한 것은 아닐까요? 높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인 불상이 예배자에게 큰 경외감을 일으켰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높이 올려진 불상은 아래에서 올려보더라도 상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으로 언급되어온 움츠린듯 한 자세와 숙여진 머리는 불교의 위축으로 인한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불상 봉안의 위치 변화에 맞추어 불상의 원만한 상호를 구현하려는 조각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웅전(大雄殿)은 일반적으로 석가불을 주존으로 모신 전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후기 또는 중국 명·청대의 예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전각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불교를 이해하는 핵심이 삼방불과 삼세불입니다.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불상은 아미타불·석가불·약사불로 구성된 삼방불(三方佛)입니다. 대웅전에 봉안된 전체 불상의 66%를 차지합니다. 주존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협시한 삼불의 구성을 17세기 사찰의 주전각인 대웅전에만 봉안되고 다른 전각에는 봉안되지 않습니다. 전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불 사이에 4보살이 협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웅전에는 삼불만이 봉안됩니다. 이 삼불의 구성은 서방극락세계(西方極樂世界)의 교주인 아미타불과 사바세계영산교주(娑婆世界靈山敎主) 석가모니불 그리고 동방유리광세계(東方瑠璃光世界)의 교주 약사불이라는 공간상의 구분에 따른 불국토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방위 개념인 '方'을 사용하여 삼방의 부처님 세계로 칭합니다. 17세기 초반에 사찰이 재건되면서 삼방불이 전국적으로 조성되었던 사실을 보면 적어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16세기 중반 경에는 삼방불상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응진전(應眞殿, 羅漢殿)에는 중앙에 촉지인을 지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형의 제화갈라(提和竭羅)와 미륵(彌勒)이 협시한 형태의 삼존상이 봉안됩니다. 제화갈라는 과거불인 연등불(練燈佛)의 다른이름입니다. 미래불인 미륵과 현재불인 석가와 더불어 과거·현재·미래의 삼존을 표현합니다. 조선시대 불상으로 삼존 모두가 불형(佛形)인 삼세불(三世佛)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연 송월산 학림사의 보광전에 미륵불·석가불·아미타불의 삼세불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화갈라와 미륵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의식집인 <제반문(諸般文)>의 '나한청(羅漢請)'조에 좌우 보처보살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진전 삼존불의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도 제화갈라와 미륵이 석가불의 좌우보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등불에서 석가불 그리고 미륵불로 이어지는 수기삼존(授記三尊)의 완벽한 계승을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응진전에 삼세불이 주존으로 봉안될 수 있는 근거는 십육나한의 역할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도 적천사에 조성된 목조 삼방불(三方佛) 좌상(1636년).

불단 높고 화려하게 장엄…불상의 성스러움 강조

후기불상 움츠린자세, 교세위축·봉안위치가 원인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Tip

'불교미술-붓다의 세계를 보다, 그리다'는 일반시민 및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교양강좌다. 6월 4일 오후2시 서울대박물관 강당에서 강희정(서울대학교)교수의 "현세구복의 불교미술(Buddhist Art in Pursuit of Happines)"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열린다.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내안의 가시를 다독여봐…



가시가 꽃이 되다
혜거 스님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 1만2000원

"한 가지 생각으로 한 분야에 전념해 공을 이루고, 공을 이룬 뒤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채찍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을 이룬 사람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가시가 꽃이 되다>는 뿌리 없는 허상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들려주는 혜거(금강선원) 스님의 마음수행 이야기다.

내 밖으로 향한 가시로 인해 분노하고 내 안으로 향한 가시로 인해 불행하다 여겨오던 마음을 정성스레 다독여 준다. 참된 행복이란 열매를 맺는 여정과 그 안의 씨앗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삶의 방법이 담긴 스님의 법문집이다. 미망의 어둠이 걷히고 마음의 지혜가 되살아날 때 비로소 가시는 꽃이 된다.

초심(初心)에 해답이 있다.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일과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일과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까? 제1장 '변한 것은 없는데 하나도 같지 않다'는 스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 다스림을 다룬다.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인 참된 용서의 삶, 진리의 눈과 깨끗한 눈 그리고 지혜로운 눈에 더불어 눈으로 본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지의 바라봄으로 자비로울 때야 세상은 평화롭다.

'참선이란 모든 사물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모든 이치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궁금해 하고, 의문에 깊이 빠져 무아(無我)의 경지가 됩니다.

여기서 더욱 몰입해 의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요하면서도 끝없는 마음의 울림과 대화해야 하는 수행의 실천으로써 '방석 한 장 위에 스스로 몸을 묶고 마음을 묶어' 궁극의 평안으로 향한다. 그것이 간절한 화두이다.

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현재심(現在心)은 진리 안에 머무는 영원함이다. 이슬과 같은 인연의 도리에 담긴 마음의 지혜를 통해 '가시는 꽃이 되어' 향기롭다.

이것이 마음공부다. 왜곡 없는 여여(如如)의 본래 참된 상을 지닌 마음, 깨달음이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런 마음이다.

마음공부의 마지막은 제4장 '흔적 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는 삶'이다. 오래 살고, 부자 되고, 병 없이 살며,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면 바라는 복일 것이다.

그러나 복중의 복은 덕(德)의 지혜이다. 나 아닌 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한 성공의 해답을 묻는다. 복과 지혜를 겨루어 본다. 복은 다하여 없어 질수 있지만 지혜는 한번 생하여 유지하면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혜거 스님은 서울 금강선원에서 20년째 일반인들에게 불교 진리와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능엄경>을 강의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참된 행복이란
열매를 맺는 여정과 그 안의 씨앗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삶의 방법이 담긴 스님의 법문집

화엄의 세계 깊이 들어가기



게송으로 공부하는 재미있는 화엄경
반산 스님 편저
부다가야 펴냄 | 1만8000원

'한 터럭 구멍을 보니 구족하게 장엄한 넓은 세계에 한량없는 여래가 가운데 있고 청정한 불자들이 가득 찼으며(或有觀見一毛孔 具足莊嚴廣大刹 無量如來悉在中 淸淨佛子皆充滿), 혹은 보니 한 터럭 끝 만한 곳에 한량없는 티끌 수 세계가 있어 가지가지 짓는 업이 각각 다른데 비로자나 부처님 법륜을 굴리신다(或有見一毛端處 無量塵沙諸刹海種種業起各差別 毘盧遮那轉法輪).'

일불승(一佛乘)의 법은 자신의 수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에게 회향하고자 선재는 보현의 세계로 향한다. 진정한 대승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살은 어떻게 성불의 길로 향해야 하는가. 그 지침의 해답이 <화엄경>에 있다.

20여 년간 화엄을 연구해 온 반산 스님이 80권 <화엄경>의 중요 게송을 함축하여 화엄의 세계로 안내한다.

총 7처 9회 40품으로 '보현행원품'을 포함하였다. 선지식들이 발심하여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된 300게송을 뽑아 그동안 <해인>지와 <현대불교>에 기고했던 글로 포교 현장에서 설법한 내용을 보강하여 총 31강의로 구성하였다.

절을하면 좋은 것이 뭐지?



0.2평의 기적
나은희 지음
크리에디트 펴냄 | 1만원

0.2평짜리 공간에 숨겨진 인생 설계의 비법을 공개한다. 절은 불교의 것, 제사 때와 새해에만 하는 것으로 여겨온 이들의 고정관념을 부쉈다. 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던 S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0.2평의 기적 : 절하는 사람들>을 글로 재구성했다. 스스로를 낮추는 최고의 경례로 알려진 절의 효능이 종교성을 떠나 효과적인 운동법으로 각광 받는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평화롭게 만드는 명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절에 대해 파헤친 최신 보고서이다.

'0.2평에 불과한 작은 방석 하나와 마주하는 순간, 최대한 몸을 굽히고 땅바닥에 몸을 낮추면 똑똑 떨어지는 굵은 땀방울과 함께 사라지는 마음의 군더더기들'

10여 년째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 중인 작가가 직접 체험하며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다.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 관심있거나 새로운 운동법을 찾던 이들에게 부담 없는 책이다. 109배 영성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가톨릭 신부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 가정 의학 박사의 인터뷰 등의 에필로그는 절이 지닌 고정관념을 깨고 일상이 된다.

한자를 읽고 쓰는 새로운 길



한자의 재발견
이재황 지음
뉴런 펴냄 | 2만2000원

한문 신화의 19세기 역사를 뒤엎어 보인다. 2세기 창시되어 2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한자학 육서(六書)이론의 오류를 단숨에 바로 잡는다. 열쇠는 '소리'에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 아닌 표음문자라고 말한다. 600여 자의 가장 기본적인 한자만을 골라 갑골문과 금문, 소전체 등 옛 글자꼴과 발음을 두 축으로 삼아 하나하나 분석하였다. 소리로 만들어진 한자의 유래를 명백히 밝힌다.

모양(形) · 소리(音) · 뜻(義)이 한자의 3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자 유래 분석에서는 모양과 뜻만 챙겼을 뿐 소리는 소외되어왔다. 한자의 뿌리를 캐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음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은 기존 학계의 패러다임과 차별화된다. 한자의 뿌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한자의 재발견'이다.

작가는 온라인 신문 <프레시안>에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를 연재하면서 한자의 세계를 소개해왔다.

소리로 바라보는 한자는 한국 한자학의 새로운 가능성 또한 제안한다.

▮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민족사 펴냄 | 9500원

"아빠! 극락과 천당은 같은 건가요?"

평소 당당한 불자라고 여겨왔던 당신. 자녀의 느닷없는 물음에 뭐라 답해야 할지 고민했다면 불교박사를 찾아라. 평소 알듯 모를듯했던 불교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답해준다. 어렴풋이 막연한 불교지식을 지녀온 이들에게 권장할만한 입문서다. 절에서 쓰는 말과 행동 아흔 아홉 가지 핵심 물음에 답한다.

▮ 마음을 열고 평화롭게
폐마 쵸드론 지음 · 이윤숙 옮김|미지의 코드 펴냄 | 8500원

전쟁의 시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여섯 가지 길을 제시한다. 유명한 티베트 명상가 쵸감 트룽파의 제자로 서양인 최초 비구니계를 받은 폐마 쵸드론의 마음평화론이다. '마음 다스림'이다. 마음을 여는 순간 평화는 시작된다. 누군가의 바른 마음이 이 지구 위에서 발현될 수 있는 씨앗을 뿌려라 그것이야말로 함께 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 화엄경 보현행원품
광덕 옮김 · 박성배 강의|도피안사 펴냄 | 8500원

중중무진(重重無盡)한 법계연기(法界緣起)의 대원을 원만구족한 <화엄경>「보현행원품」의 오묘한 진리를 요약했다. 보현행원사상에 눈뜨게 해준 광덕 스님(1927~1999)을 그리며 살아생전에 차마 여쭙지 못했던 질문의 해답을 찾아간다. 진정한 보현보살행으로 참된 보현행자가 되는 지혜와 자비의 마르지 않는 샘물과 만난다.

▮ 외규장각 도서의 비밀
조완선 지음|휴먼앤북스 펴냄 | 각권 9500원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함대에 빼앗긴 외규장각도서를 둘러싼 지적 미스테리 추리 소설이다. 소설 속에서 의문을 파헤치는 정현선 박사는, 실제 1967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직지심체요절>을 발견, 한국의 금속인쇄술이 구텐베르크보다 앞섰음을 세상에 알린 박병선 박사가 모델이다. 19세기 조선과 21세기 한국을 넘나들며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의 존재를 둘러싼 한국 · 프랑스 · 중국 · 독일의 문화전쟁이 펼쳐진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7	나도 때론 울고 싶다	주경	불광출판사
8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9	0.2평의 기적	나은희	크리에디트
10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제53주년 현충일 및 2008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11회 호국영령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일체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년 6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천연와불성지 지리산 견불사
전화 055)962-3931 / 전송 055)962-3920

천연와불성지 견불사 주지 보덕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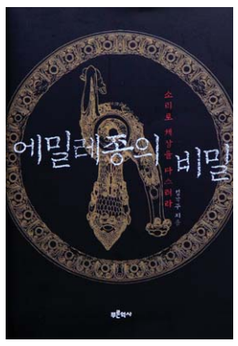
'에밀레종의 비밀' 낸 성낙주씨 저자 인터뷰

"오직 하나뿐인 종 완벽한 우주…"



대학 시절부터 관심 … 주종 작업 체험도
종 자체가 거대한 기호 덩어리, 설화로 풀어

'에밀레종'. 정확한 명칭은 '성덕대왕신종'이다. 국보 제29호인 이 종은 신라의 소리이고 우리 민족의 소리다. '에밀레종'은 소리와 조형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우리 문화의 한 원형이며 영원한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미술사와 금속학은 물론 음향 연구자들에게도 신비의 유산인 '에밀레종'의 비밀을 성낙주 소설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풀이했다. <에밀레종의 비밀>을 펴낸 작가를 만났다.



- 저술 동기는?

'매혹된 영혼'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꼭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는 건성 으로 보아 넘겼는데, 동국대 국문과 시절 경주박물관에서 에밀레종을 다시 만났을 때는 달랐어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은 물론이고 어떤 영적인 에너지라고나 할까, 전율 같은 것이 다가왔거든요. 한마디로 매혹당한 것이지요. 조규동 선생이 1960년대에 녹음한 에밀레종 소리를 구해 책상머리에서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1981년 말에 발표된 황수영 박사의 만파식적 기원설을 계기로 에밀레종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저의 데뷔 작품인 <차크라바르틴>(1995)인데, 춘다라는 주인공을 아예 종장으로 설정했지요. 범종사(梵鐘社) 공방에 가서 주형틀에 직접 쇳물을 부어보면서 주종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에밀레종의 탄생 배경이나 조형원리에 대한 공부가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번 책에서 에밀레종에 관한 제 나름의 해석을 맘껏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 '전설'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원형 사건'을 검토했는데 작가적 의도는 무엇이고 평은 어떤지요?

전설은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설퍼 보이지만 한 시대의 비판적 지식인이나 민중이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문학)의 형태로 살짝 변형시켜둔, 참으로 '싱싱한' 사료(史料)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은 일종의 가면이고, 그 뒤에 역사의 맨 얼굴이 감춰져 있다고 보면 좋겠지요. 이번에 제가 다룬 에밀레종전설하고 만파식적(萬波息笛)전설이 좋은 예입니다. 두 전설은 우리 역사의 황금기를 열어젖힌 중대신라 무열왕계 왕실의 출범과 몰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엘리트 사가(史家)들이 놓친 역사의 진실을 치밀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가면을 벗겨 에밀레종의 정치사 및 예술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 에밀레종의 예술성과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복합적 관점에서 살피셨는데 작가로서 '에밀레종'을 정의한다면?

예술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특히 개인 작업이 아닌 집단 작업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는 더욱 첨예하게 그 시대의 사상이나 욕망을 대변합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구층대탑, 진평왕옥대 같은 상대신라의 삼보가 그런 것들인데, 중대의 무열왕계도 만파식적과 흑옥대 같은 신기(神器)를 만듭니다. 에밀레종은 무열왕계 왕실의 마지막 신기로 제작된 것이지요.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중생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원받기 바라는, 또 중대왕실의 영속을 기원하는…. 이름에다 특별히 '신종(神鐘)'이란 단어를 붙인 까닭이 거기에 있지요.

- 무엇보다 '에밀레종의 기호학적 분석'이 눈길을 끄는데,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레종을 포함해 모든 신라종은 구성요소들이 똑같습니다. 고리 노릇을 하는 종머리의 한 마리 용, 그 용이 등허리에 짊어지고 있는 원통(圓筒), 종복(鐘腹)에 새겨진 아리따운 비천, 36송이의 탐스러운 연꽃 등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 고대종에는 그런 요소들이 일절 없습니다. 이 점은 에밀레종이 어떤 통일된 원리에 따라 주조된 일종의 기호체계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밀레종은 옛날의 신라인이 오늘의 우리한테 보낸 기호의 덩어리인 셈이지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읽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파식적 설화를 대입하면 그것들의 상징적 의미가 일거에 풀립니다. 요컨대 맨 꼭대기의 거룩한 용은 동해용왕으로 환생한 문무왕이고, 용이 짊어진 원통은 그가 아들 신문왕에게 전한 만파식적입니다. 그러면 비천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문무왕이 만파식적을 짊어지고 창파를 헤쳐 뭍으로 달려오는 극적인 장면을 찬탄하는 장엄요소이지요. 신문왕 등 후계자들에게는 국가적으로 그보다 경사스러운 사건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종 어깨를 따라 묘사된 36송이의 연꽃은 숫자상징입니다. 36이란 숫자는 고대중국에서 천하, 즉 땅을 뜻하거든요. 결국 종복은 하늘, 맨 위의 천판은 바다, 연꽃은 땅이 됩니다. 이렇듯이 신라종은 천지해(天地海)가 삼위일체를 이룬 하나의 완벽한 우주로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어떤 문명권에서도 종을 하나의 우주로 상징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지구상의 모든 종은 오직 두 가지, '신라종'과 '비(非) 신라종'이 있을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덧붙이면 학계의 주류가 용종이라는 중국고대 악종에서 우리 범종의 기원을 찾고 있는데, 어불성설이지요. 에밀레종은 우리의 독자적인 양식입니다.

-그간 '석굴암', '에밀레종' 등에 천착하시어 좋은 결과물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석굴암과 우리 범종의 20세기 초 사진자료 전시회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제 석굴암 연구의 결정판을 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술에서 독특한 향기를 뿜어내는 도깨비기와(귀면와), 논란이 많은 첨성대 등에 대한 단행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정 때 엽서들을 가지고 경주 기행책을 한 권 펴내고 싶기도 하고요.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발심수행장)
일타 | 효림 | 1994

정운 스님(시인, 충남 보령 세원사)

'발심수행장'은 내 수행의 '멘토'



중생들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 팔만가지 방편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록 해 놓은 내용들 중 어떤 것을 접해도 소중하지 않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내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 불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이다.

신심도 지혜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행자시절, 그저 어렵고 낯설기만 한 한자들, 그 속에 깊이 묻혀 있는 뜻이 있었지만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강사스님의 뜻에 따라 외우고 또 외우고 보니, '아,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의 자리가 잡혀 가기 시작 했던 지침서가 <발심수행장>이었다. 마음이 약해지고 게으름이 일어나면 <발심수행장>의 구절구절의 내용을 외우고 또 외워 나 자신을 거듭거듭 다져 나갔던 기억이 난다.

이제 무르익어가는 절집나이 때문에 더러는 구절구절의 내용은 다 기억 해 내지는 못하지만 그때 다지고 다진 그 깊은 뜻이 몸속에 배여 건강한 수행을 하고 있다.

흔히들 말한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10퍼센트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이 사람일수도 있고 한권의 책 일수도 있다. 끊임없는 자신의 숨은 가능성을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Mentor)'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멘토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은 열리고 바뀌어 갈 것이다. 내 수행의 멘토는 <발심수행장>이었다.

원효 스님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중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높은 산 높은 바위 지혜로운 이의 살 곳이요 / 푸른 솔 깊은 골짜기 수행인이 살 곳이라
나무 열매로 주린 창자 위로하고 / 흐르는 물마시며 갈증을 식히네
좋은 음식으로 아껴 보살펴도 이 몸은 결정코 무너지고 / 비단으로 감싸 보호해도 목숨은 반드시 마치나니

외우고 또 외우며 '아, 수행은 이런거구나' 마음 약해질때 버팀목 되어주는 가르침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염불당을 삼고 / 슬피우는 기러기로 마음의 벗을 삼을지라
철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생각을 하지 않고 / 주린창자 끓어져도 먹을 생각 말지어다
백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 일생이 얼마이기 닦지 않고 방일하랴

발심수행장은 원효대사의 논총 1백권 책 240권 중 가장 짤막한 저술이지만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히는 가장 밝은 등불이요 감로의 법우(法雨)이며 또한 이 땅의 수행자들이 수 백년 동안 이 책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마음을 닦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불서(佛書)이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750만원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 품 목 부 가 세 별 도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걸림 없는 삶 추구…공의 실천적 개념



㉑ 무심(無心) 무념(無念) 무사(無事)

일반적으로 세상사에 조금도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무심(無心)'이라고 합니다. 반면 '유심(有心)'은 어디엔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비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왠지 관심 밖에 있으면 소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禪)에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금물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집착이고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 한두 번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하는 중독증 같은 것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작은 화초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 늘 그 화초가 마음에 걸려 멀리 여행을 가지도 못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면서도 스스로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禪)에서는 무심(無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無心)'이란 관심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번뇌심(無煩惱心)·무집착심(無執着心)·무망심(無妄心)의 준말로서, '번뇌 망념이 없는 마음'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신적으로도 그 어떤 개념이나 주의(主義)에 구애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에서 말하는 무심입니다.

무심한 상태가 되자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등 번뇌가 있다면 그것은 무심의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심의 상태가 아닙니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무심이 아닙니다.

선어록에서는 종종 "만물에 무심하고 일체처(一切處) 일체사(一切事)에 무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대상(만물)과 어느 곳(일체처), 어떤 일(일체사)에 대해서도 무심해지라는 것입니다. 또 '무심위종(無心爲宗)'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심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뜻인데, 모든 일에 마음이 구속되지 않는 무심한 경지를 말합니다. 현실적 정신적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무심입니다.

'무사(無事)'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일반적 개념인 '별 탈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근심 걱정해야 할 일' '번뇌의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번뇌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버스나 택시를 타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운행되기를 바라는 문구인데 사실 이 분들에게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내일도 모레도 무사히 보낸다면 일평생 행복한 나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사는 '마음속에 한 일도 없다'고 하는 '심중무일사(心中無一事)'와도 같은 말이고,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다'는 '심중무일물(心中無一物)', 그리고 '일 없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무사시귀인(無事是貴人)'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일물(一物)'이라든가 '일사(一事)'는 모두 다 번뇌 망념이나 집착하는 마음 등 중생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중국의 선승들은 '부처(佛)'나 '진리' 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자성(無自性, 실체가 없다), 공(空) 등 인도 불교적 개념들을 모두 중국적 사유 아래에 '무심' '무념' '무사' '무상(無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특유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정신에 바탕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격물치지란 사물에 입각하여 앎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상이나 철학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다' 또는 '어디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좋은 반면 때론 몸과 마음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물론 좋은 일에는 마음을 써 주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 등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것은 선(禪)의 무심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무심도 안 된 상태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무아'와 '공'입니다. 무심·무념·무사는 공의 실천적 개념입니다. 선에서 무심·무사란 일반적인 무심, 즉 멍하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또는 건달처럼 목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은 모든 욕망과 번뇌로부터 이별하여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현실적 정신적으로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무심
번뇌 망념이나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무사

신행게시판

●미황사 휴식형 템플스테이 '고요한 소리'= 해남 미황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사람의 향기 수행프로그램이다. 단기출가형식의 '참사람의 향기'가 부담스럽다면 미황사에서 상시 진행되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고요한 소리'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간은 1~6박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개인 가족 단체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고요한 소리'는 예불, 참선, 다도, 자유수행, 산행,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성인 3만원, 중고생 2만원, 초등생 1만원의 동참금을 받고 있다. 접수는 매일 가능하며 전화(061-533-3521), 홈페이지(www.minwangsa.com), 이메일(dalmaom@hanmail.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선운사 불교문화 강좌=고창 선운사가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교리, 수행방법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6월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고창 종합복지관에서 강좌가 이어진다. 8월 31일 수료식은 선운사에서 수계식과 함께 열릴 계획이다. (063)561-1422

●국녕사 사경법회=고양 국녕사가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국녕사 대불전에서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관음경〉 등의 사경을 해 6월 12일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은 오전 10시~오후3시 식당 정법사실에서 이루어지며 토요일에는 휴무다. 이번에 사경된 경전들은 국녕대불 복장 장엄불사에 봉안될 예정이다. (011)240-4779

●불광사 경전 강좌=서울 불광사가 5월 28일부터 10주간 일정으로 '초기경전 강독'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을 강사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오전 강의가 진행된다. 초기 경전 〈니까야〉를 통해 부처님의 사상과 생애를 공부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변상섭씨를 강사로 〈능엄경〉 강좌가 열려 7월 30일까지 10주간 이어진다. (02)413-6060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53선지식 초청 대법회=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53선지식 초청 대법회가 6월에도 이어진다. 4일에는 문경 김용사 주지 혜창 스님이 법사로 나서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법문한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는 해마다 53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이어오고 있다. (053)474-8228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고집멸도 법문 억겁의 무명 밝혀

㉑ 연화색

인도의 서쪽 야반티라는 나라 웃제니라는 도시에 푸른 연꽃처럼 연약하고 매혹적인 연화색(蓮花色, 웁팔라반나)이라는 미인이 있었다. 혼인할 나이가 되어 부모는 연화색을 결혼시키고 사위를 맞아들였다. 얼마 후 그 젊은 부부 사이에는 딸이 생겼는데, 그때 바로 연화색의 아버지가 별안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남편을 잃은 그의 어머니는 사위와 몰래 정을 통하고 말았다. 그 어머니와 남편의 이와 같은 불륜을 알고 분노와 슬픔을 금치 못한 그녀는 갓난아기를 방에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먼 길을 걸어 베나레스 성에 도달하였다. 그때 이 성에는 상처(喪妻)를 한 한 장자가 있었다. 때마침 그는 성문 밖에 홀로 서 있는 연화색를 보았다. 장자는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쏠려 마차를 세우고 청혼하였다. 그녀가 그 뜻을 수락하자, 장자는 여인을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로 삼았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 장자는 큰 돈을 모았다. 그는 장사를 위해 웃제니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거기서 장자는 우연히 처녀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명절을 맞아 뛰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 중에는 연화색이 낳은 딸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를 닮은 그 미모에 장자는 크게 마음이 동해 그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 수만금을 주고 그 딸을 데려와 아내로 맞았다.

어느 날, 연화색은 둘째 부인의 머리를 빗어주다가, 그녀가 바로 자기 딸임을 알고 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한 때는 어머니와 남편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또 딸과 남편을 같이하게 되다니, 이 무슨 죄악일까?" 그녀는 다시 집을 나가 거리를 방황하였다.

베나레스 성문을 나서서 울며 울며 가다가 도달한 곳이 라자가하(王舍城)였다. 거기에 온지 며칠 안 되는 동안, 그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성 안의 노름꾼들 사이에 자자하였다. 오백 명의 노름꾼들이 오백 금을 그녀에게 주고 같이 꽃밭으로 가서 거기서 놀았다. 그때 마침 목련존자가 그 동산 안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노름꾼 중의 한 사람이 "너, 저 존자에게 가서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하고 말했다. 그녀는 "내 옛날에 수많은 남자의 마음을 녹였다. 어째서 저런 사람쯤 녹이지 못하겠느냐?"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가진 교태를 다 부렸으나 목련존자의 마음은 숲과 같이 조금도 동요함이 없었다.

그 때 목련존자가 여인을 보고 말했다.

"여인이여, 깊이 스스로 반성하라. 네 몸은 미워해야 할 것으로 가득하다. 내가 만일 네 몸의 부정(不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마치 여름철의 변소와 같이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멀리 가버릴 것이다."

연화색은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이렇게 대답했다.

"원하옵건대, 저는 가르침에 따라 출가하고 마음을 바로잡아 도(道)를 닦겠나이다."

목련존자는 이를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 데리고 가 출가하도록 했다. 출가 후 그녀는 등에 불을 켠 다음, 마음을 불꽃에 고정시키고 불-까시나(kasina: 대상에 대한 집중)로 마음공부를 하였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결국 아라한과를 얻었다.

상심한 연화색, 교태로 목련존자 유혹
자신의 부정 깨닫고 출가해 道 닦아

연화색 비구니가 과거를 꿰뚫어보는 숙명통의 지혜를 얻어 과거를 관찰해보니, 항상 지옥에 드나들어 빠져나올 기약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왕사성의 여인들에게 "다만 출가만 하면 설사 파계해서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마침내는 해탈할 때가 있다"고 출가를 권했다. <연화색비구니경> <법구경> <사분율> 등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연화색 비구니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은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고 보시행을 강조하는 법문이었다.

"지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야심과 욕심이니 마음에 탐욕의 불길을 꺼야 하느니라. 소유욕을 비워야 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삼보를 공경하며 노력과 재물과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보시하라. 그대들 마음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대 앞에는 평화와 우애와 행복의 큰 길이 열리리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 4성제 법문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고 억겁의 무명을 일순간에 광명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김성우 기자

[법보시 PR]

生活法文

어려움은 나를 가르치는 공부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때, 그 마음을 보자.

연일 계속되는 불안정한 사회현상들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미국 쇠고기 수입, 흉악범죄, 중국 지진 등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면서 점점 불신과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위 현상문제도 그렇거니와 불자님들 가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佛家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경계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어려운 경계란 자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그냥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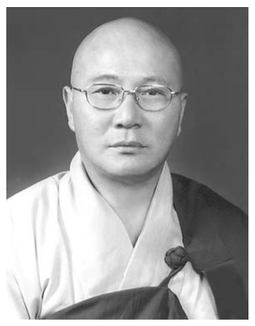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려움은 밖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가 난 나를 둥글고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시험인 것이니, 경계를 너와 나,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모두가 있으므로 그 모든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가 왔을 때는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살펴 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곧 나를 가르치려는 공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공부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운 모습은 과거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결과이니 당연히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 밝은 본 모습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 것입니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불자님들의 당면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자식교육 문제 등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면서 돌아갑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어느 때인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먼저 어려움이 생겼다면 한 순간 접어두고 내 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내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하는 서원을 세웠을 그때,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처음 각오를 다지던 그때, 자식을 낳아 감격하던 그때, 그 마음을 되새겨 봅시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처음에 세운 마음이 정각을 이룬 것과 같다)이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데 왜 고민해야 합니까.. 처음 그때,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내 관계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부터라도 첫 부부가 되었을 때, 첫 부모가 되었을 때, 첫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어려움은 우리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스승이며 공부임을 잊지 맙시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답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일요법회 법문 내용 정리
[미륵암 청운 011-870-0021]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E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청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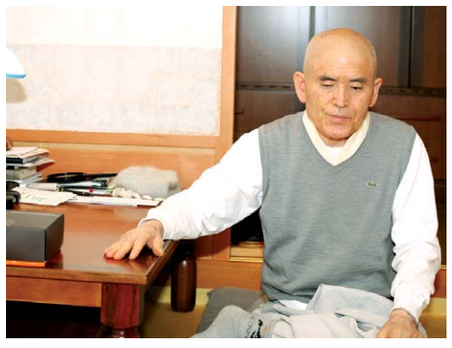
“참선? 해 본 사람만 참맛을 알 수 있지”

선지식을 찾아서 월성

월성 스님은

1952년 구례 화엄사로 출가하여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그 후 20년 넘게 해인사, 송광사, 칠불사, 불국사, 각화사 선원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였다. 지금 속리산 복천암에 주석하고 있는데, 이곳에 머문 햇수는 서른 해가 훨씬 넘는다.





복천선원장 월성 스님

복천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초록빛 잔치였다. 복천암 초입에 이르자, 남새밭이 눈에 들어왔다. 고랑마다 상추, 쑥갓, 고소, 열무, 고추 등이 제법 자라있었다. 여름 내내 선방 스님들의 찬이 되고 약이 되어 줄 공양물이다. 복천암은 고려 공민왕과 세조가 잠시 머물다 간 곳이며, 현대에는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이 이곳에서 배곯아 가면서 공부하였던 곳이다.

월성 스님의 거처에 들어서자 새소리가 요란하다. 깊은 산중에만 산다는 방아새는 두~두~두~하고 느린 네 박자로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그리고 목탁새와 딱따구리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스님은 연둣빛 가득한 말차를 한 잔 주셨다. 차맛이 어떤 맛인지를 물었다. 쌉싸름하고 달콤한 맛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스님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 한다. 그래서 한 모금을 더 마시고 나서는 그냥 녹차맛이라 하였더니 스님은 그것도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지금 차맛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맛을 글로 표현할 수가 있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나. 몸이 다른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는가? 답은 직접 마셔보라는 것이지. 이처럼 참선에 대한 그 맛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맛을 알 수 있겠어요.”

참선수행은 팔식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좋은 법문 듣고 수행하면 자성 깨닫게 돼

참선수행은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선의 세계이다. 그러니 남에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보라는 말씀이다.

“요즈음 컴퓨터 세상이라고 하지만 컴퓨터도 전부 인간의 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컴퓨터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입력된 것들이 전부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업식을 저장하고 있는 팔식(八識)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대상을 보는 마음을 안식(眼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이식(耳識), 냄새를 맡는 마음을 비식(鼻識), 맛을 아는 마음을 설식(舌識), 몸에 접촉하는 것을 아는 마음을 촉식(觸識), 보거나 듣는 것 모두를 혹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을 의식(意識)이라 한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작용하는 것을 묶어서 육식(六識)이라 한다. 칠식(七識)은 말라식이라 하여 본래 갖추어진 마음의 심층에서 활동하는 자아의식이고, 팔식인 알라야식은 일곱 가지의 식을 생기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이다. 구식(九識)은 부처님의 경지이다.

“팔식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어요. 참선은 바로 팔식을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육식과 칠식까지 소멸되면 죽었다고 하는데 팔식은 죽지 않아요. 팔식이 살아 있으니 입력된 테이프 그대로 지니고서는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새 몸 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헌옷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세생생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월성 스님은 참선을 왜 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게 짚어주었다. 자꾸 사람 몸 받아 나서 좋은 법문 듣고 수행하다보면 언젠가는 자성을 완전히 깨달아 생사해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다. 달마 대사는 오성론(悟性論)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불은 본래부터 삼독 속에 계시면서 청정한 법을 기르면서 마침내 세존이 되셨다(諸佛從本來 常處於三毒 長養於白法 而成於世尊).”

월성 스님께 복천암에 머무신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언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월성 스님은 세월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나이를 모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없애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조차도 없애려고 깊은 산중에 들어와서 365일 화두 하나만 오롯이 들고 있는 스님께 시간을 물은 것이 잘못이다. 월성 스님의 경지에서는 세월을 따진다는 것은 진흙소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월성 스님의 수행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해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조선시대 때 복천암에 주석하였던 신미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미 대사는 출가 전부터 사서삼경을 섭렵하였고 불가에 들어와서는 범어(梵語)로 장경원전까지 모두 읽었다. 세종대왕은 만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창제를 위하여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집현전으로 초빙하였다. 그때 복천암에 주석하고 있었던 신미 대사가 발탁되었다. 신미 대사는 뜻글이 아닌 소리글자인 범어에서 착안을 얻어 한글창제를 진행하였다.

복천암에 보관되어 있는 <복천보장>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신미 선사의 수고를 치하하고 보답으로 주석하고 있는 속리산 복천사에 주불 아미타불과 좌우보처 관음세지 양대보살을 금동으로 조성 시주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 <이조실록>에 ‘세종 28년 12월 2일 부사직(副司直) 김수온(金守蘊)에게 명하여 <석가보(釋迦譜)>를 증보수찬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수온은 신미 대사의 동생이다. 월성 스님은 “불교문학의 정수인 <월인천강지곡>이 지어진 그 배경에는 한글창제를 주도한 신미 대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숭유억불’ 시대에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노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인 것에 대해 평소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그 의문이 풀렸다. 월성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와 학계에서 신미 스님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산김씨세보>와 복천암에 보관되어 있는 <복천보장>과 <이조실록>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얇은 책자도 만들었다.

월성 스님의 방에는 유화로 그린 금오 스님의 영정이 걸려 있다. 은사인 금오 스님에 대한 존경심은 월성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배어있다.

“우리 스님은 참선하는 사람을 좋아하였고 계율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바로 불벼락이 떨어졌어요. 내일 떠난다고 날을 받아놓아도 오늘 밤까지 지게 지고 나무해야 했지. 여기에 대해 토를 달면 ‘네가 이곳에 이렇게 나무를 해놓으면 네가 가는 그곳에 나무 해놓는 것과 같다. 이곳에 이렇게 나무를 해놓음으로서 네가 그곳에 가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은사스님의 이 말씀은 평생토록 수행의 길잡이가 된단다. 절에 사람이 아홉이면 지게가 아홉 개였으며, 금오 스님 역시나 상좌들과 같이 지게를 졌다고 한다. 금오 스님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칠십을 바라보는 월성 스님 또한 아직도 도량석 하시고 새벽 예불 올리신다. 이것이 불제자의 도리라 한다.

대웅전 뒤편으로 해서 산을 한참 올라가니 신미 대사의 부도탑이 눈에 들어왔다. 부도탑전에서 삼배를 올리고 산을 내려오니 어둑어둑해지더니 산중이라 금새 해가 떨어졌다.

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한방(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동일한의원
50M
죽전네거리
연지카바레
어촌마을횟집
구병원
두류네거리
성서IC
☎ 053)552-8800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29 치아미백

치료 후에는 커피·초콜릿 섭취 피해야

안면부위 중에서도 입 주변과 치아는 끊임없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부위 중의 하나다. 때문에 말할 때,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의 색깔이나 형태는 외모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웃을 때 손으로 가리고 다소곳하게 웃는 것이 정숙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덕목이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여성도 건강하고 자신 있게 활짝 웃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식된다.

주변에는 누런 치아색 때문에 콤플렉스를 갖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지금보다 더 밝고 매력적인 미소를 갖고 싶은 사람은 남녀불문하고 치아를 하얗게 하는 치아미백술을 받으면 좋다.

치아 변색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거의 모든 경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음료(콜라, 커피, 홍차 등) 및 음식물(초콜릿, 카레 등), 흡연 때문이다. 섭취물 등에 의한 착색 물질이 치아표면인 법랑질 부위의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침투해 착색을 일으켜 치아변색을 유발한다.

유년기의 항생제나 불소의 과잉 섭취도 치아변색의 원인이 된다. 테트라사이클린이란 항생제를 영구치 형성시기에 복용하면 치아에 회색이나 검은색 띠가 생긴다. 우물이나 샘물에 불소나 광물질이 과량 포함된 경우 역시 영구치 형성시기에 이를 섭취하면 치아에 노랗거나 갈색의 반점이 형성된다.

한 개 또는 두 개정도의 치아만 회색이나 검은색, 분홍색 등으로 변색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외부충격에 의해 다친 치아 내의 신경조직이 변성돼 치아색이 변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변색된 치아만 신경치료 후 간단한 미백과정을 거쳐 원래의 치아색을 회복이 가능하다.

치아미백술은 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에 착색된 물질을 빼내는 과정이다. 치과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미백 시스템을 사용해 치아를 삭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아를 변색시킨 물질을 탈락시켜 희고 밝게 만드는 방법이다.

치아 미백 치료방법에는 치과에서 특수광선을 이용해 단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미백하는 전문가 미백이 있고, 치과에서 자신의 입안에 꼭 맞는 미백틀을 제작 후 미백용 젤을 미백틀에 넣은 후 하루에 3~4시간씩 착용해 미백하는 자가 미백이 있다. 자가 미백은 전문가미백보다 효과가 떨어져 보통 전문가 미백 후 수년에 한번씩 터치업 미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새하얀 치아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하얀 치아를 잊지 못해 주기적으로 터치업 미백을 하게 된다. 터치업 미백 주기는 개개인의 식습관, 흡연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

치아 미백 치료는 의사의 지시사항에 잘 따르면 아주 심한 변색이 아닌 경우 97% 이상의 효과가 있다. 다시 착색이 되도 처음 색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양호한 하얀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다.

치아 미백치료 후에는 착색이 잘 되는 음식인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카레, 진한 색의 쥬스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양치질을 하거나 물로 입 안을 헹궈 내는 것이 좋다. 미백제 치료에 사용한 치아 틀은 보관했다가 주기적으로 터치업 미백에 사용하며, 6개월~1년마다 스켈링을 받는 것을 권한다.

간혹 시중에 판매되는 치아 미백 관련 상품들이 있다. 이 제품들은 치아에 직접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미백은 치과의사의 정확한 검사와 진단 후에 자신에게 맞는 치아미백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02)776-2882



청오 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❶

'香의 소리' 에 귀 기울이면…

지금 만드는 향은 일생을 돌아온 것 같다. 13세 나이에 대구 대명동에서 독립 운동가며 정각향 창시자인 송전도 할아버지와 인연이 돼 향을 배웠다. 고창골로 느릅나무를 캐기 위해 할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우리 산의 나무, 잎, 뿌리, 열매 순수 토종 향을 만들었지만 맑은 향기는 커녕 음숙한 내음은 어린 내게 향기롭지 못했다.

일본 등지에서 외국향이 보따리 장사로부터 마구 들어와 국산향이 천대받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40여년 전 시내 상점에 위탁판매를 위해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찾는 곳마다 할아버지의 향은 할아버지에 대한 안면으로 받아주기는 했지만 상점 구석 한 모퉁에 장식되기 일쑤였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진열된 것을 보고 어린 생각에 힘이 빠졌다. 집에 돌아와 쇠 절구에 향을 찍고 뭉치는데 심통이 났다.

"팔리지도 않는데 만들기는 왜 하는



지" 혼자 중얼거리며 '꽝꽝' 쇠 소리로 짜증을 내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귀고막이 터지도록 큰소리로 화를 냈다. "이놈아! 향수냄새, 분 냄새가 그리 좋으면 코에다 향료를 쳐 바르고 다니라 케라. 우리가 만드는 향! 이것이 향이여. 사람을 살리는 향이고 선신이 응감하는 향이란 말이다."

할아버지는 역성을 내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다. "향은 내음으로 맡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향에서 나는 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윽한 향성에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가 만드는 향이 더 귀한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향 만드는 기계, 건조기, 향 분말 등을 모두 전하며 "우리 향을 잘 이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생각에 다시는 향을 만들지 않겠다며 맹세하며 모두 버렸다.

하던 일이 없어져 막상 일을 찾아 부산으로 와 헤맬 때 부산 좌천동 K내과 의원 앞에서 어느 스님을 만났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절에 들어가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 큰 인연임을 깨달았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그 분이 바로 통도사 홍법 스님이다. 큰스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저는 그동안 겪은 일을 상세히 말했다. 그리고 출가의 뜻을 밝혔다. 간절히 거듭 절을 올리며 며칠을 문 앞에서 허락을 기다렸을까?

얼마 후 홍법 스님은 내게 '상대'라는 법명과 함께 "통도사 말사 창녕 삼성암의 현파 스님을 찾아가라"고 말했다. "그곳 주지가 사제니 이 편지를 가져가 시키는 대로 잘 하거라"는 홍법 스님의 말을 따라 이별을 했다. 그것이 홍법 스님과는 끝이었다. 삼성암에 머물며 새벽 도량석도 돌고 나무도 하며 수년을 보냈을 무렵 월하 큰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계하고 정식 승려가 됐다. 승려가 되서도 가파른 산길에 차가 다니도록 길을 만들었고 땔나무도 했다. 절살림까지 맡게 돼 절집에서는 '원주스님'이라고 불렸지만 일꾼이 더 어울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덧 군대를 가게 됐다. <계속> (055)941-1083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0 진달래화전두릅말이

두릅은 산채(山菜)의 제왕(帝王)이라 불린다. 우리가 먹는 두릅에는 나무두릅, 민두릅 그리고 땅두릅이 있다. 세 종류를 두릅이라 부르지만 엄연히 다르다. 참두릅(나무두릅)은 잎자루에 가시가 돋아 있고 잎의 앞과 뒷면에 회색이나 황색의 가는 털이 나 있다. 잎과 잎자루에 가시가 없는 것을 민두릅이라 한다. 두릅은 흔히 산나물로 불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릅나무의 어린 순이다. 두릅순은 가지 끝에 달린 산채란 뜻의 목두채(木頭菜), 늙은 까마귀발톱 같은 가시가 있다고 해서 자노아(刺老鴉), 용의 비늘과 같아 붙여진 자룡아(刺龍芽) 등 여러 이름이 있다.

참두릅·민두릅·땅두릅 등 세 종류

두릅나무 껍질 당뇨병 약재로 사용

참두릅(나무두릅)은 두릅나무 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자생한다. 두릅은 키 3~6m의 낙엽활엽관목으로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넓은 계란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하다. 잎줄기와 잎에는 가시가 있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뒷면은 회색이다. 꽃은 7~8월에 산방화서를 이루며 흰 오판화가 줄기와 가지 끝에 모여 핀다. 두릅나무의 껍질은 당뇨병과 신장병의 약재로 쓰인다. 최근에는 잎보다 뿌리나 껍질 쪽에 독성 없이 혈당치를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됐다.

민두릅은 줄기에 가시가 없어 관리하기에 용이하며 새순의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이다. 일부 민두릅 품종은 내한성이 매우 약해 남부 · 제주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한 품종이다.

땅두릅은 오가피나무 과에 속한다. 고지대에서 자생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재배된다. 여러해살이풀로 비교적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 '독활(獨活)'이라고 불린다. 독활은 한약재로 쓰이는 땅두릅 뿌리를 말한다. 이른 봄 땅속 뿌리에서 움이 돋아 7~8월부터 연한 녹색 꽃이 피고 8~10월에 열매를 맺는다. 단백질, 당질, 섬유질과 철분, 비타민 B1, B2 등 영양성분뿐 아니라 인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도 있다.

땅두릅의 줄기와 잎은 채소로 이용된다. 뿌리는 발한 · 부종 · 거풍 · 진통 · 관절염 · 반신불수 · 혈관확장 등에 약재로 쓰인다. 한약재로도 이용돼 약용 및 산채(山菜)식물로 인기가 높아 점차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진달래화전두릅말이

재료 : 두릅, 메밀가루, 진달래, 식용유, 고추장, 식초

만드는 법

①두릅은 떡잎을 다듬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뒤 바로 얼음물에 헹군다.

②메밀가루는 전 부치는 반죽으로 개어 전을 부친다. 부침 위에 진달래꽃을 올려준다.

③진달래 부침을 두릅 위에 올려서 둘둘 만다.

④고추장과 식초를 넣고 초고추장을 만들어 접시에 담는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재)한중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입종안내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종정 성 수(聖壽)

원로원장 관 각(觀覺) 종회의장 경 공(經供)

총무원장 법 광(法光) 사정원장 성 해(性海)

♠ 입종 구비서류

(1) 입종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호적초본 1통 (4) 여권용 사진 4매
(5) 승려증빙서류 (전 종단 승려증, 사찰 등록증 사본)
(6) 사찰 전경사진 (내외)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영화·광고 속에도 '불교코드'가 숨어있네?

인간의 삶과 욕망이 그대로 반영되는 대중문화의 대표 매체로써 기술문명의 중심부에 영상미디어가 있다.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苦)과 괴로움의 원인(集), 괴로움의 소멸(滅)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道)을 대변하는 이 시대의 거울이 바로 영상미디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언명제는 무수한 인연의 결합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 인연의 의미는 다양한 인간만큼이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간의 복잡한 경험담은 영상미디어의 주요 소재거리가 된다. 차가운 스크린 혹은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군상들 속에서 인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공간을 아우른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수미산의 겨자씨 비유처럼 인간은 진실한 실제를 살아가기 어렵다. 인간이 집착하는 실제에서 벗어나 궁극의 자유로운 실제로 향하는 여정을 영상미디어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 최근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불교 메세지에 주목한다. 각각의 주인공이 나름대로 펼쳐 보이는 인생사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며 밝은 미래를 향한 자유의지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 영상미디어 속에 나타난 불교사상

극장애니메이션: 〈쿵푸팬더〉

게으름의 상징인 팬더가 쿵푸를 한다? 극장애니메이션으로 온가족이 함께 관람 가능한 <쿵푸팬더(드림웍스)>는 코믹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평화의 계곡, 대대손손 이어져온 국수집에서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국수배달을 하던 팬더 '포'가 마을의 현자 '우그웨이'로부터 용문서의 전수자로 점지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쿵푸라고는 전혀 모르는 평균 수면시간 22시간, 이동속도 시속 30cm, 키 120cm에 몸무게 160kg인 초고도 비만팬더 포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런 포가 못미덥지만 '예언의 인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쿵푸 마스터 시푸 사부와 수제자들은 기상천외한 특별훈련으로 포의 훈련에 함께한다. 타고난 몸치에다 식신인 함량미달 팬더의 쿵푸 영웅 도전기는 '내 안에 잠재된 참 나'를 깨우는 과정이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금씩 쿵푸 마스터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에서 모든 해법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TV광고: 〈CYON와인폰〉 〈니콘D300〉

"스님. 삶의 지혜란 어떤 건가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큰 걸 볼 줄 아는 것이지." "그럼 큰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답한다. "돈 주고 사라 이놈아." 유유히 흐르는 물길 위에서 인생이란 조각배를 타고 가며 스님에게 삶의 지혜를 묻는 핸드폰 광고다. 와인(WINE)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내외부 LCD화면을 키우고 기능버튼을 한글로 표시한 제품의 특징을 '크다'는 컨셉으로 압축하였다. 구매 대상 소비자의 고민을 불교의 선문답과 연관 지은 TV CF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게 하겠다.' 니콘(Nikon) 카메라가 지닌 사실적인 색감 표현과 다큐멘터리 작가에게 느껴지는 진중하고 순수한 열정을 효과적으로 살린 TV CF이다.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내의 바이욘 사원을 배경으로 자연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스타모델 비(정지훈)를 기용하였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불교의 사마타(止)·위빠사나(觀)와 같다. 도성제로서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八正道)는 무상(無常)한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공(空)한 진리로 향하는 수행법이다. 불교문화유적지에서 수행자를 바라보며 읊조리는 사진작가의 독백이 진실로 어필한다. 헤아리기 어려운 태고적 불교문화의 신비를 제품의 독자성과 연관 지었다.

드라마: 〈일지매〉의 공갈아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소?" 공갈아제(안길강)는 수·목요일이 되면 한양 남문 저잣거리로 탁발을 나선다. 억눌린 서민의 가슴을 후련히 해주는 드라마 <일지매(SBS)>속 아제의 직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극중 봉순의 양아버지이기도 한 아제는 귀여운 부녀공갈사기단이다.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아제는 삶에 욕심이 없다. 과거 잘나가던 왕의 호위무사로 인조반정에 가담하면서 살생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 후 승복을 입고 서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한다는 짓(?)이 사기행각 연발이다. 만날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만난다 했던가. 자신이 암살했던 인물의 아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 일지매(이준기)와의 가슴 아픈 인연으로 무술을 전수한다. 공갈아제는 조선시대 억불정책 속에서 행색은 초라하지만 강인한 내면으로 부조리한 계급사회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승려이다. 배우 안길강은 "드라마의 배경이 조선시대 중기이지만 모티브만 따랐을 뿐 현시대와 견주어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윤택함이 나아졌을 뿐 공갈아제는 허구와 정의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말했다.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동안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업(業)의 굴레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퓨전 사극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의 한 장면.

▼가수 '비'가 출연한 '니콘 카메라' CF의 한 장면.

▼SBS 드라마 '일지매'의 한 장면.

"라다크의 생명윤리 불교와 通해요"

제5회 서울환경영화제서 만난 〈오래된 미래〉 헬레나호지 감독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보여주는 위기는 생명의 존엄함입니다. 다행이도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인류가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난 5월 28일,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1993)>가 제5회 서울 환경영화제 '문명의 저편' 섹션에서 상영됐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라다크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인류의 대안을 찾는 내용이다. 이어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감독(사진)과 함께 작품의 제작 배경과 세계화·경제화에 맞선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감독 헬레나 호지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생태운동가이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자리한 인도 북부의 라다크에 방문한 이후 16년 동안 거주했다.

"라다크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는 재해석됩니다. 라다크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의 소중한 후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밀접한 상호 관계입니다." 수세대에 걸친 라다크의 자연 활용법은 낭비하지 않는 삶에 있다. 천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라다크의 자연 친화적인 경제학은 불교와 통한다. 1만 6천 피트의 험한 산세 속에서도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정신적 기반이 불교다.

지난 20년 동안 라다크는 현대문명에 개방됐고 인도로부터 문명의 이기가 들어온 이후 전통문화는 파괴되었다. 현대화는 모든 가치관을 흔들었다. 충돌과 폭력으로 파괴된 오늘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의 라다크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그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간 정신의 각성은 타인들 그리고 자연과 연결됨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안의 세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고리임을 깨우쳐야 한다.

가연숙 기자

문화 소식

대만 화가 호쥔밍씨 작품展



이태원에 위치한 표 갤러리 본관에서 6월 13일까지 대만의 유명화가 호쥔밍(Hou Chunming)의 대형 작품전이 열린다. 신적인 존재와 영접하면서 내면을 탐구하는 작가 호쥔밍은 수도자와 같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만다라적인 시각이미지로 표현해왔다.

그의 작업 세계에 나타나는 많은 신들은 대만의 토속신앙에 뿌리를 둔다. 그의 작품은 자아성찰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동양의 사유를 대변한다.

가연숙 기자

법만 스님 염불CD 8집 발표

법문가요와 향토가요로 알려진 법만 스님(법만사 주지)이 마음의 안온함과 고요함을 일깨우는 염불CD음반 8집을 묶어 출시했다. 불자들이 기도를 하려해도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일상의 염불로 일념(一念)에 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온 스님의 성과이다. 총 제작기간 1년 반, 염불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전만을 독송했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배우면 덕스러워집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목탁 집전과 독경의 고저로만 전달되는 생생한 염불이다. **가연숙 기자**

2008 환경의날 기념 사진展

환경재단은 6월 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문화홀에서 마음의 정원 사진전을 연다. 자연이 주는 사색과 영감, 생명의 기운, 자연과 인공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 지배와 순응의 순환 고리를 고민해온 사진작가들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 자선 경매된다. 그 수익금은 아시아지역 물 부족 국가의 '생명의 우물'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사색의 걸음을 옮기다' '생명의 기운을 느끼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로 총 40명의 작품 80여점으로 구성되었다.

가연숙 기자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포교원장 무원 도일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관상학最高의 秘書
면상비급
절찬리 판매중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面相秘笈
小通天 <史廣海> 著
최익영 편역
청학
4×6변형판 / 432쪽 / 값 25,000원
▣ 관상학을 배우면?
첫째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과 고객이 차별화되어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고객중심의 상담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출판사

이 의식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나, 정확한 의식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 다른 페이지를 찾지 않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新刊 通用佛教·齋禮儀範 案內
불교의범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송주편 / 제 2장 예경편 / 제 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 제 5장 모든법회 / 제 6장 방생
제 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 8장 점안편 / 제 9장 이운편
제불보살 파불의식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재례의범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시식편 / 제2장 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제4장 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제 7장 靈魂結婚篇
通用佛教儀範 新編에서 無說까지
通用齋禮儀範 新編에서 無說까지
불서총판 책나라 02)739-7451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법이다.
기도의 비밀 The Secret of prayer
화재의 신간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중생의 고통을 보듬는 관음정사에 오시면
선택 기도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웃음보살 불퉁거사 <1>

구성 : 김 흥 인



소금만 먹은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나. 그는 어느 날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싱거워 맛이 없디고 불평하였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음식에 소금을 넣어 주었디. 그는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생각하였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일 것이다.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는데 하물며 많이 넣을 때와 견주겠는가'고. 그리하여 그는 무지하게도 소금만 먹었다. 그 결과 입맛이 틀어져 도리어 병이 나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외도들이 음식을 절제해서 도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일 또는 보름 동안 음식을 끊은 결과, 배만 고파시고 깨달음을 얻는네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도 이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처님의 제자
설법 제일 부루나 존자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도부루나(闍婁那)존자, 1673년간행, 불암사판, 27.2×18.0cm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중의 한 장면이다. 부처님의 십대제자중의 설법제일인 부루나 존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분이다.

부루나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 가비라성 근처의 부호이며 국사인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세속생활에 안주하지 못하고 친구 삼십 명과 함께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 수행하다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출가하였다. 이 판화에는 부루나 존자가 친구 삼십 명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출가하는 모습을 히말라야 산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 부루나존자가 다시 주목 받는 이유는 부루나의 생명을 던져 포교하겠다는 전법의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삽화 이면에 숨어있는 부루나 존자의 전법의지를 다시 새겨 보지 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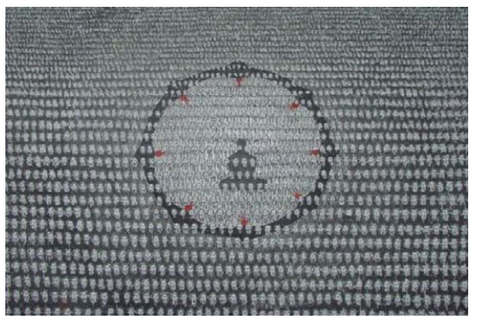
어느 날 부루나존자는 불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루나국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부루나여 그곳 사람들은 성품이 사나워 거친 말을 잘한다. 만약 저들이 비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저들이 저를 비방하면, '이들은 현명하고 인정이 많으므로 때리지는 않는구나.' 하고 마음 쓰겠습니다." "부루나여, 만약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때엔 '저들은 현명하고 인정이 많으므로 칼로 해치지는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루나여, 만약 칼로 해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때엔 '저들은 현명하고 인정이 많으므로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루나여, 만약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때엔 '저들은 현명하고 인정이 많으므로 언젠가는 무너져야 할 육신을 죽임으로써 모든 속박을 해탈케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루나여, 그대는 잘 수행하여 인욕을 얻었도다. 그대는 수루나국에 가서 불법을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해탈의 경지에 나아가게 하라."고 격려하며 수루나국에 가는 것을 승낙하셨다.

우리는 이제 설법제일 부루나존자의 전법의지를 본받아 쓰러져가는 불법의 등불을 이 땅에 방방곳곳에 펴져 나아가도록 다시 한 번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자신의 소리에 귀기울여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남의 애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남의 애기를 함부로 듣지 않는다.

고요히
자신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에 귀 기울인다.

헐떡이는 숨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물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없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삶이란...
한 숨 한 숨 고르게 내 뿜는 것,
고요히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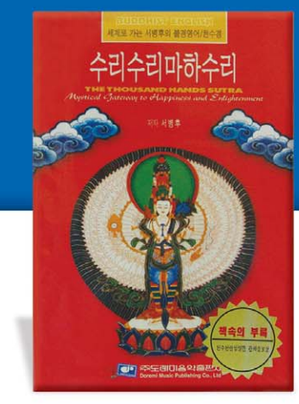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현대불교 제 682호 2008년 6월 4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주 · 역학 · 비법전수
순한글과 숫자로만 30일을 공부하여 복없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참제자를 구합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사주를 통달함
(스님,법사,일반인 출장지도)
010-5668-5775
보현불교 역학대학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서울근교 대작불사중
• 40-50대 사무장(女),
• 30-40대 총무(女)
• 화주보살 모십니다
(나이 제한 없음)
010-4540-334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 효능: 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초능력 기공비법 무료전수
※봉사활동으로 평생직업 무료전수
㉮ 수강료 납부 곤란한 재정 형편자
㉮ 고졸이상의 신심견고한 불자여성
㉮ 40~50세의 숙식가능한 불자여성
㉮ 참신성 진취성에 걸림없는 불자여성
031)753-8484
011-354-8484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氣 치 료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각종 질병
(대체의학 비법전수)
중국교포 출장 방문
010-9137-1667

신비의 일침요법 및 기치유 전수자모집!
일선의 포교에 힘드신 스님과 포교사님들께 23년간의 임상 노하우를 전수 합니다.
1개월이면 누구나 즉시 현장에서 통증을 없애는 신비를 발휘합니다.
속성비결 책임완성까지!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요*
▷개강일 : 2008년 5월 24일 토요일
* 스님 및 포교사 특혜 *
041)576-0633
네이버에서 '연화도법'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인덕사 주지 도안 합장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수강생모집
명리 · 궁합 · 택일 · 작명 · 육효 · 자미두수 그 외 기초반, 중급반, 연구반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
역학연구 30년 유명교수 강의 속성완수
032)508-0381
019-9007-9746
인천 불광사

몸이 아프십니까?
목 어깨 척추 짝다리 등등
고질통증(허약,의욕,기력 상실자)기공활법교정
* 빙의 천도재,구병시식,신병,효력 못 본분
* 무료결혼식 올려드려요(晩婚)
인생사 www.mukuk.net 치세요
성왕사 무극합장 10~12시 전후 상담
TEL 02)835-2955
010-3817-3387
온라인 농협 712-12-003387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역학개인지도
한문을 전혀 몰라도 한글로 한달만 배우면
(역학,사주,신수,재수 등)을
통달하는 비법을 1대 1로 전수해 드립니다.
052)264-8183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2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공양주 및 법당 보살 구합니다
▷개원사
053)981-0995
016-400-0664

청정한 나반 도량에서 수행과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보시금 월 100만원)
▷울산
052)275-0829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3)832-6148

기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정법도량입니다
011-9317-9181

약사기도도량 약천사에서 같이 도량을 운영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30대 후반 40대 초)
▷전남 구례군
061)781-6328
017-621-632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스님)
▷지역 : 경주
052)243-3881

버스기사 구함
53세 이하 불교신자로
서울이나 서울근교
거주자로
출퇴근 할 수 있는 분
▷남현동 관음사
02)582-8609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경관이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시내 사찰
010-9377-70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서울 도봉산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
하실분 모십니다
1인1실(선착순)
02)954-9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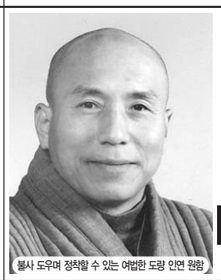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5290-37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진해지역
055)552-51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54)772-4133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61)755-8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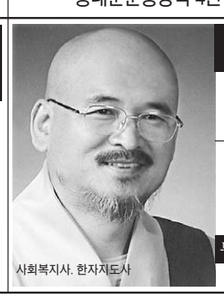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불사 도우며 정책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 인연 원함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비구승 무진장 합장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담결림
㉮ 장기 병원치료 했으나 효과없는 각종신병환자
㉮ 스님 포교사 기치료사 코치감독단장 비법전수
㉮ 무속인 지압시술 및 신묘한 령적비법 전수
※중국 초능력기공사 초빙 치료기법시술 및 전수
031)753-8484 / 011-354-8484
청계암 주지 만허 합장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총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레이키(Reiki · 靈氣)가 왜 화제인가?
레이키(Reiki · 靈氣)는 배우기만하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있고 전세계의 수천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생명에너지(氣)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 많은 성직자와 일반인들이 배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동서양식 레이키는 세계의 여러갈래의 레이키를 융합한 것입니다.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은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에는 소리파동요법, 약식제령법이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20여년간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일본 등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와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인터넷 : www.Reiki.co.kr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팩 스 : 02)720-5720
핸드폰 : 010-8392-2557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수강료 :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4기모집
6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6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을 맡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전화로도 가능)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진주 사천
- 총평수 : 8,000평(100% 사용가능)
- 종교용지 및 버스주차장
- 법당 30평, 산신각 20평, 관음전20평, 대중방 15평, 요사채 70평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24억원 반값매각(개인사정 급)

임 법 당
- 위치 : 부산 범일동
- 대지평수 120평(시유지)
- 건물 :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화장실(초현대식)
- 마당 5층 석탑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 (온양 근방)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260평
- 가액 : 3억

- 위치 : 경기 화성
- 법당 및 요사 : 60평 (임법당 사용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임)
- 부지 : 230평
- 가액 5억

- 위치 : 서울 종로
- 법당 : 28평(2층)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북구 소재
- 법당 : 40평 (임법당, 방 3개)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 특징 :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설A급 도심포교당임

-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 부지 : 200평, 종교용지 법당 30평
- 목조, 단청, 요사 3동 80평
- 기타 : 산신각, 종각, 석등
- 가액 : 6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역사 깊은 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20-0455/서울 010-5828-0455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영동역 2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복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대지 200평, 300평, 600평, 1000평
- 평당 13만원

010-3545-9992
043)732-27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720평, 법당50평, 30평 요사채30평, 종무소 20평
- 가액 : 13억원

대구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진신사리 봉안
-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시장삼거리
- 50평(2층 건물중 2층)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급하게 쓸 역학도 가르쳐 드림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천만원

010-9115-6831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7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적합
- 가액 : 2억원

011-9920-122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송
- 대지 : 1223㎡
- 요사 : 37평 법당 : 1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0-8861-9856

수행과 포교하기 좋은곳 양도

- 위치 : 대전시
- 2층 건물에 2층 50평
-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공원과 산이 있어 포행하기 좋음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천만원
- 관심있는분은 직접방문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010-9315-9191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천호역 5호선 부근
- 버스, 시장, 주변생활 아주편리 살림가능, 난방 도시가스
- 3층 건물중 1층(23평)
- 법당, 방, 주방, 뒷마당 화원. 시설A급
- 현재 운영중
- 보증금 6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400만원
- 해외 이주관계로 급 안내함

010-7135-40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양 도

- 위치 : 강원도 지정면 문막 나들목에서 10분거리 개발지역, 옛날 한옥 두채(2동)
- 부처님, 삼존불 모셔져있음 용왕, 산신 구비
- 땅 21000평, 10000평 분할가능, 진입도로 연결
- 스님 요사채 1동 공양간 20평, 대형방 약20평 대중처소 1동(방9개)

010-7101-0858

대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국도변
- 대지 2000평, 사과원 700평 임야 12000평, 미륵불발견 대웅전 70평, 요사채 90평
- 가액 9억

- 위치 : 경북 북부 읍소재지
- 대지 130평(대로변 중심가) 대웅전 42평, 상가건물 30평
- 가액 4억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1-538-2211

포교당 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절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현재 가옥있음 강이 내려다 보이고 2차선 도로변
- 평수 : 총 2300평
-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 4억2천만원. 별장가능

010-7658-0330
010-4172-512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 평수 : 80평
- 3층 건물중 2층
- 보증금 1000만원, 월62만원 시설비 : 2500만원 시설완비, 즉시법회가

010-2914-353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 법당 30평, 산신각10평 요사채 30평 2동 납골탑 100기 시설
- 가액 : 1억 8천만원(전세 가능)

010-9115-683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경시장 입구
- 평수 : 약 30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만/월45만원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017-288-68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에서 10분거리
- 평수 : 565평 (대지 200평, 전 365평) 건물 4동(법당 포함)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 ※뜻있는 분만 연락바랍

010-5074-3012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3동(금정시장입구)
- 단층 23평 (방1, 주방, 거실)
- 가액 : 7천만원 (상담 후 절충가능)

051)343-5515
011-9328-07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대로옆(항공산업도시)
- 대지 : 42.5평(07.11월 준공) 시부지 터밭 약간
- 1, 2층 각24평 골조 5층 설계 2층 : 법당 15평, 방2, 주방1 7평 원룸식(개조가능) 포교원, 시민선방, 친견소 최적지, 현 기도중
- 가액 : 1억4천만원(절충가능)
- 사유 : 건강상(꼭 필요한분만)

010-4668-2061
(부재시 음성녹음요망)

사찰(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최고의 명당 자리)
- 정남향 약 2,000평
- 평당 23만원

010-3524-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 대웅전10평, 요사채25평 현 문중땅 300평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3,500만원

010-3762-304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산1번지 여래암
- 대지 170평, 법당 36평 요사채 방 2칸 (앞 에 바다가 잘 보임)
- 가액 : 1억6천

011-9424-1005

사 찰 안 내

- 경치좋은 산사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 대지 252평 전답 730평(국유지)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황토집 기와 방5
- 등기필, 조립식 1동
- 가액 : 1억8천만원

018-406-3073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 3층 건물중 2층 46평
- 법당, 방3, 공양간 인등, 원불, 평생위패 봉안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주차장 완비

011-9424-477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마산 대우백화점 근처 해안로 변
- 평수 : 3층 건물 3층 80평, 4층 옥상 20평
- 법당 수련실 공양간 기타
- 시설비 1억 소요됨, 절충가 3,000만원 전세 1천만원, 월70만원
- 사정상 (급) 안내. 꼭 하실분 만

010-2586-56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건평 25평(흙벽돌 새집) 대지 : 국유지(임대가능)
- 주위 소나무로 둘러싸인 청정지역 삼봉해수욕장, 해변까지 도보 10~15분
- 가액 : 3천만원
- 자세한 사항 전화문의

010-5447-5989

암자(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금정마을(주차유)
- 대지 : 62평 ●법당 27평
- 삼본불, 지장단, 산신당 2평
- 요사 : 방 2, 서실 등 공양간 27평 입구별도, 다용도실 4평 전기판넬(다락유)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융자 6500만원)
- 직접방문 후 결정, 절충하세요

011-842-6123 (주지 직)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포 교 당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061)544-048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자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 최고의 시설,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011-9850-134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포천시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46평
- 2층 건물중. 1층 : 종무실, 공양실, 주지실, 화장실 2, 방 5, 2층 : 대웅전(47평) 별채 : 약 50평 건물, 위패단 및 지장도량
- 모든 집기 그대로 양도합니다
- 가액 : 15억(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월근교
- 산좋고 물좋은 경치좋은 동강 앞
- 대지 200평, 전 570평 군부지 약600평 사용중
- 법당 16평 신축 요사채 35평
- 가액 : 2억3천만원(절충가능)

011-792-8969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령(신촌유원지 옆)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 요사채, 큰방4, 현대식 주방2, 목욕탕, 실내화장실,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 : 큰방 2개. 현대식 신축
- 2007년 5월 올수리 14억원 들었음
- 가액 : 6억(융자 2억있음) ●주인직접 급 양도

011-869-8608
011-872-707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1-9725-31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3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 1억 2천만원

010-3553-7897

사 찰 양 도

- 위치 : 경산시 용성
- 대지 237평, 텃밭 665평 합 902평 법당 약20평, 요사 30평, 심야보일러
- 동불 3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 마당까지 차 진입
- 양도가 : 2억 2천 5백만원

011-509-0124

불자정보 계속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8>
(修習止觀坐禪法要)

정수행(正修行) ②

마음따라 일어난 제법은 그 자체가 공적

二者制心止 所謂隨心所起 卽便制之 不令馳散 故經云 此五根者 心爲其主 是故汝等當好止心 此二種皆是事相 不須分別

두 번째는 마음을 제어하는 '지' 수행인데,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 제어하는 공부이다. 이것은 망념을 조복받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마음을 한 경계에 묶어놓는 공부와는 동일하지 않다.

마음을 제어하는 공부는 자기 마음을 은미하게 관조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따라서 관찰하는 것으로, 그 일어난 곳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가령 탐욕이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탐욕을 놓아버리고, 진심이 일어나면 진심을 놓아버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역시 놓아버려야 한다. 어떤 생각이든 일어났다 하면 그 일어난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 망상을 조복받아 마음이 밖으로 치구하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공부이다.

의근은 육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분명하고 날카롭기 때문이다. 탐진치를 일으키고 도적질과 음행을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식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대체로 마음이 움직이면 경계도 따라서 움직인다. 따라서 여러분이 도를 닦으려 한다면 반드시 망상을 정지하여 산란한 마음이 외부경계로 치구함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이상의 두 가지 '지' 수행은 모두가 겉으로 드러난 사상(事相)공부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三者體眞止 所謂隨心所念一切諸法 悉知從因緣生 無有自性 則心不取 若心不取 則妄念心息 故名爲止 如經中說云
一切諸法中 因緣空無主 息心達本源 故號爲沙門

여기에서는 본성 이치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점점 깊고 은미하여 앞에서 나왔던 사상공부처럼 드러나게 알 수는 없다. 따라서 근본이치 자체에서 관찰하여야만 한다. 즉 마음이 생각하는 일체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법은 크게 요약하면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보라는 것은 산하대지와 초목 총림이고, 정보는 오음색신을 말한다.

의보와 정보, 이 두 가지 법은 인연화합을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두 가지 법이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다면 다시 인연을 따라서 소멸하는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허깨비 망상을 제법이라고 칭한다.

인연따라 일어난 것은 인연이 분리되면 소멸
진여성공의 이치 체득하면 분별심도 사라져

그렇다면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있다 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멸거래를 구하려 해도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은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심성에서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망한 모습이 없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일어남이 있으면 소멸함이 있고, 흘러옴이 있으면 떠나감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허망한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났다면 허망한 인연이 분리되면 소멸한다는 점이다.

인연을 의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진실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인연을 의지해서 소멸하였기 때문에 소멸 역시 참다운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 그 당체가 자체라고는 없는 것이다.

제법이 일어남이 없다면 진실이 아닌 공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존재해있는 모든 것은 중생의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다. 이미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음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만일 마음에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허망한 망상심이 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쉬게 된다. 이를 두고 '체진지(體眞止)'라고 한다. 이는 일체 모든 법은 진실이 아닌 공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면 허망한 분별심이 스스로 쉬게 된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기신론에서는 "일체 모든 경계가 망상 분별로서 차별이 있다. 망상 분별이 없다면 일체 경계의 차별상을 떠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래의 평등법신인데, 이 법신을 의지해서 중생이 본래 각(本覺)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망념을 쉬는 일이야말로 가장 요긴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망념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체진지'라고 말한다.

또 경전에서는 "일체 모든 법은 허망한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성은 공적하여 주재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그 의미를 말해보면 일체 제법가운데서 그 실체를 구하려고 하나 끝내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허망한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체가 자성이 없고, 상대적인 타성도 없으며, 자성과 타성이 공동으로 화합한 성질도 없으며,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법은 진여성공으로서 그 자체를 삼아 주재자라고는 없다는 것이다.

行者於初坐禪時 隨心所念一切諸法 念念不住 雖用如上體眞止 而妄念不息 當反觀所起之心

사문(沙門)이라는 두 글자는 불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번역하면 근식(勤息) 이라고 하는데, 뭇 선법을 부지런히 닦고 모든 악업을 쉰다는 의미이다. 계정혜 삼학을 부지런히 닦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시킨다는 뜻도 있으며, 또는 마음을 쉬고 제법의 근원을 통달하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호칭한다.

제법이 진실한 공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분별심을 쉰다면 제법의 본원인 우리의 마음을 통달할 수 있다.

수행자가 앞에서 언급한 삼종지(三種止) 수행을 해도 이익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서 일으킨 망념을 따라서 찰라찰라 천류하면서 전념과 후념이 단절하지 않고 상속하기를 마치 거대한 바다에 파도와 흡사하게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야만 한다. 이것을 두고 '관' 수행이라고 한다.

일체 제법은 모두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만일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일체법이 무엇을 따라서 일어나겠는가.

경계는 본래 일어남이 없고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경계도 따라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5) 식온(識蘊)③

안식은 단지 그 대상 사물의 색이 청색인가 아니면 황색인가 하는 등의 단순한 인식만을 하지만, 의식은 안식이 단순하게 인식한 색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추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이 단순하게 점획의 색깔형태로만 인식했던 문자 획을 종합분별해서 문장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사상체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악과 시비와 그에 따른 공과(功過), 이 모든 차별이 일제히 인식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는 전육식 가운데서 오직 제육의식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오식, 즉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은 단지 현재 목전에 마주한 경계를 자체 모습(自相)만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를 종합 통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적으로 과거 · 현재 · 미래에 걸쳐 광대하게 인식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선악업인' 일으키는 제육의식은 중생의 생사윤회를 부르는 주체

이 제육의식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육의식은 안식이 일어날 때 반드시 동시에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인식한 색경 자체상에는 의식도 역시 함께 활동을 일으켜 그것을 비교추리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이러하다면 나머지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육의식은 이처럼 법경, 즉 일체 제법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인식했던 제법에 대해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낀 감정에 의해서 일체의 선업과 악업을 조작하며 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팔식심은 모든 과보가 집합하는 총체적인 주체[總報主]이고, 제육의식은 그 총체적 과보를 부르는 모든 선악업인(業因)을 짓는 주체인 것입니다[別報主].

모든 중생들이 인간이나 천상 또는 지옥으로 윤회하면서 끝없는 미래의 새로운 과보를 받고 태어나는 일들은 온전히 제육의식이 현실로 활동하면서 순간순간 지은 선악업인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상에서 설명한 여덟 종류의 분별심은 다시 과거 · 현재 · 미래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다한 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임시적인 무더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총체적으로 '식온'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682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포항역 앞
● 평수 : 50평
● 법당 : 방3, 공양간, 종무소
● 집구조 : 아파트식 구조 해우소 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10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동 IC에서 15분거리 속리산 IC 10분 거리
● 대지 300평, 임법당 산세수려함
010-6472-792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신정시장 옆)
● 평수 : 약45평 (2층)
●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800만원, 월25만원
052)268-533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인근
● 3층 46평. 건물 내 주차장 완비
● 법당, 요사, 주방, 현대식 최상급 시설
●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보증금 300만원, 월42만원 시설비 1500만원
● 가액절충.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9308-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 (상담 후 절충가능)
010-2920-6464

절터 · 별장 · 팬션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
● 자연녹지 450평(田)
● 야산 아래 남향 4차선도로 인접
● 가액 : 2억원(급 안내)
011-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사찰하기 좋은 터
● 평수 : 1601평
● 지리산 천왕봉이 안대로 보이는 위치 (함양 병곡)
● 현재 1간 토굴 있음
● 가액 : 1억6000만원
010-6307-1162

포교당(급)안내
● 경주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 2층 법당 24평
● 요사채 기와집, 산신각
● 가액 : 8500만원
010-6288-9777

포교당 안내
● 경기도 안성시내에서 차량 10분 거리
● 연24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비구니스님 적합
010-3587-103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영월읍 동강에서 700m, 시내에서 3km
● 70년된 사찰, 법당 목조단청 25평 지장 목조단청 13평, 산신각 목조단청 8평 관음전 8평, 석불전 6평, 용왕정 4평, 요사채 30평, 15평, 화장실 2동
● 미륵석불1, 5층 석탑 2, 용탑 2
● 가액 : 3억5천 ●스님 노환으로 양도원함
011-484-0663
033)374-4459

도심속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서울 봉천동 낙성대, 서울대전철역 10분거리
● 1층 다원 (보이차, 다구판매 찻집)40평 방, 주방, 거실 지하 법당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4500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9-364-2372

사찰(토굴)안내
● 위치 : 합천 율곡
● 대지 : 300평
● 가액 : 4천만원
011-9070-1014
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칠곡 다부동 예술대 방면
● 법당 방2, 거실 마당 25평 정도
● 공기 맑은 산밑 토굴로 조용히 공부하실 분들께 적합
● 보증금 시설금 합 2,500만원
010-5063-27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부근
● 대지 220평 건물 1층 요사채 47평, 2층 법당 23평, 산신각 4평 그외 차고 15평, 심야전기
※노령으로 양도 인연있으신분 내방
● 가액 : 4억 5천만원
011-9114-99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평수 : 111평(법당외부단청)
● 건물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등 4채 방 5개 심야보일러 설치 마당에 5층 석탑 있음
● 가액 : 1억 5천5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3007-561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청량리
● 5층 건물중 5층
● 법당 30평, 마당 30평
● 천불전 불사완료됨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6천만원
010-8677-16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강동면 국당1리 142 황룡사
● 대지 406평
● 산신각, 대웅전, 요사채
● 심야보일러, 에어컨 완벽하게 설치
● 가액 : 3억 2천만원
054)762-7389
011-542-0982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2 호 현대불교
2008년 6월 4일(음력 5월 1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조금이라도 의심치 말고 진짜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부처님 모셔 놓은 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 놓은 건 방편으로 모셔 놓은 것이니 그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과 둘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의 마음도 둘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의 생명도 둘로 보지 마세요.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과 둘이 아닌 둥근 한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즉, 자기 조상이죠.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밝음이, 광력이 나와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수억겁 동안 쫓고 쫓기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으로까지 등장하게 된 사실을 아신다면, 누가 형성시켜서 그렇게 끌고 다녔나를 아신다면 지금 자기 참주인공에게 믿고 맡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내 마음 가운데 만질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 바로 핵점입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한 겁니다. 어디고 그 한 점이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불바퀴라고 합니다. 불바퀴의 그 중심, 소용돌이, 중심 한 점, 그 한 점은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에게도 왼쪽 두뇌와 바른쪽 두뇌, 양면을 작용하는 핵점이 있습니다. 말하고 작용하고 행동하고, 크고 작은 걸 알고, 좋고 나쁜 걸 알게 하는 그 핵점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 핵점으로 통신이 돼서 각 부서로다가 하달이 되죠. 이걸 누진이라 그럽니다. 그 핵점을 누진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모든 공장에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공장에 파워가 일어났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모두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줘서 그 공장의 직원들이 모두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공장에서 일어난 파워를 딴 공장에서 모두 협조를 해서 막아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병고가 많은 원인도 바로 그런 파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파워는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영계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유전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세균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업보성 인과성, 이러한 것에서 부질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서, 요게 떠나고 나면 저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좀 흥락하고 삶이 좀 싱그럽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자꾸 자꾸 들어오니까 상이 찌푸려지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가 나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진짜로 맡겨서 누진을 통해서 통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지구에도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오신통을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천안통을 천체망원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천이통을 무전통신기라고 말할 수 있고, 신족통을 팩시밀리라고 해도 되는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죠. 또 숙명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 수 있는 것이 타심통인데 그것을 탐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누진통, 즉 시쳇말로 말하면 레이더망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연락하고 또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가는 거 연락하고, 중심을 잡아서 결정을 내려서 통신을 하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생활, 우주의 섭류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의심할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숙명통이다 컴퓨터다 이러는 것은, 컴퓨터에 그냥 과거에 살던 게 잔뜩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현실에 자꾸 꾸역꾸역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컴퓨터로 비유합시다. 만약에 입력을 할 줄 안다면 그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그냥 입력을 다시 해 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놓으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입력이 돼서 자꾸 컴퓨터에서 나오니까 컴퓨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서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팔자 운명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들, 산 부처님들, 깨친 부처님들이 "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집착도 붙을 자리가 없고, 멸이다 하는 것도 붙을 자리가 없고 도라는 언어도 붙을 자리가 없다. 이 모두가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를 저기다 제가 써 놓았습니다. 아래 위 다 떼어 버리고 그냥 요지만 썼습니다. 본래 자기중심은 청정한 것입니다. 본래 자기 자성은, 본래 자기 마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청정이라 그랬습니다. '한가운데 중' 자를 써서 중심이 청정하다는 거죠.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알라. 여여함을 알라.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라. 자유자재함을 알라.' 본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모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정법이고 저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벌써 정법이면 사법이 들러붙고 사법에는 정법이 들러붙기 때문에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도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과 생명이 어떻게 둘이겠느냐." 하셨습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이랬습니다. 비구 비구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둘이 아니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만 쫓아가면서 미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인데도 미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는 둥, 비구니는 뭐 천도도 못한다는 둥, 비구니는 비구 앞에 삼 배를 올려야 한다는 둥, 상황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모두 주어진 것이고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비구니 속에서 나왔죠? (대중 웃음) 안 그렇습니까? (대중 박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계의 모두를 아버지라고 비유한다면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을 길러 주는 것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이 나고 자라는 도리를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북하면 '자궁'이라고 합니까? 자식의 집이라 이 소립니다. 집의 도리를 모르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하하….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해서 남이 이익하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진실을 말해서 언짢을 일이라면 거짓말을 쓱 해서 양면이 다 좋게끔 하는 것이 참 좋은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마음으로써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지켜보고 누가 될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남의 파밭으로 들어가든 말든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고삐를 쥐고 다스려라 이겁니다. 남의 파밭으로 들어가면 '아이, 똑바로 가야지!' 하고선 고삐를 잡아채는 것이 바로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그 모두를 그렇게 잘 다스리면서 그저 정에다 놓으셔야 잘 돌아가죠. 모든 것을 한마음 가운데다가 탁탁 놓되,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고,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굴리면서 척척 놔야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틈에서 그냥 잘 돌아가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서 '병고가 있으니까 스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건 너무 무모한 생각입니다. 얘기를 들어 드리긴 합니다. 심부름꾼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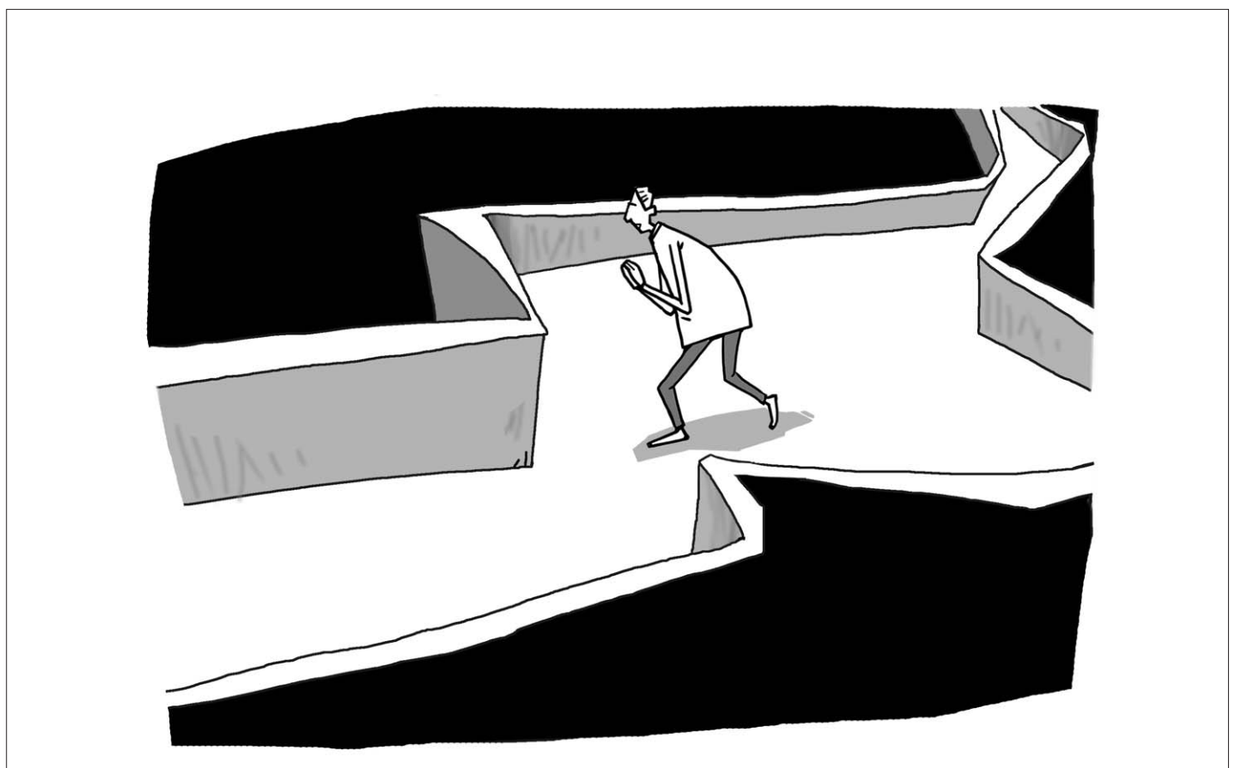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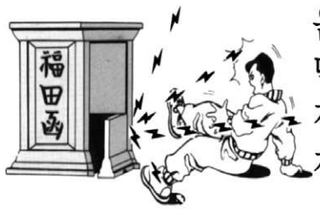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1년 (서울,경기 의식기준)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천 도 의 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개 강 일 : 2008년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5.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6.수 업 료 : 매월 10만원
7.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8.주 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모시는 글
원효성사 1391주년 숭모제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戊子)년 오월,
원효성사 숭모제 139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 총 원효종 본찰 호암사에서
대덕스님을 모시고, 원효성사 숭모제를
장엄히 봉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사대부중께서는 부루 동참하시어 원효성사의
깊은 사상을 더욱 빛내 주시길 발원합니다.
때 : 2008년 6월 7일(불기 2552년 음력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곳 : 대한불교 총 원효종 총무원 호암사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051-1번지 호암사 원효단]
전화 053)983-2157 팩스 053)986-0500
재 한불교총원효종
종 정 송 호암
사무총장 허 선관
정 세명 윤 선업

buddhanews.com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25면에서 계속

이 심부름을 해 드리려니까 들어 달라면 들어 드려야 하고, 해 달라면 해 줘야 하고, 같이 걸어 달라면 걸어 줘야 하니까요. 이것은 나라는 게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아예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모두 사랑들을 해도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 줬는데 조거는 안 그래!' 하고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여러분도 지금 자식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들 계시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까? 조건을 붙이고 줍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이 주지 않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지면 그냥, 자기가 죽든 말든 그냥 더퍽 뛰어들어 끌어냅니다. '물에서 건져 주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없죠. 바로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자비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 자비와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우리 부모의 조상이나 부처님들의 조상을 둘로 보지 마세요. 살아나가는데 엇갈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엇갈립니다. 이거는 부처님 조상 믿으랴, 육신을 낳아 주신 부모 조상들 위하랴.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한마음으로 한다면 조상들도 아주 참답게 진짜로 한마음 안에 한자리 하게끔, 즉 말하자면 해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제사를 지낼 때도 찹쌀로다 둥그런 떡 세 켜든지 한 켜든지 놓고 향, 물, 촛불, 이렇게만 해 놓으시고 합장 배례를 하시고 '한마음 주인공이시여! 모든 조상들의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과 모두가, 한마음 한자리 한도량에 모두가 운집을 하셨는데 뭐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해 놓으면 그뿐이지 뭐가 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천혼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천혼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둥그런 떡이 말이에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세계'란 말입니다. 위는 위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즉 대천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를 다 먹이고도 되남아요. 하하하…. 그 떡이 되남아요. 아시겠소? 이것이 거짓인 줄 알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참 교묘하고 아주 조금도 빈틈없는 우리 삶의 보람이로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한자리가 되는 거죠. 상에다가 조금조금 차려 놓고선 '요거 잡수시오'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 삼천대천세계 모두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주고, 자기 먹을 걸로 만들어 주고, 자기 살 곳으로 만들어 준다면 '가는 족족 내 자리이고, 가는 족족 내 먹을 것이고, 내 거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으니 먹고 먹고 또 먹어도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하는데 끝간 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거지 그저 상에다가 조금 차려 놓고 그저 요거 요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미신이 됐기 때문에 미신을 외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사람'이라는 두 글자로 불리고 있다면 진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도리를 몰라서는 안 되죠. 알아야 위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면서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전자에서부터 살면서 해 내려오던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무엇을 봐야 된다, 혼인을 해도 무슨 궁합을 봐야 된다 하는데 궁합들을 그렇게 잘 봐서 모두들 잘사십니까? 네? (대중 웃음) 그리고 이사 가는 날짜를 잘 봐서, 그렇게 손을 잘 봐서 애고도 없고 병고도 없이 다들 잘사십니까? 내가 꼭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날, 식구들이 모두 노는 날, 내가 가고 싶은 그 날이 그냥 이사 가는 날이에요. 두 남녀가 봐서 '나하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대로 궁합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주위에서 데리고 살 것이 아니니 그냥 결혼시키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그냥 엉거주춤하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노예죠, 뭐. 귀신 노예 사람 노예, 허허허…. 모두 노예가 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는 대로 노예가 되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대로 노예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에 밥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돈 갖다 놓는 거 보고서 스님 되려는 사람은 천지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이러한 기복과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없는 나날을 지내오며 관습이 아주 조잘이 조잘이 붙어서, 기복이 조잘이 조잘이 붙어서 여러분이 그냥 요기조기 갖다가 놓고 '칠성님, 명 길게 해 주시오. 독성님, 우환 없게 해 주시오. 지장님, 나를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시오. 부처님, 잘살게 해 주시오. 또는 관세음보살, 잘되게 해 주시오.' 이러기 때문입니다. 관세음이라는 것이 무언 줄 아십니까? 이름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동방에는 아촉불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세상 사바세계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름도 가졌죠, 할아버지 이름도 가졌죠, 남편 이름도 가졌죠, 형님 이름도 가졌죠, 사위 이름도 가졌죠. 아휴! 이름도 너무 많잖아요. 그 이름대로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선 그냥 자동적으로 남편 노릇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뭐 걸림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어, 너 왔니?" 하면서 자동적으로 남편이라는 건 없어지고 아버지가 금방 됐어요. 그렇게 나투어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도 자동적으로 중생들이 '아휴, 병고에 이렇게 휘달리니 이 병 좀 고쳐 주세요, 부처님!' 이러면 약사가 돼서 응신으로 나투어 주십니다. 또 '아이고, 살림살이가 늘지 않고 만날 망하기만 하고 죽겠으니 어떡합니까?' 하면 그냥 관세음으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가정에서 살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투면서 이 노릇 저 노릇 다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이 그렇게 나투시면서 사시는 거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마음이 죄 각각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막론해 놓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없는 게 부처입니다, 없는 게. 공해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 불바퀴가 그냥 부처예요, 이름 해서. 그래서 부처란 말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들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또는 자식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또는 형님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공했다 이 소립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모두가 둘이 아니게 나투면서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으니 그쯤 알라."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나투며 돌아가는 분의 이름은 많지만 그 나투며 돌아가는 분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관세음보살로 해 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돌아가는 이 자체를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입니다. 이 세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먼저 발견을 해야 찰나찰나 나투는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깨달음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담 너머로 호박 넝쿨이 넘어가서 호박 열리는 까닭입니다." 했답니다. "호박은 여여한가?" 하니까 "호박은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하더랍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두 깨달으십시오.

> 주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
> 내 마음 가운데 만질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
> 볼 수도 없는 그 자체, 바로 핵점입니다

말씀해 놓은 것이 모두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 또 길을 따라서 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니 뭐니 뭐니 전부 이름을 지어 놨지,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은 많지만 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여러분이 부처고요.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 어떤 걸로 갈라놓고 중생이다 부처다 하겠습니까.

예전에 독립군이 총을 맞고 산에서 쓰러지니까 까마귀가 떼를 지어 "까욱까욱" 하고 와서 눈알도 빼 먹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까마귀들아, 나를 보고 비웃지 마라. 비록 이 모습은 쓰러지나 나를 파먹지는 못하며 나를 죽일 수는 없느니라." 했듯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죽는다 산다도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자기를 발견해서 사시려면 생활 속에서 꼭 '내 이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하는 거다. 모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인이다.' 하고 사시란 말입니다. 관리인밖에 더 됩니까? 진짜 자기 겁니까? 관리인이죠.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거라고 한다면 슬금슬금 다 나가서 금방 곳간이 빌 겁니다. '흥, 나를 꽉 붙들어매 놓으려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니까요. 돈도 생명이 있고 돈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구에 계신 여러분이 좀더 밝게 지혜를 가지고 내 한마음을 믿고 발견하셔서 애고도 벗어나시고 병고도 벗어나시고 또 내 가정도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사회도 나라도 이끌어 가세요. 남북통일도 그렇고 마음으로 규정지어서 한생각 낸다면 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걸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모습이 없는 마음은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날 수 있고 달세계도 한 찰나에 끌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아시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지 그걸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잘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테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과 모습, 그 마음이 내 마음 아님이 없고 내 고통 아님이 없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울면 나도 웁니다. 우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변소나 어디 가서 그거를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깨치면 모든 걸 벗어 버리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난 깨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나는 아파서 우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게 되고, 즐거워서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즐거워서 웃게 되지 그렇게 되질 않습디다. 그래서 편안한 것도 없고 편안치 않은 것도 없습디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그 속에서 그냥 구르고 있는 자체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다르다고 생각 마시고 높다고 생각도 마시고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도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이날까지 높은 게 되려고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절대로 한데로 믿지 마십시오!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도 믿지 마시고, 그저 이끌어 주면 이끌어 주는 대로 세 가지가 똑바른가 보시고 이 꼼을 받으십시오. 말과 행과 뜻이 같으면 따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은….

※위 법문은 1992년 5월 24일 대구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샤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언론최초 KBS (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 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직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불자 세상보기

박 석 암
전등사 기획팀장

수목장과 포교전략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주의 국가다.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장례식장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언가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장례를 앞두고 한 번쯤은 종교에 의지한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일이다. 지인이 상주로 있는 분향소에서는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로 옆 분향소에서는 개신교의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각자 개인이 믿는 종교에 따라 장례문화도 다르다. 각 종교들은 장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장례문화를 육성하고 장려하고 있다. 장례문화와 포교는 여러모로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에서 불교상 · 장례 염불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 조금 늦었지만 바람직한 모습이라 여겨진다. 현대인은 자신이 죽음을 맞거나 혹은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대하게 될 때 종교를 찾는다. 슬픔으로 침잠돼 지쳐있을 때 정성스런 맘으로 의식을 대행해 준다면 상주로서는 큰 위안과 힘을 얻는다. 함께 의식을 치룬 상주는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신심이 굳건해지기도 한다.

장례의식과 더불어 장지도 중요한 포교방편이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하는 유교문화에 대응해 화장 문화와 수목장 및 산골 등 자연장 문화를 이끌어 왔다. 이런 불교전통 장례문화가 법제화된 것이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중 자연장과 수목장이다. 기존의 장묘문화는 매장과 납골이 대부분이었다. 이곳은 산 자의 공간과 분리된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찾기 어렵다. 또한 생활주변에 이런 죽음의 공간이 들어서면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반면에 수목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인 동시에 산 자들에겐 휴식공간으로 인식돼 자주 찾고 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죽음 또한 자연스런 우리들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된다.

사찰은 수목장에 필요한 산림과 휴게소, 식당 등이 이상적으로 구축돼 있다. 사찰 주위 산림은 우리의 큰 자연유산이다. 사찰 경내를 비롯한 사찰 주위 삼림이 풍성한 것은 스님들이 도감이라는 직책을 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켰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이런 유산으로 바른 장묘문화를 선도해 포교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불교에서는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에서 수목장을 실시해 왔다. 필자는 전등사 기획팀장으로 수목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수목장이 포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전등사의 수목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종교성향은 대체로 세 가지다. 가족 모두가 독실한 불교신자로 고인을 절 부근에 모시고 싶어 하는 경우, 고인은 독실한 불자이고 자녀들은 무교인 경우, 가족 모두가 무교인 경우다.

첫째의 경우는 이미 재적사찰이 있으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이들은 발인을 하고 화장장을 들러 전등사에 오면 유골을 명부전으로 모셔 반혼제를 한다. 스님의 집전으로 영목에 안치하는 장례의식의 내용에 대부분의 유족들이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스님들의 정성과 여법한 의식에 스님과 불교에 대한 호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제사 등 고인을 위한 추모 행위를 하며 자주 전등사를 방문한다. 이런 방문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불교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 궁금증은 스님들과의 면담으로 해결되고 신도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개정된 장사법에서는 종교단체는 해당 신도들에게만 수목장 제공이 가능하다. 해당 신도들에게 국한된 법률상, 포교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장지를 찾은 이들이 불교 장례문화의 여법한 의식에 감복한다면 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교로 귀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수목장은 포교에 있어 여전히 가능성이 큰 방편이다. 현재 개별사찰별마다 다른 명패, 관리법, 장례의식을 종단 차원에서 통합 · 개발해 매뉴얼을 갖춰 수목장을 진행한다면 대중에게 신뢰를 주고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만 개정 장사법은 문화재사찰(대부분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와 수목장 면적을 5000㎡로 제한했다.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문광부에 등록돼 있어 법인에 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장을 기존 장사법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은 포교에 방해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종단 차원 대책과 대응을 모색해 전통사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선의 힘으로 마음 키워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⑯ 달라진 마음, 달라진 시험

학생들에게 시험은 가장 부담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시험에 대한 마음의 입력을 바꿈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자세로 시험을 치루는 경험들을 하였다. 특히 마음의 힘을 키우는 참선의 힘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몇 사람의 체험을 나누어본다.

내가 달라졌어요

#긴장에서 편안함으로: 나는 원래 시험 때마다 긴장하는 사람이었다. 시험당일에는 항상 긴장해서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날락거려야한다. 시험을 보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끝없이 허둥지둥하며 다음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달랐다. 매일 3분 참선 훈련을 한 달간 한 후였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시험 직전에도 참선을 해서 마음을 집중하였다. 역시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만 당황하려는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유지해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시험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나에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힘을 진실로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달라졌다.

#시험이 행복하다니: 항상 시험기간에는 피곤하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라는 식의 마음의 입력을 계속 해 왔던 것 같다. 그것도 생각해 보기 전에는 몰랐었다. 그러다보니 공부를 미루기만 했다. 벼락치기로 시험 전날 밤을 새고 시험을 보곤 했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어 힘들게 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는 입력을 다르게 해 보았다. "행복한 시험, 감사한 시험"이라고 마음에 입력을 했다. 여전히 밤을 새워야 했지만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았다. 다시 몸이 힘들어지고 하기 싫을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험"이라고 했더니 피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시험 볼 때는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피하려던 시험을 행복하다고 하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으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매일 마음 집중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의 물결이 전보다는 훨씬 잔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결과에 많은 미련이 남고 계속 틀린 문제가 떠올라 다음 시험에 지장이 많았다. 이제는 시험이 끝나면 빠르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나간 시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다음 시험에만 집중해서 내 힘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나에겐 신기하고 신나는 일이다.

#불안이 사라져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참선을 하였다. 불과 하루 전까지도 시험만 생각하면 불안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시험 보는 동안 공부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순간 걱정했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런 일이 있어도 시험에 잘 집중하고 있는 자신이 딴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음 집중 훈련이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잘 할 수 있다: 4학년이라 매달 영어 토익시험을 보고 있다. 취업하기 위해 만족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봐야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번에도 못 보면 어떡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은 매일 세 번 이상 마음에 긍정적 입력을 해 보았다. "잘 할 수 있다"라고. 매일 하게 되면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자신감이 생기자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꽤 잘 본 것 같다. 마음의 입력이 출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다.

#감사한 시험: 그 전에는 시험기간이면 늘 민감해져서 누나나 주변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곤 했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서 정말 대학에 다니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생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이젠 내가 수업을 듣고 시험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지며 불평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대학에 오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에게 큰 변화를 준 수업을 듣게 된 것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음의 법칙은 자연의 원리이자 과학이다. 이것은 실제로 적용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입력이 바뀌면 출력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 부정적인 입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한번 바꾸어 보세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마곡사 방생법회를 배우자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가 최근 뜻 깊은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5월 27일 공주 금강 둔치에서 봉행한 방생법회에서는 토종붕어 35만 미를 방류했다. 생태계 교란의 우려를 이유로 방생법회는 사실상 금기시 되어왔지만, 이날 방생법회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이날 법회가 마곡사의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인 공주시의 지원을 받은 행사였다는 점이다. 마곡사는 이날 방생 법회를 위해 공주시로부터 토종 붕어의 치어 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비도 지원 받았다. 지자체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에 치어를 구입해 주고 방류를 위한 행사도 지원한다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사찰이 지자체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인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방생법회의 또 다른 의미는 생태보존과 불교계의 신행 의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법회라면 방생법회도 얼마든지 좋은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방생에는 짐승이나 어족의 방생 뿐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다른 나라의 재앙에 구호품을 보내는 일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마곡사의 방생법회는 지자체와 사찰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여법한 불교 의식이 봉행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태복원의 목적 사업도 이루어진 좋은 예다. 방생의 정신을 구현하는 좋은 사례로 다른 지역의 사찰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담사지 보존은 당연한 결정

서울 강북지역에 신설되는 뉴타운 지역 가운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은평뉴타운 개발 공사장에서 발견된 절터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소식이다.

뉴타운 개발지구는 막대한 개발 자금과 부동산 시세에 적지 않은 기대를 안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사의 지연이나 중지 등은 매우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게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절터를 보존하기로 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이 절터를 신라 10대 화엄 사찰 중의 하나인 청담사(淸潭寺) 터로 추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절터를 보존하는데 있어 이해 당사자와 개발 주체의 반발이 없지는 않겠지만,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국가적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새로운 유산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 또는 보전 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화유산은 과거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에도 활발하게 숨 쉬며 선인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비록 막대한 경제적 이해가 얽힌 뉴타운 개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귀중한 문화유산이 발굴 되었다면 그곳을 보존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대화를 나누는 현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태아영가 천도재 안내

태아영가는엄마, 아빠의업으로세상의빛을보지 못하고낙태된태아영가입니다. 엄마, 아빠는 무거운짐과 죄를벗어 낙태된 태아영가에게참회기도와함께다음생에 밝은빛을 보게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 가슴에담아두지 말고, 생각을미루지 마세요. 태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하루속히 저를 어둠속에서 벗어나밝은 빛으로 보내게해달라고 지금도태아영가는 슬프게말합니다. 기도해달라고…

◎ 망태아도 생명이다.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다, 그 업보로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
◎ 엄마, 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생에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기를 발원합시다.

기도안내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입재일 : 양력 6월 1일 - 일요일**
태아영가 49재 참회기도 회향일 : 양력 7월 20일 - 일요일
기도는입재/3재 기도 /5재기도 : 관욕/7재 기도 : 회향

준 비 물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 관욕에필요한 태아비누,수건,양말, 옷, 신발 등)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협 225051-51-113712 (구담사)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구담사 찾아오는길

1호차 : 조계사 앞(7:00)⇒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7:10) ⇒ 길음역 10번 출구(7:10) ⇒ 미아삼거리역1번출구(7:20) ⇒ 수유역1번출구(7:30)⇒도봉산역(8:00)⇒일동시내 ⇒ 구담사
2호차 : [지하철 7호선] 태릉역5번 출구(7:20) ⇒ 노원역3번 출구(7:30) ⇒ 도봉산역(8:00) ⇒ 의정부터미널 앞(8:20) ⇒ 일동시내 ⇒ 구담사
3호차 : [지하철 3호선, 7호선]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앞(7:20) ⇒ 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일동시내 ⇒ 구담사
4호차 : [지하철2호선]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 ⇒ 광나루역3번출구 버스정거장(8:05) ⇒ 구리역앞 GS백화점 육교밑(8:20) ⇒ 구담사
5호차 : [지하철1, 2호선]신도림역 1번출구 육교건너 푸르지오앞(06:30) ⇒ [1호선]구로역 구로사거리 열린웨딩부페앞(06:35) ⇒ [5호선]목동역 1번출구 좌측(06:45) ⇒ [3호선]일산 백석역 7번출구(07:15)⇒원당역 6번출구(07:30) ⇒ 의정부터미널(08:10)⇒일동시내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주인공들 한자리에

왕조 조상에 올리는 합동제사로 조선 최대 행사
종묘제례 · 제례악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록

44 화합의 축제-종묘대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은, 조선의 왕, 왕비들이 모여 대화합의 축제를 펼친다. 아들을 지독하게 미워한 아버지 태조, 형제들을 죽이고 자리를 쟁취한 태종,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 숙부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 불변의 성군 세종, 재위 9개월인 인종, 52년간 왕 노릇한 영조,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준 순종 등, 모두 차별 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한 자리에 모인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혼령들이 고이 간수한 곤룡포를 꺼내 입고 종묘로 모인다.

재위 중 업적에 관계없이 황제 혹은 대왕이란 칭호를 앞세워 모여든다. 종묘 수문장은 연이어 들이닥치는 호화판 가마의 주차관리에 정신이 없다. 전날부터 분주히 치장한 왕비들도 모여든다. 시중드는 궁녀들이 없는지라 손수 화장을 하고, 최대한 화려하게 차려입고 종묘에 들어선다. 남편과 함께 입장하기도 하고 홀로 입장하기도 한다. 애증은 모두 떨치고 온화한 웃음으로 들어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에 조용히 앉는다. 500년 역사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손들의 예를 받는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다. 절대군주인 조선 왕들에겐 선서의식이 없다. 있다면 이런 문구일 것이다.

'과인은 국법을 준수하고 종묘사직을 보위하며 만백성의 복리증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임금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억조창생 앞에 엄숙히 선서하노라.'

국가 보위와 종묘사직 보위는 동격이다. 종묘(宗廟)는 조선왕조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다. 사직(社稷)은 국토와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제사 및 그 장소이다. 사(社)는 토지신(土地神), 직(稷)은 곡신(穀神)을 상징한다. 사직을 국가나 조정 자체로 인식해 왔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고황제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왕궁의 동쪽에 종묘를 건립하고 서쪽에 사직단을 세웠다. 정전(正殿)은 건평 1270㎡로 조선시대 단일 목조건물로는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영녕전(永寧殿)은 종묘의 별관이다. 세종 때 중앙에 태묘(太廟) 4칸, 동서에 협실 1칸씩 6칸으로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에 10칸으로, 현재는 16칸으로 증축하였다. 정전에는 19실 49위, 영녕전에는 16실 34위가 있다. 영녕전에는 정종, 문종, 단종, 경종 등 왕권이 미미했던 왕과 추존왕들이 모셔져 있다. 정전이 축제의 메인스타디움이라면 영녕전은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합숙소 같다.


제향을 시작하기 전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선다.

종묘는 뛰어난 건축미와 600년 넘도록 이어져 내려온 제례 행사 등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001년에는 종묘 제례 및 제례악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당사자의 정당성에 결함이 없어야 종묘에 위패가 모셔진다. 개인의 영광이자 후손의 자랑이다. 연산군, 광해군은 종묘에 위패가 없다. 영조가 그토록 애를 썼지만 어머니 숙빈 최씨를 왕후로 추존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격미달로 신주가 종묘에 봉안되지 못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립현충원에 묻히려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묘제례는 왕조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왕조에서 지내는 여러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다. 그래서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왕릉별로 지내는 제향이 개별 제사라면 종묘제례는 합동제사다. 조선조 최대의 국가행사였다. 종묘대제는 본래 사맹삭(四孟朔)이라 하여 춘하추동 사계절의 첫 달과, 납월(臘月)이라 하여 12월에 날을 잡아 1년에 다섯 번 지내고, 영녕전의 제례는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지냈다. 지금은 통합하여 양력 5월 첫째 일요일에 지낸다.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문화유산 보존 및 재현의 의미가 더 크다.

5월 4일 일요일, 축제를 망치지 않으려는 역대왕들의 기원인양 날씨가 화창하다. 오전에는 영녕전에서, 오후에는 종묘 정전에서 제향이 봉행되었다. 종묘대제가 있는 줄 모르고 종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엉겁결에 보너스를 받는다. 11시 30분~12시 30분에 종로1,2,3가로 어가행렬이 지나간다. 궁을 나선 임금님의 행차가 종묘로 가는 중이다. 전문연기자가 아닌 출연자군, 연출된 풍경이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만하다. 여기저기서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다. 왕의 얼굴을 보려고 우르르 몰린다.




제례악을 연주하는 모습(위), 초헌관이 제향을 기다리고 있다.

왕은 제향에 앞서 3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엄숙하고 깨끗이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상이나 문병을 하지 않으며 음악도 듣지 않고 형살(刑殺)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출궁하는 날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은 궁궐 앞에 나누어 서고 호위 관원을 비롯한 출궁 행렬이 정렬하면 상서원 관원이 옥새를 받들고 문안한다. 임금이 수레에 올라 궁궐 밖의 어연(御輦:임금이 타는 가마)을 향하면 일산(日傘:햇빛을 가리는 양산)과 부채를 든 시위가 따른다. 임금이 어연에 오르면 신하들도 일제히 말을 타고 함께 출발한다. 그 뒤에는 호위부대인 현무대가 따른다.

종묘대제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신이 즐기는 절차→신이 베푸는 절차→신을 보내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전 남신문에서 축함을 모시고 신로(神路)를 따라 들어오면 제례가 시작된다. 이때 초헌관인 임금이 소차에서 나와 정전으로 이동한다. 제관들도 손을 씻고 정해진 자리에 선다.

신을 맞는 절차는 신관례로부터 시작된다. 하늘에 계시는 혼백을 모시는 의식으로, 향을 세 번 피우고 술(울창주)을 세 번에 나누어 관지통에 붓고 신께 선물로 흰 비단 폐를 드린다.

천조례는 신을 위해 상을 차리는 절차다. 제향에 쓰는 소, 양, 돼지의 생간과 피, 좁쌀을 기름에 버무려 쑥과 함께 태운다. 땅에서 자란 동식물을 봉헌하는 의식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신이 즐기는 절차는 초헌례로부터 시작된다. 초헌관인 임금이 첫잔인 예제를 드리면 제관이 축문을 읽는다. 역대 왕들께 받들어 올리는 한 잔 술에 최대 정성을 담아 백성과 왕실의 번영을 축원한다. 아헌례는 세자나 영의정이 두 번째 잔을 올린다.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는 종헌관이 맡는다. 세 번에 나눠 잔을 올리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의미한다.

종묘대제에는 음악과 무용이 수반되어 분위기와 위상을 높인다. 종묘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다. 제례악 중 보태평 1곡과 정대업 11곡은 세종이 직접 지었으며, 이후 세조가 고쳐서 완성한 곡이다. 서양음악사에서 제례악은 17세기 바로크시대에 시작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이보다 200년 앞섰다.

신이 베푸는 절차를 음복례라 한다. 조상신이 들었던 술과 음식을 후손이 나누어 먹는다. 종묘대제의 마지막 절차는 신을 보내는 망료례다. 종묘에 머물던 왕, 왕비들의 혼령이 떠날 시간이다. 제사에 사용된 폐와 향을 태울 때 타오르는 연기와 함께 떠난다. 내년을 기약하며 뿔뿔이 떠난다. 동구릉, 서오릉으로 향하는 혼령들은 관광버스로 함께 가면 될 것이고, 정종과 신의왕후는 남북 경계병의 눈치를 보며 휴전선을 넘어가고, 영월까지 가야하는 단종은 서둘러 떠나야 한다. 세종과 정조는 드라마 촬영장에 들러 훈수를 두고 가도 좋다. 모시고 갈 특별 교통편이 없을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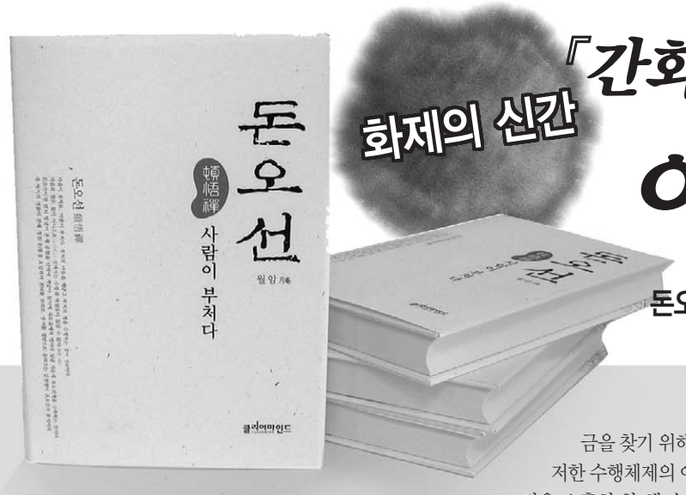
혼령들이 생전의 애증을 훌훌 털고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행사에 참가한 인사들의 면면과 이력, 색깔도 다채롭다. 평소에는 물과 기름, 창과 방패 같은 정치권 인사들이 종묘대제 봉행위원회에 어깨동무하듯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역시, 죽음은 최대의 법문이다. 대규모 화합의 축제다. 아무리 무지하고 오만해도 생로병사의 진리를 알기 때문일까.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화제의 신간

『간화정로』의 저자 '월암 스님'의 또 하나의 대작

이번에는 『돈오선』이다



돈오선이란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공)함을 요달하여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다.

한산 월암 閑山 月庵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道文 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중국에 유학하여 선학을 연구하고 여러 선종 조정祖庭을 참배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하였다.
지금은 벽송선원에서 선교겸수禪敎兼修, 선농일치禪農一致, 불이선不二禪 운동 등 한국 간화선풍 진작에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선회禪會를 열고 『간화정로看話正路』를 저술하였다.

글_ 월암月庵 | 499면 | 20,000원

금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듯이 실참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체제의 이해와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수행을 접근하는 것이 선수행자 에게는 가장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월암 선사의 돈오선의 저술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귀감의 지침이 될 것이다.
– 설정 스님 (덕숭총림 수좌)

돈오선은 조사선과 간화선의 핵심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깊이 다룬 문헌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월암선사가 돈오선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어서 진정견해(眞正見解)를 세우고, 나아가 선문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선자(禪者)에게 꼭 권하고 싶은 필독서이다.
– 의정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지금까지 '돈오'(즉각 깨달음) 이후 '닦음'의 문제로 성철 선사–보조 국사의 문도들 사이에서 감정적 대립만으로 치달으면서 간과해 버린 논쟁의 역사성과 현실적 맥락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고 있다.
– 한겨레신문

"그간의 돈–점 논쟁이 경쟁적이고 소모적이었다."고 반성하며 "다양한 논쟁수행론을 회통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 불교신문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논쟁의 뿌리와 곁가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 현대불교신문



간화정로 看話正路
글 월암月庵 | 512면 | 18,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